

보험동향 2011년 여름호

Ⅰ 총괄	윤성훈(선임연구위원)
Ⅱ 경제금융 동향	경제총괄 윤성훈(선임연구위원) 세계경제 이정환(선임연구원) 국내경제 오병국(연구원) 금융경제 이정환(선임연구원)
Ⅲ 국내보험시장 동향	보험총괄 황진태(연구위원) 생명보험 김세중(선임연구원) 이혜은(연구원) 손해보험 최 원(선임연구원) 김동겸(선임연구원)
Ⅳ 해외보험시장 동향	미 국 김세중(선임연구원) 영 국 이정환(선임연구원) 일 본 이정환(선임연구원) 중 국 왕양비(연구원)

■ 목차

I. 테마진단

OECD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 1

보험지주회사의 자기자본규제: 유럽의 사례와 시사점 / 21

II.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 32

2. 국내경제 / 55

3. 금융경제 / 65

III.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 71

2. 생명보험 / 74

3. 손해보험 / 93

IV. 해외보험시장 동향

1. 미국 동향 / 119

2. 영국 동향 / 127

3. 일본 동향 / 135

4. 중국 동향 / 141

V. 국내외 보험·금융 주요 뉴스 / 155

VI. 통계표 / 169

I. 테마진단

◀ OECD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김대환 연구위원

1. 검토배경

고령화에 따라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유형화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 최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와 동향 등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는 18년 만에 진입하고,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는 8년 만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진입속도가 훨씬 빠를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고령화의 진전은 노인인구 비율의 상승을 가져오고 공적연금 수급자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심각한 공적연금의 재정위기 문제를 가져올 것임.
 - 이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의 특수직역연금은 저부담·고급여중심의 제도설계로 인해 재정적자에 직면하거나 직면할 전망이다.

〈표 1〉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의 재정전망

구 분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지적자 연도	2044 (수지차: -5,4조)	수지적자(1993), 정부보전금으로 충당 (정부보전금: 2010년 1.7조, 2030년 16.2조 예상)	2021 (수지차: -25억)	수지적자(1973), 정부보전금으로 충당 (정부보전금: 2010년 1.3조, 2030년 3.2조 예상)
기금소진 연도	2060 (적립기금: -214,2조)		2033 (적립기금: 0원)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2008);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2010); 보건복지포럼(2010).

■ 따라서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어떠한 기초하에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틀을 구축하고 시행하느냐 여부는 우리나라의 현안 과제로 부각될 것임.

○ 이는 우리나라보다 일찍이 고령사회로 진입한 OECD 국가들이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하여 정부의 재정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변화와 특징 등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방향성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음.

-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OECD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연금개혁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재구축하고 있는 실정임.

■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을 살펴본 후에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유형화하여 특징을 검토해 보고,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와 동향 등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OECD 국가 대부분이 기초연금제도, 자산조사제도, 최소연금제도 등과 같은 소득재분배제라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률을 제고시키는 추세임.

■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어 획일적인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나 연금제도의 역할 및 기능에 따라 소득재분배기능(1층)과 보험기능(2층)에 따른 기준으로 분류함.

■ OECD 국가의 경우 자산조사제도, 기초연금제도, 최저연금제도¹⁾ 등과 같은 소득재분배 기능(1층)을 정부가 운영하고 있음.

○ 2011년 현재 22개국에서 기초연금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0개국에서는 자산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국가명	공적			공적 유형	사적 유형
	자산조사	기초연금제	최저연금제		
호주	✓				DC
오스트리아				DB	
벨기에	✓		✓	DB	
캐나다	✓	✓		DB	
덴마크	✓	✓			DC
핀란드			✓	DB	
프랑스			✓	DB + Points	
독일		✓		Points	
그리스			✓	DB	
아이슬란드	✓	✓			DB
아일랜드		✓			
이태리	✓			NDC	
일본		✓		DB	
한국	✓	✓		DB	
룩셈부르크	✓	✓	✓	DB	
네덜란드		✓			DB
뉴질랜드		✓			
노르웨이			✓	NDC	DC
포르투갈			✓	DB	
스페인			✓	DB	
스웨덴			✓	NDC	DC
스위스	✓		✓	DB	DB
영국	✓	✓	✓	DB	
미국				DB	

주: 1) 아이슬란드와 스위스의 경우 정부가 기여율, 최소수익률, 그리고 의무가입 기업연금에 대해 축적된 연금자산을 종신연금으로 전환하는 연금전환률을 정함. 따라서 이들 제도들은 암묵적으로 DB라 할 수 있음.

2) DB = Defined Benefit; DC = Defined Contribution; NDC = Notional Accounts

3) 공적의 의미는 특수지역연금을 제외한 순수한 공적연금만을 의미함.

자료: OECD(2011) 및 오영수(2011)에서 재인용함.

1) 자산조사제도는 소득 및 자산조사를 전제로 최소한도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공적부조제도를, 기초연금제도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국민 모두에게 균등하게 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최저연금제도는 노인에게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여 주는 연금제도를 의미함.

■ 연금제도의 2층 부분을 보면 OECD 국가 중 13개국의 경우 근로기간 동안의 기여연수(보험료납입연수) 및 개별소득에 따라 연금액이 지급되는 DB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프랑스 및 독일에서는 기여액(보험료납입액)을 점수로 산출한 후 급부를 차등 지급하는 점수제도(points system)가 운영되고 있음.

〈표 3〉 OECD 국가의 사적연금 운영형태

구 분		퇴직연금		개인연금	
		방식/가입주체	가입률	방식/가입주체	가입률
기초연금 단일체계	뉴질랜드	V/O - DC	-	V/O	-
	아일랜드	V/.OP-DB	52%		
	호주	M/OP-DC	>90%		
	아이슬란드	M/O-DB	>90%		
	덴마크	QM/O-DB	>80%	M/P	>90%
	스위스	M/O-DC	>90%		
기초+비례 이원체계	네덜란드	QM/O-DB	>90%		
	캐나다	V/O-DB	39%	V/P	50%
	일본	V/O-DB	45%		
	영국	V/O-DC	43%		
비례연금 단일체계	노르웨이	M/O-DC V/O-DC	>90% 45%		
	오스트리아	V/O-DB	35%		
	벨기에	V/OP-DC	40-50%		
	체코	V/.OP	40%		
	핀란드	V/O	7%	V/P	15%
	프랑스	M/O-DB V/O	>90% 10%	V/P	8%
	독일	V/O-DB	57%	V/P	13%
	그리스	V/OP	-		
	헝가리	V/OP	31%	M/P	58%
	이탈리아	V/O-DC	8%	V/P	2%
	룩셈부르크	V/O	20%	V/P	5%
	한국	V/O-DB	6%	V/P	18%
	폴란드	V/OP	-	M/P	49%
	포르투갈	V/O	4%	V/P	1.5%
	슬로바키아	V/O	27%	M/P	45%
	스페인	V/O	10%	V/P	40%
	스웨덴	QM/O-DB	>90%	M/P V/P	>90% 40%
	터키	V/O/P	-		
	미국	V/O-DC	47%	V/P	17%

주: 1) M(Mandatory)는 법정강제가입, V(Voluntary)는 임의가입, QM(Quasi-Mandatory)은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한 강제가입(반강제), O(Occupational)는 사용자에 의해 설정·운영되는 퇴직연금, P(Personal)는 개인차원에서 설정·운영되는 개인연금임.

2) 가입률(적용률, 포괄성)은 각 제도의 적용대상인구 대비 실제제도적용인구 비율임.

3) 한국의 퇴직금은 강제이지만 퇴직연금은 임의라는 점에서 임의로 분류함.

자료: OECD(2007)에서 발췌 및 재구성함.

○ 또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는 민간형태의 DB형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민간형태의 DC형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 DB형 및 DC형 이외에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은 명목확정기여형(NDC: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²⁾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임.

■ OECD 국가의 사적연금 운영 형태를 보면 사적연금에 가입의 강제성을 부여한 국가보다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은 국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비례연금이 없는 국가들은 대부분 퇴직연금가입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은 실질적으로 소득비례연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개인연금에 강제성을 부여한 국가(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등)들은 공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영화한 국가들로 나타남.

○ 사적연금에 가입의 강제성을 거의 부여하지 않는 국가들의 경우 퇴직연금가입률(포괄성)이 50% 전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연금의 가입률도 캐나다 및 노르웨이 등을 제외하고는 10~20% 수준으로 낮은 상태임.

○ 퇴직연금의 급여형태는 국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DB형에서 재정안정성이 높은 DC형으로 전환되는 추세임.

3.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유형 및 특징

보편적 기초연금제도 등이 견고한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노인빈곤율이 낮은 반면, 사적연금 지배형 국가의 경우는 노인빈곤율이 높은 수준임. 특히 공적연금 지배형의 경우 정부지출 규모가 다른 노후소득보장체계 유형보다 커 상대적으로 연금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남.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재정악화를 고려하여 공적연금 지배형·우위형의 국가들은 공적연금 기여율을 상향조정하는 경향이 강하며 연금수급연령의 연장 등을 통해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는 특징을 보임.

2) 보험료율을 일정 수준에서 거의 고정하고 급여 수준을 인구구조 변화 등에 자동적으로 연동하여 하향조정하는 방식을 의미함.

1)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유형

■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노후소득보장수준에서의 공사연금 역할 비중에 따라 공적연금 지배형, 공적연금 우위형, 사적연금 우위형, 사적연금 지배형 등 4가지 형태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분류함.³⁾

〈표 4〉 공사연금 역할관계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유형

구 분	유형의 특징	해당국가
공적연금 지배형 (유형 I)	공적연금이 퇴직 전 소득의 60% 이상 제공	그리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페인, 터키, 이탈리아 등
공적연금 우위형 (유형 II)	공적연금이 퇴직 전 소득의 40~60% 제공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프랑스, 노르웨이, 헝가리, 한국, 벨기에, 독일 등
사적연금 우위형 (유형 III)	공적연금이 퇴직 전 소득의 20~40% 보장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스위스,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등
사적연금 지배형 (유형 IV)	공적연금이 퇴직 전 소득의 20% 미만 보장	멕시코, 칠레 등 민영화 국가 및 호주, 아이슬란드 등

주: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전산업 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표준소득자의 공적연금 수급액 비율) 수준에 의해 노후소득보장체계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함.

○ 공적연금 지배형은 공적연금이 퇴직 전 소득의 60% 이상을 제공하는 유형으로 이들 국가 중 일부는 공적연금만으로 적정노후소득보장 수준인 70% 이상의 소득대체율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 이러한 공사연금 분담모형은 주로 비스마르크형 비례연금 단일체계 국가에서 발견된다는 점도 또 하나의 특징임.

3) 공적연금 역할 비중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유형화하는 정형화된 기준은 현재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World Bank 등에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30~40%를 감안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40% 이상인 국가를 공적연금 우위형 및 지배형에 해당하는 국가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40% 미만인 국가를 사적연금 우위형 및 지배형에 해당하는 국가로 먼저 의제한 후 소득대체율 20% 범위로 세분화하여 공적소득대체율이 60% 이상인 국가는 공적연금 지배형국가로, 공적연금소득대체율이 40~60%인 국가는 공적연금 우위형 국가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20~40%인 국가는 사적연금 우위형 국가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20% 미만인 국가는 사적연금 지배형 국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함. 이와 같은 구분은 기준의 차이는 있어도 국민연금연구원(2008), 정경희 외(2011) 등의 연구에서도 일부 적용하고 있음.

- 공적연금 우위형은 공적연금이 40~60%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제공하는 유형으로 프랑스, 헝가리, 우리나라, 독일 등 비스마르크형 연금제도 국가군과 노르웨이 등 베버리지형⁴⁾ 연금제도 국가군이 고르게 분포됨.
 - 이들 국가군들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사적연금의 가입률(적용율)이 40% 전후 수준으로 공적연금 지배형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헝가리는 공적연금에서 분리된 부분을 개인연금으로 강제화한 국가이므로 사적연금이 상대적으로 발전됨.
- 사적연금 우위형은 공적연금이 20~40%의 소득대체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 70%에 비추어 볼 때 노후보장의 무게 중심을 사적연금에 더 크게 위임하고 있는 형태임.
 - 이 유형에는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위스 등 기초연금의 베버리지 전통국가와 스웨덴 등 비스마르크 전통의 비례연금 국가, 그리고 최근 체제전환을 하면서 기존 공적 연금을 보완한 폴란드 및 슬로바키아 등의 국가군이 해당됨.
 -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는 퇴직연금이 강제화되어 있고,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는 개인연금이 강제화되어 있으며, 영국도 표면상 퇴직연금의 적용이 법적으로 임의지만 비례연금의 적용 제외를 받으면 퇴직연금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사적연금이 강제화되어 있는 것과 유사함.
- 사적연금 지배형은 공적연금이 퇴직 전 소득의 20% 미만을 제공하는 경우로 사적연금이 퇴직 전 소득보장에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형태임.
 - 칠레 등 종전의 공적연금을 완전히 민영화한 남미국가와 북유럽국가 중 아이슬란드가 이러한 유형에 해당됨.

2) 유형별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특징

■ 유형별 소득대체율과 노인빈곤율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됨.

4) 베버리지형은 누구에게나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비스마르크형은 비례연금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의미함.

○ 공적연금의 OECD 평균 소득대체율은 42.1%,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은 13.5%이며 공적연금 우위형(유형Ⅱ)의 노인빈곤 국가 비중⁵⁾이 22.2%로 다른 유형보다 가장 낮은 수준임.

- 노인빈곤국가 비중을 보면 사적연금 우위형이 33.3%, 공적연금 지배형이 50.0%, 사적연금 지배형이 66.7%로 나타나 사적연금지배형이 가장 높은 노인빈곤국가 비중을 보이고 있음.

〈표 5〉 OECD 국가의 소득대체율과 노인빈곤율

구 분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노인빈곤율(%)
공적연금 지배형	그리스	95.7	22.7
	룩셈부르크	87.4	3.1
	스페인	81.2	22.8
	오스트리아	76.6	7.5
	터키	64.5	15.1
	이탈리아	64.5	12.8
공적연금 우위형	핀란드	57.8	12.7
	포르투갈	53.9	16.6
	체코	50.2	2.3
	프랑스	49.1	8.8
	노르웨이	46.1	9.1
	헝가리	44.4	4.6
	한국	42.1	45.1
	벨기에	42.0	12.8
	독일	42.0	8.4
	미국	39.4	22.4
사적연금 우위형	캐나다	38.9	5.9
	뉴질랜드	38.7	1.5
	일본	34.5	22.0
	스위스	34.5	17.6
	영국	31.9	10.3
	스웨덴	31.1	6.2
	네덜란드	29.2	2.1
	아일랜드	29.0	30.6
	덴마크	28.9	10.0
	폴란드	28.7	4.8
사적연금 지배형	슬로바키아	26.0	5.9
	아이슬란드	15.0	5.0
	호주	11.8	26.9
	멕시코	5.0	28.0
OECD 평균		42.1	13.5

주: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표준소득자, 노인빈곤율은 표준가구의 가처분 소득 50%를 하회하는 소득을 지닌 65세 이상 노인비율을 의미함.

자료: OECD Income-Distribution Database(2008), Growing Unequal?, Table 5.3 및 OECD(2011), P. 129에서 발췌 및 재작성함.

5) 노인빈곤국가의 비중(%) =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 노인빈곤율보다 높은 국가 수 / 유형별 전체 국가 수 × 100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공적연금 우위형 국가 9개국 중에서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30개국 중 가장 높은 45.1%로 나타나 심각한 노인빈곤율을 보임.
 - 즉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OECD 30개국 중 1위로 나타나 향후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특징적인 것은 보편적 기초연금 또는 견고한 최저연금제도가 있는 국가들의 경우 노인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임.
 - 캐나다(5.9%), 스웨덴(6.2%), 네덜란드(2.1%) 등과 같이 기초연금제도 및 최저연금 제도가 도입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노인빈곤율이 낮은 수준임.
 - 이에 반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일랜드(30.6%), 일본(22.0%), 호주(26.9%), 미국(22.4%), 그리스(22.7%) 등은 노인빈곤율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GDP 대비 정부지출 규모 및 기여율을 소득보장체제와 연결시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됨.

- GDP 대비 정부지출 규모의 OECD 평균을 보면 1990년 6.1%에서 2007년에는 7.0%로 증가한 반면, 공적연금 지배형 국가는 같은 기간 8.3%에서 9.8%로 증가하는 등 다른 유형보다 공적연금 지배형 국가의 정부지출 규모가 큼.
 - 이에 반해 같은 공적연금 우위형 국가는 6.7%에서 8.2%로, 사적연금 우위형 국가는 5.6%에서 6.1%로, 사적연금 지배형 국가는 1.9%에서 2.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공적연금 우위형 · 지배형 국가가 상대적으로 사적연금 우위형 · 지배형 국가보다 GDP 대비 정부지출 규모가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높은 지출 증가율 추이를 보이고 있음.
- 그런데 공적연금 기여율(보험료율)의 OECD 평균은 1994년 19.2%에서 2009년 19.6%로 15년 동안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를 노후소득보장체제 유형별로 보면 1994년 공적연금 지배형, 공적연금 우위형, 사적연금 우위형의 기여율 평균은 각각 22.7%, 19.8%, 16.2%인 반면, 2009년의 공적연금 기여율 평균은 각각 23.3%, 20.6%, 15.2%로 나타나 공적연금 우위형 · 지배형과 달리 사적연금 우위형은 공적연금 기여율이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공적연금 우위형 · 지배형 국가들이 사적연금 우위형 · 지배형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적연금의 기여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6〉 OECD 국가의 GDP 대비 정부지출 규모 및 기여율

구 분		GDP 대비 지출규모(%)		공적연금기여율(%)	
		1990	2007	1994	2009
공적연금 지배형	그리스	9.9	11.9	20.0	20.0
	룩셈부르크	8.2	6.5	16.0	16.0
	스페인	7.9	8.0	29.3	28.3
	오스트리아	11.4	12.3	22.8	22.8
	터키	2.4	6.1	20.0	20.0
	이탈리아	10.1	14.1	28.3	32.7
공적연금 우위형	핀란드	7.3	8.3	18.6	21.6
	포르투갈	4.9	10.8	19.5	19.5
	체코	6.1	7.4	26.9	28.0
	프랑스	10.6	12.5	21.5	16.7
	노르웨이	5.6	4.7	-	-
	헝가리	-	9.1	30.5	33.5
	한국	0.7	1.7	6.0	9.0
	벨기에	9.1	8.9	16.4	16.4
	독일	9.0	10.7	19.2	19.9
사적연금 우위형	미국	6.1	6.0	12.4	12.4
	캐나다	4.2	4.2	5.2	9.9
	뉴질랜드	7.4	4.3	-	-
	일본	4.9	8.8	16.5	15.4
	스위스	5.6	6.4	9.8	9.8
	영국	4.8	5.4	-	-
	스웨덴	7.7	7.2	19.1	18.9
	네덜란드	6.7	4.7	17.9	17.9
	아일랜드	3.9	3.6	-	-
	덴마크	5.1	5.6	-	-
	폴란드	5.1	10.6	19.5	19.5
	슬로바키아	-	5.8	28.5	18.0
사적연금 지배형	아이슬란드	2.2	1.9	-	-
	호주	3.0	3.4	-	-
	멕시코	0.5	1.4	-	-
OECD 평균		6.1	7.0	19.2	19.6

주: 기여율에서 “-”의 표시는 단지 사적연금기여율(Private Pension Contribution Only), 연금기여율의 미분리(No Separate Pension Contribution), 무기여율(No Contributions)을 의미함.

자료: OECD(2011) 및 OECD(2010)에서 발췌 및 재구성함.

-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의 경우 GDP 대비 정부지출 규모가 다른 OECD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 프랑스는 1994년에 비해 2009년의 공적연금 기여율이 증가하지 않아 연금재정의 위기를 고려한 보험요율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특징을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정부지출 규모(2007년 기준)가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며 공적연금 기여율 또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고령화를 고려한 공적연금 개혁(보험요율조정 등)이 미진한 것으로 보임.

■ 연금수급연령 및 수급 후 기대여명을 노후소득보장체계 유형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적연금 지배형(유형 I)에 속하는 국가들의 연금수급연령은 평균적으로 58.5세(2010년 기준)로 나타나 다른 유형의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공적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기준으로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의 평균 연금수급연령은 각각 62.6세, 64.8세, 65.7세로 조사되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노후소득보장체계 유형일수록 상대적으로 공적연금의 수급연령은 높게 나타남.
- 또한 수급 후 기대여명의 평균(2010년 기준)은 유형 I 이 22.4세로 OECD 평균 18.5세보다 높은 수준인 반면, 사적연금 우위형·지배형은 각각 17.3세, 17.5세로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2050년 유형 I의 평균적인 연금수급연령이 62.9세, 유형 IV의 평균적인 연금수급연령이 66.3세로 나타나 공적연금 지배형 국가들보다 사적연금 지배형 국가들이 공적연금의 수급연령이 높은 것이 특징적임.
- 이처럼 OECD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연금재정악화를 고려하여 연금수급연령을 연장하는 연금개혁의 트렌드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상대적으로 사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2000년대 이후 고령화에 따른 연금재정의 안정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연금수급개시연령 연장을 통한 공적연금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 이유는 연금수급연령 연장 등을 통한 공적연금의 역할 축소 현상은 모든 노후소득보장체계 유형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즉 고령화에 따른 연금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형 I에 속하는 그리스(57세→60세), 터키(44.9세→62.3세), 이탈리아(59세→65세) 뿐만 아니라 미국(65세→67세), 영국(65세→68세), 일본(64세→65세), 호주(65세→67세) 등도 2050년까지 연금수급연령을 연장할 계획임.

〈표 7〉 OECD 국가의 연금수급연령 및 수급후 기대여명

구분		연금수급연령(남자, 세)			수급후 기대여명(남자, 세)		
		1993	2010	2050	1993	2010	2050
공적연금 지배형	그리스	57.0	57.0	60.0	22.7	24.0	20.3
	룩셈부르크	60.0	60.0	60.0	17.8	20.8	24.6
	스페인	65.0	65.0	65.0	15.9	17.9	21.4
	오스트리아	65.0	65.0	65.0	14.7	17.5	21.1
	터키	45.0	44.9	62.3	30.5	31.1	22.5
	이탈리아	55.0	59.0	65.0	24.2	22.8	20.9
공적연금 우위형	핀란드	65.0	65.0	65.0	14.1	16.8	19.8
	포르투갈	65.0	65.0	65.0	14.2	16.3	19.2
	체코	60.0	61.0	65.0	15.7	17.0	18.1
	프랑스	60.0	60.5	61.0	19.4	21.7	24.8
	노르웨이	67.0	67.0	67.0	12.8	15.7	18.9
	헝가리	60.0	60.0	65.0	14.5	16.5	16.3
	한국	60.0	60.0	65.0	16.2	20.2	19.3
	벨기에	60.0	60.0	60.0	18.1	21.1	24.8
	독일	63.0	65.0	65.0	16.5	17.0	20.3
	미국	65.0	66.0	67.0	15.3	16.8	17.7
사적연금 우위형	캐나다	65.0	65.0	65.0	15.8	18.3	21.4
	뉴질랜드	60.0	65.0	65.0	18.8	18.1	21.2
	일본	60.0	64.0	65.0	20.2	19.8	21.6
	스위스	65.0	65.0	65.0	15.9	18.9	22.4
	영국	65.0	65.0	68.0	14.2	16.9	16.9
	스웨덴	65.0	65.0	65.0	15.5	17.9	21.1
	네덜란드	65.0	65.0	65.0	14.4	17.3	20.6
	아일랜드	65.0	65.0	65.0	13.4	16.9	20.0
	덴마크	67.0	65.0	67.0	12.0	16.4	17.2
	폴란드	65.0	65.0	65.0	14.2	14.4	17.2
	슬로바키아	60.0	62.0	62.0	16.1	16.3	19.2
	아이슬란드	67.0	67.0	67.0	13.4	16.8	19.8
사적연금 지배형	호주	65.0	65.0	67.0	15.7	18.6	19.7
	멕시코	65.0	65.0	65.0	16.1	17.2	18.9
OECD 평균		62.4	62.9	64.6	16.7	18.5	20.3

자료: OECD(2011), pp. 25~29에서 발췌 및 재구성함.

4.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와 최근 동향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연금지급액 축소, 공적연금의 민영화, 사적연금을 활용한 공적연금 보완, 사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강제화) 등 4가지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며 연금개혁이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지든지 공통적인 현상은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임.

1) 공적연금의 연금지급액 축소 등

■ 최근 공적연금의 지급액을 축소하거나 연금수령기간을 연장하고 재정방식도 부과방식에서 적립방식으로 전환하는 연금개혁이 이루어짐.

○ 이러한 개혁이 나타나고 있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 공적연금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국가임.

■ 독일은 2007년 수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2012~2030년까지 67세로 상향조정하고 프랑스는 2010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였으며, 영국 또한 68세로 상향조정할 계획임.

○ 최근에는 수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을 평균수명 및 기대여명의 증가에 자동적으로 연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2000년 후반에 덴마크,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유사한 정책을 선택함.

■ 또한 캐나다, 이탈리아 등은 부과방식에서 적립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즉 부과방식적 연금모델에 적립방식적 요소를 가미하여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를 도모함.⁶⁾

○ 부과방식의 경우 인구고령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보험료부담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여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기존의 부과방식적 연금모델에 적립방식적 요소를 강화함.

6) 부과방식은 급부비용을 매년 조달하는 방식을, 적립방식은 1년을 수지단위로 장래에 대하여 보험료의 부담을 평준화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이 두 방식을 혼합한 방식이 부분적립 또는 수정적립방식이 됨. 부과방식적 연금모델은 부과방식에 보다 초점을 맞춘 재정모델을 의미하며 적립방식적 요소는 적립방식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사전적립방식과 유사한 개념임.

-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사전적립(prefunding)을 변화의 방향으로 선택하여 공적연금에서 부분적립(partial funding)이 이루어지고 있음.

■ 결국 부분적 연금개혁에서 연금수급연령의 연장, 재정방식의 변형 등과 같이 공적연금을 직접 수술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변화함.

2) 공적연금의 부분민영화

■ 스웨덴, 폴란드 등은 칠레와 같은 완전민영화 방식이 아닌 기존의 공적연금 틀을 유지하면서 인구구조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적연금의 부분민영화를 추진함.

- 즉 스웨덴은 기존의 공적연금 보험료 중 일부(18.5% 중 2.5%⁷⁾)를 적립식 DC형 개인연금(FDC: Financial Defined Contribution)인 수익연금기금(PPF: Premium Pension Fund)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명목개인계정의 확정기여형연금(NDC: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⁸⁾으로 전환하는 부분민영화를 이행함.
- 이처럼 수익연금기금(PPF)을 도입하여 공적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개인계정에 투입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거의 모든 근로자들이 연금펀드에 가입하는 실정임.
 - 이는 대규모 연금시장 구축을 통해 국가역할을 일부 축소함과 동시에 연기금 적립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기인함.
- 특히 수익연금기금에서는 각 투자기관들이 가입자와 개인적으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수익연금청(Swedish Premium Pension Authority)이 개인과 연금기금을 매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각 기금들은 가입자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이는 지나친 홍보비 지출 또는 가입자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

7) 16%는 비레연금(NDC)으로 운용됨.

8) NDC(스웨덴, 폴란드) 또는 準DC(독일)는 보험요율을 일정 수준에서 거의 고정하고 급여 수준을 인구구조 변화 등에 자동으로 연동하는 방식임.

■ 이처럼 스웨덴은 기존 공적연금을 공적연금인 확정기여형연금(NDC)과 사적연금인 수익연금기금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개인연금에 대해 강제화를 추진함.

- 스웨덴의 연금개혁 특징은 개인연금이 1층의 국민연금과 분리된 층을 형성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적연금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임.

3) 사적연금을 활용한 공적연금 보완

■ 우리나라처럼 사적연금 임의가입형태를 띠고 있는 미국 등은 과감한 연금세제혜택 부여를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함.

- 즉 과감한 연금세제혜택 부여 등과 같은 가입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여 사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사적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16,500 달러이며 50세 이상 근로자는 5,500 달러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퇴직연금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소득공제혜택 수준이 매우 높음.

■ 독일 또한 사적연금의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보조매칭(matching)방식의 리스터(Riester Pension)연금을 도입하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역할을 강조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실시됨.

- 즉 2001년 연금개혁에서는 당시 노동부장관인 리스터(W. Riester)의 이름을 따서 리스터 연금이라는 공적연금 급여수준 인하에 따른 연금부족분을 대체하는 제도를 도입함.
 - 리스터 연금은 저소득계층과 가족이 있는 공적연금가입자가 퇴직연금이나 인증 받은 개인연금에 가입할 때 지급하고 소득공제혜택이 추가됨.
- 리스터 연금에서 강조된 것은 보조금지급 대상이 되는 연금상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60세 이상이나 공적연금지급 시에 종신연금 형태의 수령이 가능하도록 규제하였다는 점임.
 - 리스터 연금은 2005년 가입자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서 가입자의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중·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재정지원의 영향으로 연소득 1만 유로 이하인 저소득층이 전체 가입자의 28.9%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리스터 연금을 계기로 독일은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공적연금 단일보장에서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로 전환하게 됨.

■ 결국 사적연금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 저소득계층에 대한 세제 및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여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사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변화는 우리나라와 같이 퇴직연금이 임의가입형태인 국가에서 보다 두드러지고 있음.

4) 사적연금제도의 가입 의무화

■ 사적연금가입을 의무화(강제화)하여 사적연금 가입률을 높이는 등 사적보장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임.

- 즉 오세아니아 2개국, 유럽 9개국, 미주 1개국 등 총 12개국이 사적연금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 있음.

〈표 8〉 사적연금제도 의무화 국가(12개국)

구 분	국가명
오세아니아(2개국)	호주, 뉴질랜드
유럽(9개국)	덴마크, 헝가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미주(1개국)	멕시코

주: 사적연금 의무화 유형은 사용자 기여분 의무화(호주, 스위스, 아이슬란드)유형, 근로자 기여분 의무화(덴마크, 멕시코, 헝가리, 스웨덴)유형, 단체협약을 통한 의무화(네덜란드 등)유형 등으로 구분함.

자료: OECD(2009), Pensions at Glance.

- 사적연금 의무화는 사용자 기여분 의무화(호주, 스위스, 아이슬란드) 유형, 근로자 기여 의무화(덴마크, 멕시코, 헝가리, 스웨덴) 유형, 단체협약을 통한 의무화(네덜란드 등) 유형 등으로 구분됨.

■ 특히 영국은 퇴직연금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퇴직연금 개혁을 추진하여 2008년 연금법을 개정하였으며, 2012년부터 자영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자동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 급여의 최소 3% 이상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중소기업 및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0.5% 정도로 수수료를 낮게 책정한 공적연금사업자 네스트(NEST: 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를 신설하여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임.
- 미국 오바마 행정부 또한 자동가입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퇴직연금의 준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이처럼 사적연금 가입의 의무화(강제화), 사적연금의 자동가입시스템 등을 통해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전환하여 고령화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는 추세임.

5. 정책적 시사점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악화 등을 고려하여 공적연금의 저부담·고급여체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과감한 연금세제 혜택 등이 이루어지고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 제도를 단일화 한 후 퇴직연금가입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에 따른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OECD 국가들은 다양한 형태로 공사연금 간 역할분담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변화시키고 있음.

- 공적연금 지배형, 공적연금 우위형, 사적연금 우위형, 사적연금 지배형에 속하는 국가 모두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그 형태는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역할 축소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

- 공적연금 지배형 및 우위형은 상대적으로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사적연금 지배형 및 우위형은 공적연금의 보완 측면에서 공적연금 역할 축소를 통한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변화와 동향을 볼 때 공적연금의 재정부담 가중을 고려하여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즉 공적연금의 지급액을 축소하거나 연금수령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를 기하면서 공적연금의 역할축소에 따른 노후소득부족분을 사적연금으로 보완하려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변화와 특징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대략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재정악화를 고려하여 공적연금의 저부담·고급여체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수직역연금의 저부담·고부급여체계를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중심(국민연금+퇴직연금+TSP⁹⁾)으로 개혁하면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조치(공적연금의 부분민영화, 요율 및 연금수령기간의 조정 등)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공적연금의 역할 축소에 따른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약화를 감안하여 일정한 소득 이하인 사람들에게 대해 기초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마련이 요구됨.
 - 예를 들어 독일의 리스터 연금처럼 일정한 소득 이하인 사람들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는 제도의 도입이나 기초노령연금의 급여 수준을 보다 현실화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연금세제 혜택 강화 등을 통해 사적연금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거나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제도를 단일화한 후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향 검토가 요구됨.

9) 개인의 각출에 비례하여 국가가 매칭하여 적립하는 개인저축계정(TSP: Thrift Savings Plan)임.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로 감소하므로 이 감소분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사적연금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시됨.
- 따라서 호주, 영국 등과 같이 퇴직일시금에 대해서는 고율과세를 적용하되, 연금에 대해서는 저율과세 부과를 적용하여 연금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경우 퇴직연금 가입을 근로자의 복지권 차원에서 의무화(강제화)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는 제도개선이 요구됨.

■ 결국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을 감안할 때 사적연금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이 필요함.

〈참 고 문 헌〉

- 김대식(2011. 6. 23),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강화와 개선과제」, 21세기 금융비전포럼 조찬세미나자료.
- 김용하(2011. 6), 「노후소득보장 시스템 개혁의 효과성 국제비교」, 사회정책연구, 한국사회정책학회.
- 류건식(2011. 6. 22), 「사적연금의 노후보장역할 및 정책과제」, 금융선진화포럼 조찬세미나자료.
- 류건식 외 2(2009. 3),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 방하남 외 3(2005. 10),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한국개발연구원.
- 오영수(2011. 6. 3), 「지속가능한 다층연금체계의 구축방안」, 한국연금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용하(2011. 6. 3), 「다층연금체계 구축: 내실화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연금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용하·정해식(2008. 12),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 정경희 외(2011. 4), 「베이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현황분석」.
- 고용노동부·한국채권연구원(2010. 12), 「퇴직연금으로의 퇴직급여제도 단일화방안 연구」.
- 보험미래포럼(2010. 6), 「연금의 진화와 미래」, 논형출판사.
- Chomik, R and Whitehouse, E.R.(2010), "Trends in Pension Eligibility Ages and Life Expectancy, 1050-2050",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105, OECD Publishing, Paris.
- OECD(2009), Pensions at a Glance: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OECD Private Pensions Series.
- _____(2009), Pensions at a Glance: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 base.
- _____(2007), Pensions at a Glance: OECD.
- _____(1989-2009), OECD Labour Force.
- _____(2011), "Pensions at a Glance: 2011 Retirement-Income System in OECD and G20 counties".
- Queisser, M & Whitehouse, E.R.(2007), "The public-private pension mix in OECD countries", Industrial Relations Journal, 38(6).

◆ 보험지주회사의 자기자본규제: 유럽의 사례와 시사점

조재린 연구위원, 김해식 연구위원

1. 검토 배경

공정거래법 개정안 논의를 계기로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국내 최초의 보험지주회사 탄생도 지주회사 전환 동기가 충분함을 보여줌. 이에 현행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규제를 최근 발표된 EU Solvency II의 제5차 계량영향평가를 통해 검토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함.

■ 금융사업 다각화와 겸업화 측면에서 국내에서도 보험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 동기와 여건 조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음.

○ AXA, Allianz, Generali, Prudential 등 대다수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다양한 금융사업을 영위하는 보험금융그룹들로서 지주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음.

- 또한 글로벌 20대 은행금융그룹 중 14개사가 지주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20대 금융투자금융그룹 중에서는 18개사가 지주회사 형태임.¹⁾

○ 국내에서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지주회사 전환 여건은 현재보다 기업들에게 보다 유리하게 전개될 것임.

-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금융회사를 보유한 기업이 사업지주회사로 전환 시 중간지주회사 형태로 보험회사 등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2011년 메리츠화재는 주식을 인적분할하는 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여 국내 최초의 보험지주회사가 됨으로써 다른 기업들의 전환 동기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함.

○ 메리츠화재는 보유하고 있던 관계사 주식을 포함하여 자산의 30%를 새 지주회사로 이전하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메리츠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함.

- 메리츠금융지주회사는 자사의 신주를 메리츠화재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메리츠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함.

1) 신보성(2008).

- 이로써 현재까지 보험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는 5개 은행지주회사와 1개 보험지주회사임(〈표 1〉 참조).²⁾

〈표 1〉 우리나라 주요 금융지주회사 및 보험자회사 보유 현황

지주회사명	상장 여부	소유 보험자회사	자산총액 (조 원)	지주회사 내 상장회사 수
우리금융지주(주)	상장	우리아비바생명	291	31
(주) KB금융지주	상장	KB생명	262	12
(주) 신한금융지주회사	상장	신한생명	266	18
(주) 하나금융지주	상장	하나HSBC생명	160	11
산은금융지주(주)	비상장	KDB생명	159	22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주)	비상장	-	69	3
한국씨티금융지주	비상장	-	59	4
(주)메리츠금융지주	상장	메리츠화재	4.7	2
한국투자금융지주(주)	상장	-	3	15
한국투자증권(주)	비상장	-	0.2	2

주: 2010년 12월 기준, 메리츠금융지주는 2011년 3월 기준임.

자료: 각 사별 공시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0).

■ 국내의 현행 지주회사 자기자본규제는 그룹이 가지는 다각화 특성을 고려할 때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이리 맥락에서 유럽의 자기자본규제(Solvency II, 이하 EU S2) 현장평가 내용과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큼.

- 국내 보험지주회사의 요구자본 산출방식은 금융자회사별 요구자본의 합계액에 지주회사 자체 요구자본을 은행기준으로 산출하여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나, 금번 EU S2 제5차 계량영향평가는 그룹 내에서 자기자본 산출방식이 동일한 금융업권을 하나로 묶어서 분산효과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2) 사업지주회사인 녹십자홀딩스도 녹십자생명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이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같은 추가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녹십자생명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임.

2. EU S2의 제5차 계량영향평가

유럽 보험감독위원회(EIOPA)의 EU S2 기준(2013년 이후부터 적용)을 적용할 경우 보험회사의 평균 지급여력비율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그룹 형태의 보험회사는 분산효과를 통해 요구자본량을 많이 줄이고 있음.

2.1. 제5차 계량영향평가 대상과 결과

■ EIOPA는 보험금융그룹 167개사를 포함한 총 2,520개사를 대상으로 제5차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함.

- 보험회사 규모는 EU S2가 적용될 전체 보험회사의 68.5%에 해당하며, 보험료나 준비금 규모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함.
 -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보험회사, 캡티브사, 생·손보 겸영 회사들로 구성됨.
 - 참가한 보험회사들 중 소형사 60.0%, 중형사 31.4%, 대형사가 8.9%를 차지함.³⁾
- 167개 보험금융그룹에 대해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을 적용한 두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EU S2 결과와 EU S1 결과를 비교함.⁴⁾
 - 규모별로 소형그룹 76.0%, 중형그룹 13.8%, 대형그룹 10.2%로 구성됨.⁵⁾

〈표 2〉 EU S2 제5차 계량영향평가: 보험금융그룹의 규모별 분포

평가방식 및 규모	대형그룹	중형그룹	소형그룹	계
EU S1(현행 표준)	17	22	112	151
EU S2(표준모형)	17	23	126	166
EU S2(내부모형)	9	6	14	29
평가대상 그룹 수(비율)	17(10.2%)	23(13.8%)	127(76.0%)	167(100.0%)

3) 손해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 10억/1억 유로(약 1.5조 원/0.15조 원)를 기준으로 대/중/소형사를 구분하고, 생명보험의 경우 책임준비금 100억 및 10억 유로(약 15조 원 및 1.5조 원)를 기준으로 대/중/소형사로 구분함.

4) EU S2 표준모형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 이외의 방식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생략함.

5) 보험금융그룹의 경우 자산 900억/300억 유로(약 140조 원/47조 원)를 기준으로 대/중/소형사를 구분함.

- 제5차 계량영향평가에서는 요구자본 증가로 잉여자본(surplus: 요구자본을 초과하는 가용자본량)이 축소되고 지급여력비율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text{지급여력비율} = \frac{\text{가용자본}}{\text{요구자본}}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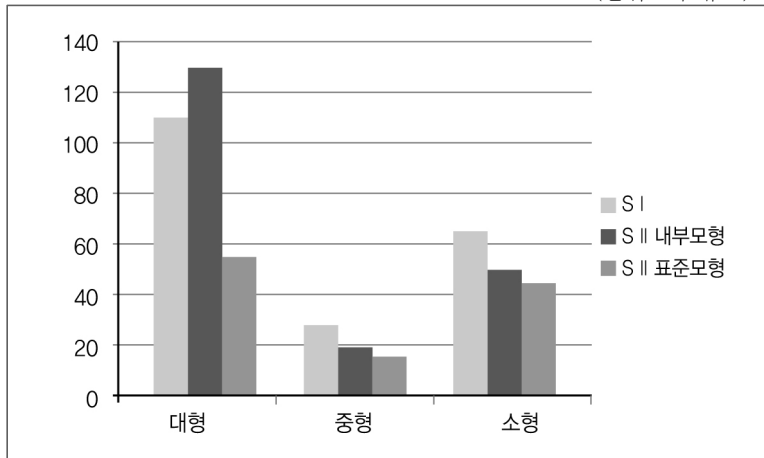
- 다양한 위험을 반영한 요구자본 산출기준이 적용되고 가용자본의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고 잉여자본이 감소하게 됨.
 - EU S1은 책임준비금, 위험보험료, 보유보험료 등에 일정률의 위험계수를 곱하여 요구자본량을 산출함.
 - 반면, EU S2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운영위험, 생명보험위험, 건강보험위험, 손해보험위험 등 다양한 위험을 반영함.
 - EU S1은 가용자본의 손실 흡수성 등 리스크 정도를 구분하지 않으나 EU S2는 리스크와 재무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본만을 가용자본으로 산출함.
- 또한 연결재무제표를 적용한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데, 그 결과 보험금융그룹의 경우에는 잉여자본 축소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

2.2. 보험금융그룹: 지급여력비율 하락과 잉여자본 감소

- 보험금융그룹의 잉여자본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EU S2 표준모형을 적용한 경우 EU S1의 57% 수준으로 크게 감소함.
- EU S2에서 보험금융그룹의 잉여자본은 EU S1의 2,000억 유로에서 860억 유로가 감소한 1,140억 유로 수준으로 낮아짐.
 - 그룹 연결재무제표 적용으로 가용자본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한편, 내부모형에서는 대형그룹의 경우 잉여자본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내부모형 적용에 따른 요구자본의 감소 때문으로 추정되나, 중소형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 잉여자본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음.

〈그림 1〉 보험금융그룹의 잉여자본 변동

(단위: 억 유로)



2.3. 보험금융그룹: 분산효과와 요구자본 경감

■ EU S2에서 보험금융그룹의 요구자본은 개별 자회사에 대해 산출된 요구자본을 합산할 때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여러 자회사를 단일 경제 단위로 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데 따른 결과, 즉 분산효과 때문이다.

○ 보험그룹의 요구자본 산출은 크게 세 가지 군으로 나누어 산출됨(〈그림 2〉 참조).

- 지주회사와 지분율로 통제 가능한 보험회사군을 하나로 묶어 요구자본을 산출함(SCR^*).
- 보험업 이외의 다른 금융자회사(CR_{OFS})와 지분율은 낮지만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험자회사의 요구자본(SCR_{NCP})을 별도로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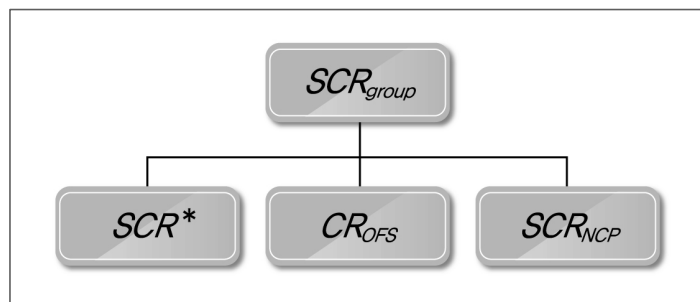
○ EU S2는 기초요구자본($BSCR$)을 시장(SCR_{mkt}), 신용(SCR_{def}), 생명보험(SCR_{life}), 건강보험(SCR_{health}), 손해보험(SCR_{nl})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후, 각 요소끼리의 상관관계를 반영하여 합산함.

$$BSCR = \sqrt{\sum_{ij} Corr_{ij} \times SCR_i \times SCR_j}$$

- 예를 들어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를 자회사로 가진 경우, 각 자회사의 요구자본을 단순히 합한 값보다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를 하나로 묶어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값이 작음.

- EU S2는 생명보험 요구자본과 손해보험 요구자본의 상관계수를 0으로 계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남.
- 따라서 분산효과는 그룹 내의 보험회사군을 단일 주체로 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함으로써 개별 자회사들의 요구자본들을 단순 합산할 때보다 요구자본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

〈그림 2〉 보험금융그룹의 요구자본 산출



- 보험금융그룹 요구자본은 자회사들의 요구자본을 단순 합산했을 때의 요구자본 대비 80% 수준이며, 그룹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경우에는 87% 수준을 보임.
- 보험금융그룹에 대한 EU S2 표준모형의 그룹 요구자본과 개별 자회사 요구자본(SCR_i) 합산치의 차이($1 - SCR_{group} / \sum SCR_i$)는 평균 20%로 나타남.
 - 그러나 표준편차가 18%에 달하여 개별 그룹들이 달성한 실제 분산효과 정도는 크게 차이가 있음.
- 한편, 내부거래를 제거한 실제 분산효과는 13% 수준으로 나타남.
 - 개별 자회사의 요구자본을 합산한 결과와 내부거래 부분을 조정한 요구자본(SCR_i^{adj})을 합산한 값의 차이($1 - \sum SCR_i^{adj} / \sum SCR_i$)는 9% 수준임.
 - 따라서 실제 분산효과는 표준모형의 그룹 요구자본과 개별 자회사의 내부거래 부분을 조정한 요구자본(SCR_i^{adj})을 합산한 값의 차이($1 - SCR_{group} / \sum SCR_i^{adj}$)인 13% 수준임.
 - 다만, 내부거래 계산이 어려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그룹들이 많은 까닭에 실제 분산효과는 과대평가된 것일 수도 있으나, 제5차 계량영향평가 기준을 적용한 시장의 전문평가기관들은 더 높은 분산효과를 제시하고 있기도 함.

- 규모가 클수록 개별 자회사의 요구자본을 단순하게 합산한 경우에 비해 요구자본의 감소 폭도 더 큰 것으로 관찰됨.

- 대형그룹 21%, 중형그룹 16% 수준이었으나 소형그룹은 5% 미만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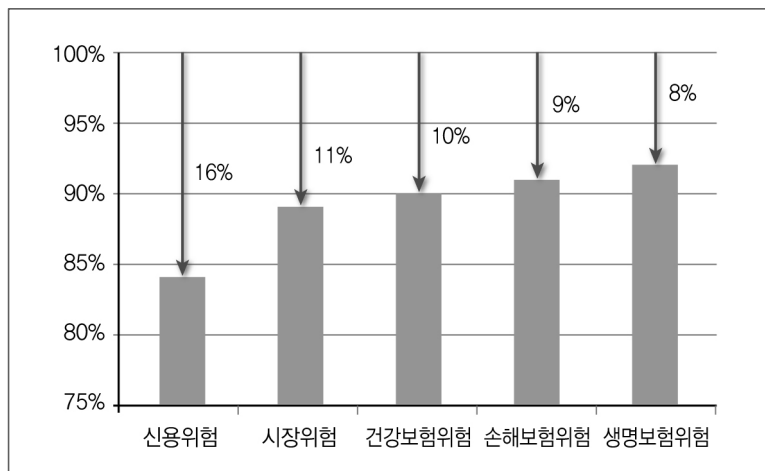
■ 보험금융그룹의 분산효과를 위험별로 살펴보면 신용위험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

- 분산효과는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에서 크게 나타나고, 보험위험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분산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위험별 분산효과는 신용위험 16%, 시장위험 11%, 건강보험위험 10%, 손해보험위험 9%, 생명보험위험 8% 순임.

- 시장위험의 분산효과는 금리위험부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

〈그림 3〉 보험금융그룹의 위험별 분산효과



3. 보험금융그룹에 대한 제5차 계량영향평가 결과의 의미

보험금융그룹 평가 결과는 향후 EU S2가 보험업의 그룹화와 대형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보험금융그룹은 분산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으로 예상됨.

■ 보험금융그룹에 대한 5차 계량영향평가를 요약하면, 그룹의 지급여력비율은 개별 보험회사들과 마찬가지로 EU S1 대비 하락했으나, 그룹 전체 요구자본은 개별 자회사의 요구자본을 단순 합산한 요구자본보다 줄어듦.

- 지급여력비율 하락은 국제회계기준(IFRS)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이 EU S2에 적용됨으로써 그룹의 가용자본이 하락하고 요구자본은 EU S1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임.
- 그러나 생명, 손해, 건강, 재보험 등 보험자회사의 요구자본이 하나의 기업과 같이 단일 단위로 산출됨으로써 요구자본의 경감효과가 나타남.
 - 또한 내부모형을 적용하는 그룹의 경우 요구자본 수준이 표준모형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낮아 요구자본 경감효과는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그룹의 규모가 클수록 요구자본 경감효과도 커지는 현상은 EU S2의 표준모형과 내부모형 모두에서 동일하게 관찰되고 있음.

■ EU S2에서는 잉여자본의 주된 원천이 분산효과이므로 보험회사는 분산효과를 높여 잉여자본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할 것임.

- 따라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또는 재보험 등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여러 보험업의 경영을 통해 분산효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다른 한편으로는 분산효과 이전과 이후의 요구자본 수준을 동일하게 하는 합법적인 내부거래를 통해 분산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임.

4. 국내 보험지주회사의 자기자본규제와 EU S2의 시사점

EU S2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표준모형과 제5차 계량영향평가 결과는 국내 보험지주회사의 자기자본규제에 있어서 지주회사 자체의 요구자본 산출, 분산효과의 반영, 비금융자회사(보험업관련 서비스)의 요구자본 산출 등에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4.1. 국내 보험지주회사의 자기자본규제 현황

- 보험지주회사의 자기자본비율은 100%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보험지주회사의 조정자기자본(가용자본)이 감독규정에 따라 산출된 요구자본보다 커야 함을 의미함.
- 은행지주회사의 경우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계산한 위험가중자산의 8%를 요구자본으로 산출함.

$$\text{가용자본} \geq \text{요구자본}$$

$$(\text{은행지주회사의 요구자본} = \text{위험가중자산} \times 8\%)$$

- 가용자본은 지주회사 자체 자기자본과 자회사의 자기자본을 합산한 금액에서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또는 자회사와 자회사 간 출자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 금융자회사의 자기자본은 해당 금융업 감독규정에서 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산출함.
 - 별도의 자본적정성 기준이 없는 금융자회사의 자기자본은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에서 무형자산과 이연법인세자산을 차감함.
 - 비금융자회사의 자기자본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 요구자본은 금융자회사의 요구자본 합계액과 지주회사 자체 요구자본을 합산함.
 - 지주회사의 요구자본은 은행지주회사와 유사하게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자회사 출자액 및 지원액을 뺀 금액에 대하여 8%를 적용하여 산출함.

- 따라서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 자체 요구자본에 대해서는 은행 기준으로 지주회사 해당 자산에 대하여 100%의 가중치를 부여한 것임.
- 금융자회사의 요구자본은 해당 금융권역별 요구자본 산출기준에 의거해 산출함.
- 비금융자회사의 경우 지주회사의 출자액에 구간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며, 결손이 있을 경우 결손액을 합산하여 최종 요구자본을 산출함.
- 구간별 가중치는 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출자액 비중에 따라 차등임.

〈표 3〉 비금융자회사 출자액에 요구되는 요구자본

비금융자회사에 대한 출자액(X)	필요자본(Y)
$X \leq (A \times 5\%)$	$Y = X \times 8\%$
$(A \times 5\%) < X \leq (A \times 15\%)$	$Y = (A \times 5\% \times 8\%) + [X - A \times 5\%] \times 12\%$
$(A \times 15\%) < X \leq (A \times 25\%)$	$Y = (A \times 5\% \times 8\%) + (A \times 10\% \times 12\%) + [X - A \times 15\%] \times 25\%$
$(A \times 25\%) < X \leq (A \times 60\%)$	$Y = (A \times 5\% \times 8\%) + (A \times 10\% \times 12\%) + (A \times 10\% \times 25\%) + [X - A \times 25\%] \times 32\%$
$(A \times 60\%) < X$	$Y = (A \times 5\% \times 8\%) + (A \times 10\% \times 12\%) + (A \times 10\% \times 25\%) + (A \times 35\% \times 32\%) + [X - A \times 60\%]$

주: A는 지주회사의 자기자본임.

4.2. 국내 보험지주회사의 자기자본규제에 대한 EU S2의 시사점

- 지주회사 자체의 자기자본규제는 보험회사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거나 지주회사와 보험자회사를 하나의 보험회사로 보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보험지주회사 요구자본은 지주회사에게 은행업의 자기자본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데다, 지주회사의 자산에 대해 100%의 가중치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은행지주회사에 비해 불리함.
- 은행지주회사의 경우는 은행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아 지주회사 자체의 필요자본 산출시 현재의 규제방식과 같이 은행권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 반면,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은행을 소유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보험회사의 비중이 현저히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

- EU S2는 지주회사와 그룹 내의 보험회사군을 단일 주체로 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함.
- 즉 지주회사를 하나의 보험회사로 취급함.

■ 보험지주회사의 요구자본 산출 시 지주회사와 보험자회사를 하나의 단위로 할 경우 EU S2에서 나타난 것처럼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는 보험회사의 인수합병과 지주회사 전환 동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EU S2의 제5차 계량영향평가 결과, 보험금융그룹의 분산효과는 자회사 요구자본을 단순히 합산한 경우보다 20%의 요구자본 절감효과가 나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보험지주회사 내 비금융자회사의 요구자본 산출은 리스크감독 측면보다는 보유에 따른 별칙의 성격이 강하여 정책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자기자본규제를 통해서 규율할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 차선택으로 보험업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와 관련성이 낮은 자회사를 구분해 주고, 후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 이민환 외(2009. 4), 「복합금융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보험연구원, 조사보고서.
장동식(2009. 3),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보험연구원, 조사보고서.
CEIOPS(2010. 7), 「QIS5 Technical Specifications」, CEIOPS.
EIOPA(2011. 3), 「EIOPA Report on the fifth Quantitative Impact Study (QIS5) for Solvency II」, EIOPA.

Ⅱ. 경제금융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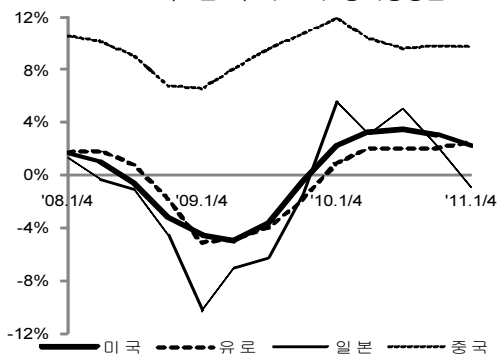
1. 세계경제

2011년 1/4분기 세계경제는 자연재해 충격, 물가상승세 확대, 유럽 재정위기 등 경기하방리스크가 증가하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임.

■ 1/4분기 세계경제는 신흥국 경제의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재정긴축 필요성 증대, 주택경기 침체, 민간부문 채무조정 등으로 경기가 둔화되었음.

- 선진국 경제는 경기하방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됨.
- 반면, 중국 등 신흥국 경제는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세계경제를 견인함.
- 신흥국의 경기선행지수 상승세가 둔화되고 일부 선진국의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하고 있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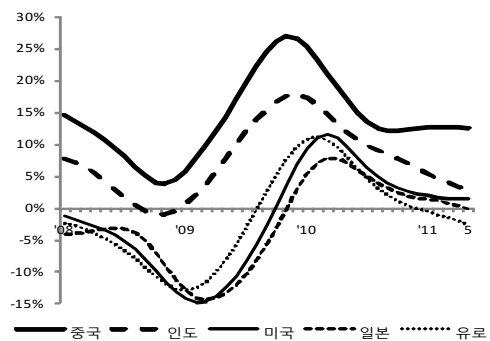
〈그림 1〉 주요국 경제성장률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미국상무성, 유로통계청, 일본내각부, 중국국가통계국.

〈그림 2〉 주요국 경기선행지수 상승률



주: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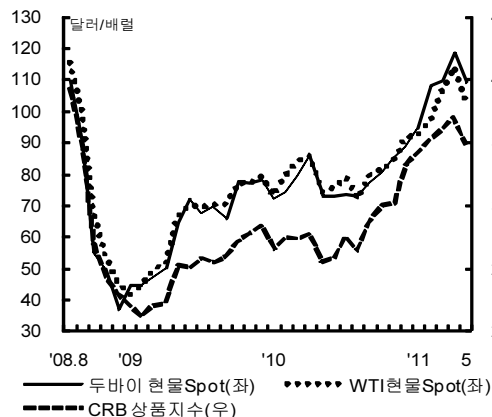
■ 국제유가와 농산물가격 상승으로 주요 신흥국과 일부 선진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빠르게 확대됨.

- WTI 국제유가는 북아프리카의 공급 차질과 수요 증가로 2010년 말 배럴당 91.38달러에서 1/4분기 말 106.72달러까지 상승하였으며, 곡물, 원자재, 원유 등의 가격지수인 CRB지수는 같은 기간 332.8에서 359.4까지 상승함.
- 1/4분기 선진국과 신흥국의 물가상승률¹⁾은 각각 2.3%, 6.3%로 선진국의 물가상승률이 유류 생산시설 존재와 경기둔화에 기인하여 신흥국 보다 낮음.

■ 1/4분기 세계무역액은 신흥국의 내수 호조와 일부 선진국의 무역액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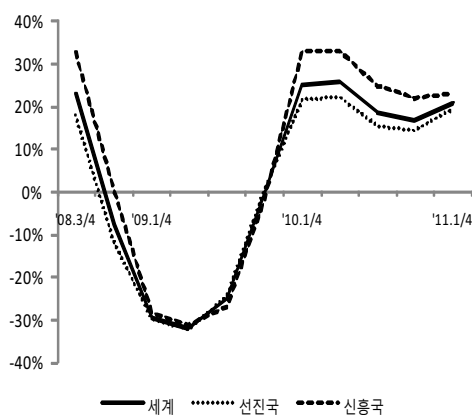
- 1/4분기 세계무역액(수출액 + 수입액) 증가율은 신흥국(23.0%)과 선진국(19.3%)의 무역액이 전분기대비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20.6%를 나타냄.
- 1/4분기 중 신흥국에서는 중국(27.2%→29.6%), 인도(16.4%→26.9%) 등의 무역액이 전분기대비 증가한 반면, 선진국에서는 미국(16.8→18.6%)과 유로지역(6.0%→15.1%)의 무역액 증가세가 일본(20.1%→17.7%)의 증가세 둔화를 상쇄함.

〈그림 3〉 국제유가 · 원자재가격 추이



주: CRB 상품지수 1967=100
 자료: bloomberg

〈그림 4〉 세계 무역액 증가율 추이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IMF.

1) IMF(2011, 6),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가. 미국경제

2011년 1/4분기 미국경제는 유가 급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기상악화로 인한 설비투자 감소, 주택경기 부진 등이 나타나면서 급격한 경제성장 둔화가 나타남.

〈최근 동향 및 전망〉

■ 1/4분기 미국경제는 소비, 투자, 수출 등 경제전반에 걸쳐 부진을 보이면서 전분기대비 0.4% 성장함.

- 민간소비는 유가 급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구재뿐만 아니라 비내구재에 대한 소비도 둔화되면서 전분기대비 2.1% 증가하는데 그침.
- 주택투자지출은 1~2월 폭한의 영향으로 2.4% 감소하였으며, 설비투자지출은 2.1%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됨.
- 수출은 7.9% 증가하여 다소 둔화되었고, 수입은 8.3% 증가함에 따라 순수출은 전분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지출은 연방정부의 국방비 지출 감소폭 확대와 주정부의 건설계획 축소로 5.9% 감소함.

〈표 1〉 미국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분기대비 계절조정 연율, %)

구 분	2010	2009			2010				2011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실질GDP	3.0	-0.7	1.7	3.8	3.9	3.8	2.5	2.3	0.4
민간소비	2.0	-1.9	2.3	0.4	2.7	2.9	2.6	3.6	2.1
설비투자	4.4	-15.8	-3.3	-3.7	6.0	18.6	11.3	8.7	2.1
주택투자	-4.3	-21.3	17.8	-3.8	-15.3	22.8	-27.7	2.5	-2.4
수출	11.3	-0.5	13.9	23.5	7.2	10.0	10.0	7.8	7.9
수입	12.5	-15.0	16.3	17.4	12.5	21.6	12.3	-2.3	8.3
정부지출	0.7	5.9	1.3	-0.9	-1.2	3.7	1.0	-2.8	-5.9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1. 7),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미 연준²⁾은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주택경기 부진, 정부지출 억제 등 경기하방 리스크가 지속됨에 따라 2011년 경제성장률을 지난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함.

○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둔화된 이후, 미 연준은 201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1~3.3%에서 2.7~2.9%로 하향 조정함.

〈표 2〉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10	2009		2010				2011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실업률 ¹²⁾ (%)	9.6	9.7	10.0	9.7	9.6	9.6	9.6	8.9	9.0	9.1
(u-6) ¹¹⁾ (%)	16.8	16.8	17.2	16.7	16.7	16.8	16.9	15.9	15.9	15.8
비농업취업자증감 ¹⁾ (천 명)	1,018	-748	-406	196	543	-137	416	361	661	480
소비자물가 상승률 ²⁾ (%)	1.6	-1.6	1.5	2.4	1.8	1.2	1.3	2.1	3.2	3.6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1.0	1.5	1.7	1.3	0.9	0.9	0.7	1.1	1.3	1.5
생산자물가 상승률 ²⁾ (%)	4.2	-5.4	1.5	4.9	4.4	3.8	3.8	5.0	6.8	7.3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	1.2	2.2	0.9	1.0	1.1	1.5	1.4	1.8	2.1	2.1
소매판매 증가율 ³⁾ (%)	6.8	2.4	1.0	2.1	1.6	0.9	3.2	2.6	0.7	0.3
소비자신뢰지수 ⁷⁾	54.5	51.8	51.0	51.7	58.2	50.9	57.0	66.9	66.0	60.8
주택착공호수 증가율 ⁵⁾ (%)	6.6	10.1	-3.5	8.3	-2.1	-2.9	-7.8	8.1	-4.9	3.7
주택가격지수 ⁶⁾	145.6	143.7	145.2	146.3	147.4	146.1	142.8	141.1	140.9	140.8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⁹⁾ (%)	5.3	-10.6	-5.4	1.6	6.5	6.9	6.2	5.3	4.7	3.4
산업생산가동률 ¹³⁾	74.5	68.9	70.3	72.3	74.0	75.5	76.1	76.7	76.7	76.7
ISM제조업PMI	57.2	51.5	54.6	58.2	57.6	55.2	57.9	61.1	60.4	53.5
출하대비 재고율 ¹⁰⁾ (%)	1.32	1.38	1.34	1.32	1.32	1.33	1.33	1.31	1.32	-
경기선행지수 ⁸⁾	109.8	103.3	105.8	108.4	109.8	109.7	111.3	113.4	113.8	114.7

주: 1) 전분기대비 증감,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감, 2) 1982-84=100,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증가율,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5) 전분기대비 증가율,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6)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 계절조정, 2000. 1=100, 7) 1985=100, 8) 2004=100, 9) 전분기대비 증가율,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10) 제조업부문, 계절조정, 11)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포함, 16세 이상, 계절조정, 12) 16세 이상, 계절조정, 13) 2007=100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2)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2011. 6), Minutes of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고용과 물가〉

■ 실업률은 1/4분기 중 8%대로 하락하여 고용여건이 개선되었으나, 4~5월 들어 다시 9%대 초반으로 상승함.

- 1/4분기 중 실업률은 경제활동참가율이 고정된 상황에서 8.9%로 하락하고, 구직자 포기율과 임시직을 포함하는 포괄적 실업률(U-6)³⁾도 15.9%로 하락하는 등 실업률 지표가 개선됨.
- 한편, 비농업취업자가 1/4분기 동안 전분기대비 36만 명 증가에 그쳐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4~5월에는 증가세가 커짐.
- 미 연준은 기업의 비용절감 노력으로 신규채용이 부진하나 비농업취업자의 꾸준한 증가, 안정적인 실업수당 신청 등을 근거로 고용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봄.
- 미 연준은 2011년 실업률을 종전의 8.8~9.0%에서 8.4~8.7%로 하향조정함.

■ 소비자물가는 양적완화가 유지되는 가운데 에너지 및 곡물 가격의 상승이 일반 소매시장의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상승세가 지속됨.

- 에너지 및 곡물 가격 상승이 소매시장 물가수준에 반영되면서 1/4분기 소비자물가가 전년동기대비 2.1% 상승하였고, 근원소비자물가도 전년동기대비 1.1% 상승함.
- 3월 이후 곡물가격 상승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에너지가격 상승이 여전히 지속됨에 따라 4~5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중반에 달함.

〈내수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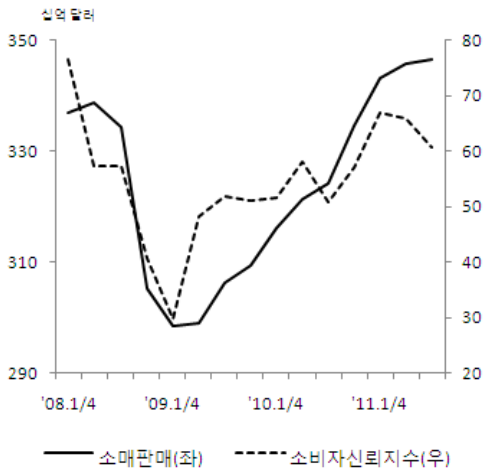
■ 1/4분기 실질소득 감소로 소매판매가 둔화되는 가운데, 주택경기의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내수부문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임.

- 1/4분기 소매판매는 전분기대비 2.6% 증가하였으나 급여소득세 감소효과 소진으로 실질가처분소득이 감소한데다 자동차 관련 판매 감소로 증가세는 둔화됨.

3) 구직포기자·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를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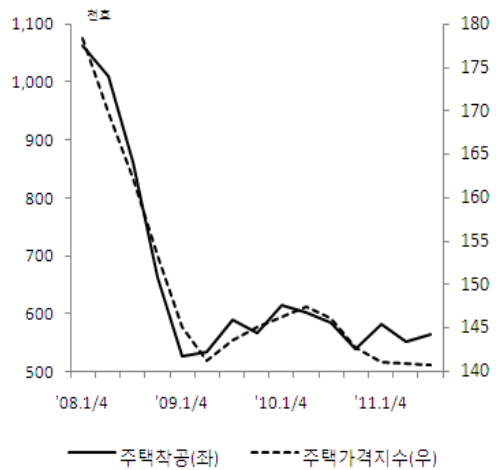
- 반면, 1/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60대 중반을 상회함에 따라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경기와 실물지표의 방향이 상반된 모습을 나타냄.
- 그러나 1/4분기 소매판매 실적부진과 더불어 5월 들어 소비자신뢰지수가 60대 초반으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소비지출 둔화가 예상됨.
- 1/4분기 주택착공은 전분기대비 증가했으나 4월에는 주택경매 증가로 다시 감소하였으며, 주택가격은 주택수요 부족으로 침체가 지속됨.

〈그림 5〉 소매판매와 소비자신뢰지수



주: 소비자신뢰지수는 1985=100
 자료: U.S. Census Bureau, Conference Board.

〈그림 6〉 주택시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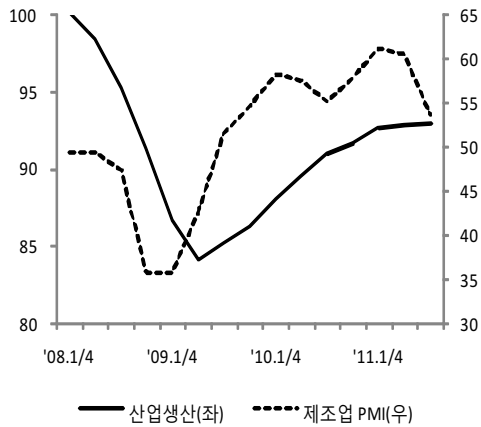
주: 주택가격은 2000.1=100
 자료: U.S. Census Bureau, S&P/Case-Shiller.

〈생산부문〉

- 1/4분기 동안 산업생산은 다소 둔화되었으며, 4~5월에는 이러한 둔화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생산부문의 선행지표가 빠르게 하락함으로써 향후 생산부문의 둔화세가 시사됨.
- 1/4분기 산업생산지수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5.3%을 기록하여 다소 둔화되었으며, 4~5월에는 각각 4.7%, 3.4%로 나타나 둔화세가 심화됨.
- 1/4분기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61.1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에는 급격히 하락함.

- 생산부문 선행지표에 해당하는 제조업 출하대비 재고율이 4~5월에 들어 점차 상승함
으로써 2/4분기 생산 및 경기 둔화를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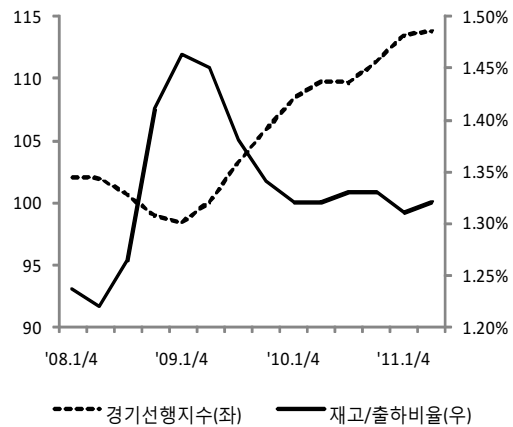
〈그림 7〉 산업생산지수와 제조업 PMI



주: 산업생산지수는 2007=100

자료: U.S. Census Bureau,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그림 8〉 경기선행지수와 출하대비재고율



주: 경기선행지수는 2004=100

자료: Conference Board, U.S. Census Bureau.

나. 유로경제

2011년 1/4분기 유로경제는 독일과 프랑스의 내수 양호, 수출 증가 등 경기회복 요인이 주변부 국가의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둔화 요인을 상쇄하면서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나타냄.

〈최근 동향 및 전망〉

- 1/4분기 유로경제는 견조한 소비지출, 기상여건 정상화로 인한 투자 회복, 순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2.5% 성장하는 등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함.
 - 민간소비지출은 고용여건 개선, 가계대출 증가, 가계 저축률 감소 등으로 전분기 대비 1.1% 증가함.
 - 고정투자는 전분기의 기상악화로 지연되었던 건설투자가 증가하고, 수출관련 산업의 설비투자가 증가하면서 전분기대비 4.2% 증가의 빠른 회복세를 보임.
 - 수출과 수입이 각각 전분기대비 9.7%, 8.7% 증가하여 모두 둔화세를 나타냈으나, 수입의 둔화폭이 수출의 둔화폭보다 커져 순수출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4분기 중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양호한 성장은 주변부 국가의 경기부진을 상쇄하면서 유로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를 견인함.
 - 독일은 소비지출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고정자본투자가 전분기 대비 5.0% 증가하고, 수출도 2.3% 증가하면서 전분기대비 1.5% 성장함.
 - 프랑스는 소비지출이 전분기에 이어 전분기대비 0.4% 증가하고, 고정자본투자과 수출이 각각 1.2%, 1.8% 증가하면서 전분기대비 0.9% 성장함.
- 올해 2월 유로위원회⁴⁾는 재정위기에 따른 긴축정책과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독일 등 주요국의 뚜렷한 경기회복세로 유로경제의 완만한 성장을 전망함.

4)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ic Forecast(2011, 2).

- 1/4분기 유로지역,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경기체감지수(ESI)가 금융위기 이후 최고점에 도달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임.

〈표 3〉 유로지역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분기대비 연율, %)

구 분	2010	2009			2010				2011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EA17 GDP	1.7	-4.9	-4.1	-2.1	0.8	2.0	2.0	1.9	2.5
민간소비	0.8	-1.2	-1.3	-0.5	0.4	0.6	1.0	1.1	1.1
고정자본	-0.8	-11.5	-11.4	-8.7	-4.8	-0.6	0.5	1.3	4.2
정부지출	0.5	2.9	3.0	2.0	1.1	0.3	0.1	0.1	1.1
수출	11.3	-17.0	-13.6	-5.2	7.0	13.2	12.2	11.5	9.7
수입	9.5	-14.7	-12.4	-7.0	3.6	11.5	10.8	10.9	8.7

자료: 유럽중앙은행.

〈표 4〉 유럽 주요국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분기대비 계절조정, %)

구 분	2010	2009			2010				2011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독일 GDP	3.5	0.5	0.8	0.5	0.5	2.1	0.8	0.4	1.5
민간소비	0.5	0.5	-1.1	-0.2	0.1	0.7	0.3	0.6	0.4
고정자본	6.0	-1.0	0.8	0.1	0.4	5.6	1.5	-0.1	5.0
수출	14.7	-1.6	2.8	3.3	4.0	6.8	1.4	1.8	2.3
수입	13.0	-4.7	4.3	-1.5	6.7	7.1	0.8	0.8	1.5
영국 GDP	1.4	-0.8	-0.3	0.5	0.2	1.1	0.7	-0.5	0.5
민간소비	0.8	-0.7	0.0	0.9	-0.1	0.5	0.0	-0.3	-0.6
고정자본	3.0	-4.4	0.0	-1.5	3.9	0.1	3.6	-1.8	-2.0
수출	5.3	-7.1	0.9	3.7	-1.0	3.0	1.6	1.7	2.4
수입	8.5	-7.2	1.1	4.1	1.9	2.1	1.9	3.2	-2.4
프랑스 GDP	1.4	0.1	0.2	0.6	0.2	0.5	0.4	0.3	0.9
민간소비	1.3	0.2	0.2	0.8	0.1	0.1	0.5	0.4	0.4
고정자본	-1.4	-1.9	-1.3	-0.5	-1.2	1.0	0.9	0.5	1.2
수출	9.4	-0.6	1.2	0.7	4.7	3.1	2.0	0.7	1.8
수입	8.3	-2.7	-0.3	3.5	1.8	3.4	4.3	-0.4	3.0

자료: 독일통계청, 영국통계청, 프랑스통계청.

〈표 5〉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10	2009		2010				2011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EA17										
ESI ¹⁾	100.9	84.1	91.9	96.6	99.2	102.3	105.7	107.4	106.1	105.5
실업률 ²⁾ (%)	10.1	9.8	10.0	10.1	10.2	10.1	10.1	9.9	9.9	-
소비자물가 상승률 ³⁾ (%)	1.6	-0.4	0.4	1.1	1.6	1.7	2.0	2.5	2.8	2.7
소매판매 증가율 ⁴⁾ (%)	0.6	-0.6	0.3	0.7	-0.2	0.4	-0.3	-0.2	0.0	-0.4
소비자신뢰지수 ⁵⁾	-14.0	-21.3	-17.0	-16.8	-16.7	-12.1	-10.4	-10.6	-10.7	-10.7
산업생산 증가율 ⁶⁾ (%)	7.1	2.3	1.3	2.3	2.6	1.6	1.8	1.0	0.2	0.1
제조업기대지수 ⁵⁾	11.5	-9.3	1.3	7.5	10.2	11.3	16.8	19.0	17.7	15.4
독일										
ESI ¹⁾	107.2	84.1	94.0	97.8	105.5	110.7	115.2	116.1	115.5	115.1
실업률 ²⁾ (%)	6.9	7.9	7.7	7.5	7.2	7.0	6.7	6.3	6.1	6.0
소비자물가 상승률 ³⁾ (%)	1.2	-0.4	0.3	0.8	1.0	1.2	1.6	2.2	2.7	2.4
소매판매 증가율 ⁴⁾ (%)	0.1	-1.2	0.6	-0.2	0.6	0.8	-0.9	0.6	-0.6	-1.5
소비자신뢰지수 ⁵⁾	-3.2	-22.7	-17.0	-16.1	-8.4	2.6	9.1	8.7	8.4	8.5
산업생산 증가율 ⁶⁾ (%)	11.1	4.3	1.3	2.3	5.0	2.0	2.7	1.7	0.7	0.6
제조업기대지수 ⁵⁾	17.9	-11.7	2.0	12.0	17.3	18.5	23.5	24.0	22.4	19.4
프랑스										
ESI ¹⁾	100.7	86.3	95.3	99.7	99.8	101.7	105.7	109.3	108.8	107.2
실업률 ²⁾ (%)	7.8	9.6	10.0	9.9	9.8	9.8	9.7	9.7	9.6	9.5
소비자물가 상승률 ³⁾ (%)	3.3	-0.5	0.4	1.5	1.8	1.8	1.9	2.0	2.2	2.2
소매판매 증가율 ⁴⁾ (%)	4.1	-0.1	0.7	1.6	0.6	2.4	-0.4	1.4	0.2	-0.3
소비자신뢰지수 ⁵⁾	-18.7	-28.0	-19.0	-17.2	-21.0	-19.3	-17.2	-19.1	-19.3	-18.3
산업생산 증가율 ⁶⁾ (%)	4.9	2.7	0.5	2.7	0.8	0.0	0.7	2.2	-0.3	0.2
제조업기대지수 ⁵⁾	5.4	-11.3	3.0	1.4	1.4	5.5	13.4	20.6	19.1	16.8
영국										
ESI ¹⁾	101.4	85.2	91.7	99.1	101.2	101.5	100.7	101.8	99.5	102.1
실업률 ²⁾ (%)	9.8	7.8	7.7	7.9	7.8	7.7	7.8	7.7	-	-
소비자물가 상승률 ³⁾ (%)	1.7	1.5	2.1	3.3	3.4	3.1	3.4	4.1	4.5	4.5
소매판매 증가율 ⁴⁾ (%)	0.6	1.7	0.5	-2.1	1.2	1.1	-0.2	-0.1	0.2	0.0
소비자신뢰지수 ⁵⁾	-11.6	-14.0	-8.7	-4.1	-8.9	-15.7	-17.5	-22.4	-23.6	20.4
산업생산 증가율 ⁶⁾ (%)	2.4	-0.9	0.3	1.6	1.2	0.2	0.7	0.1	-0.9	-0.3
제조업기대지수 ⁵⁾	19.4	-14.3	3.3	8.3	16.2	11.4	19.4	23.6	24.8	23.0

주: 1)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체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40%)+서비스업(30%)+소비자신뢰(20%)+건설업(5%)+소매거래(5%), 2) 계절조정, 3) 전년동기대비, 4)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증가율, 5) 향후 3개월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6) 2005=100 건설업 제외, 영국은 2003=100 건설업 포함. 전분기 대비 증가율.

자료: European Commission, Key euro area indicators(2011. 6); European Commission, eurostat.

〈고용과 물가〉

■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1/4분기에 9%대로 하락하고, 고용도 전분기대비 소폭 개선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여건이 개선되는 모습이나 국가간 격차는 더욱 벌어짐.

- 1/4분기 유로지역의 평균 실업률은 9.9%로 전분기대비 0.2%p 하락하였고, 취업자 수는 전분기대비 7만 7천 명이 증가함.
- 그러나 지역적으로는 독일(6.3%), 영국(7.7%), 덴마크(7.6%), 네덜란드(4.2%), 핀란드(8.0%) 등 서부 유럽국가의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하락한 반면, 주변부 국가의 실업률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1/4분기 중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상승하였고, 근원소비자물가도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가 커짐.

- 1/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2.5% 상승하여 전분기보다 0.5%p 높아졌고, 근원소비자물가도 1.3% 상승하였는데, 동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2%p 높은 수준임.
- 인플레이션은 유로지역 전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EU⁵⁾는 201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를 기록한 후, 2012년에 1.75%로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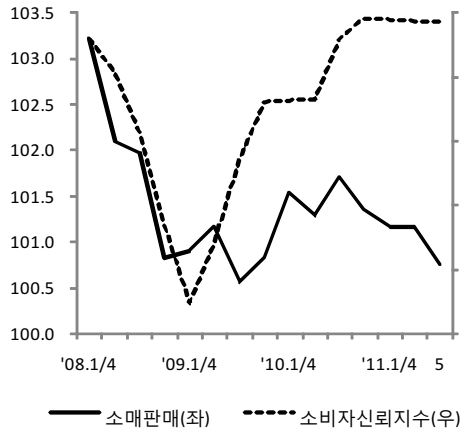
〈내수부문〉

■ 1/4분기 중 유로지역의 소매판매는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소매판매 개선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였으며, 소비자신뢰지수도 하락함.

- 1/4분기 중 유로지역의 소매판매는 전분기대비 0.2% 감소하였지만,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소매판매가 각각 0.6%, 1.4% 증가하는 등 지역간 격차가 뚜렷해짐.
- 그러나 소비자신뢰지수는 1/4분기 중 유로지역 전체에서 하락하고 있어 소비자채감 경기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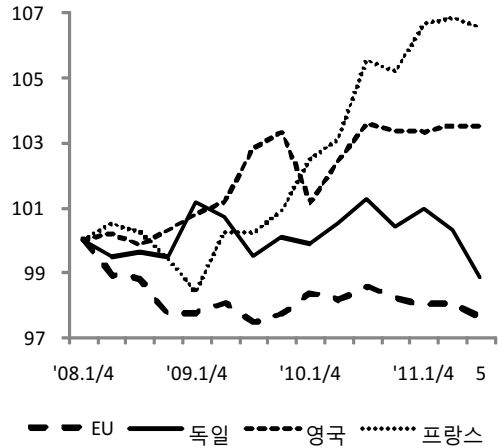
5) EU(2011. 5), Economic Forecast.

〈그림 9〉 유로지역 소매판매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



주: 소매판매지수는 2005=100, 소비자신뢰지수 장기평균 = -12.0
 자료: eurostat(2011, 7).

〈그림 10〉 주요국 소매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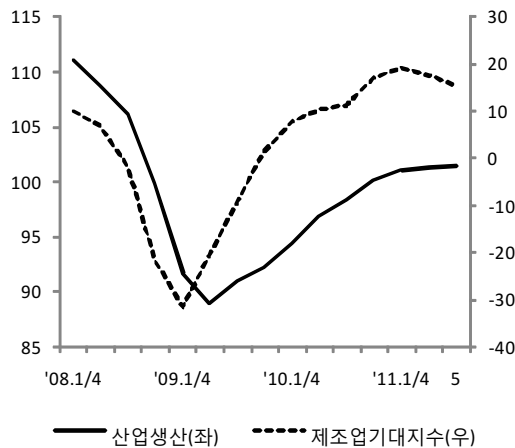


주: 각국의 소매판매지수(2005=100)를 2008년 1/4분기=100으로 환산함.
 자료: eurostat(2011, 7).

〈생산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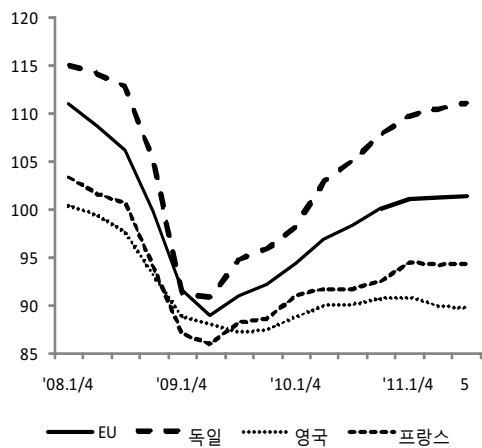
■ 1/4분기 산업생산지수는 둔화되는 모습이며, 생산부문의 경기체감지수도 1/4분기를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어 향후 생산부문의 둔화가 예상됨.

〈그림 11〉 유로지역의 산업생산과 제조업기대지수



주: 산업생산은 2005=100, 제조업기대지수 장기평균=6.4
 자료: eurostat(2011, 8).

〈그림 12〉 주요국 산업생산 추이



주: 2005=100 건설업 제외, 영국은 2003=100 건설업 포함.
 자료: eurostat(2011, 8).

- 유로지역의 1/4분기 산업생산은 자본재·에너지 관련 부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분기대비 1.0% 증가에 그쳐 둔화세를 시현함.
 - 이와 같은 산업생산 둔화는 동기간 중 독일 및 영국에서도 나타남.
- 유로지역 및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제조업기대지수는 1/4분기 이후 4~5월 동안 둔화세를 보임.

다. 일본경제

2010년 4/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일본경제의 경우 2011년 1/4분기 지진과 방사능 유출 여파로 생산부문이 크게 충격을 받으면서 경기침체가 심화됨.

〈최근 동향 및 전망〉

■ 1/4분기 일본의 실질 GDP는 동북부 지진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수입 증가로 순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분기대비 3.5% 감소함.

- 민간소비지출이 생산 차질에 따라 내구재와 비내구재 부문 모두에서 감소함과 동시에 서비스 부문에서도 감소함에 따라 전분기대비 2.2% 감소함.
- 설비투자는 전분기대비 4.9% 감소하였고, 주택투자는 전분기대비 2.8% 증가함.
- 수출이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전분기대비 2.8% 증가하였으나, 수입도 8.0% 증가함에 따라 순수출은 전분기대비 감소함.
- 정부지출이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전분기대비 3.8% 증가한 가운데, 공공투자의 감소 폭도 축소됨.

〈표 6〉 일본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분기대비 연율, %)

구 분	2010	2009			2010				2011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실질 GDP	4.0	8.7	-2.0	6.3	9.4	0.0	3.6	-2.9	-3.5
민간소비	1.8	5.0	0.2	2.9	3.9	-0.6	3.3	-4.0	-2.2
설비투자	2.1	-19.1	-9.0	4.9	6.6	10.7	4.2	0.1	-4.9
주택투자	-6.3	-30.6	-27.6	-14.3	5.8	-2.2	7.9	13.3	2.8
정부지출	2.2	4.1	4.6	3.8	-1.8	4.8	1.3	1.5	3.8
공공투자	-3.4	55.4	-6.2	7.8	-2.6	-16.8	-9.6	-21.9	-5.4
수출	23.9	45.4	40.6	27.4	29.5	22.4	6.6	-3.3	2.8
수입	9.8	-19.5	24.6	4.0	12.1	17.5	12.2	-1.2	8.0

자료: 일본 내각부.

■ 2011년 6월 IMF⁶⁾는 일본경제가 지진의 여파로 단기적으로 위축되었으나, 하반기부터는 빠른 복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함.

○ IMF는 지진으로 인한 경제충격을 감안하여 일본의 2011년 실질 GDP전망을 종전의 2.8%에서 -0.7%로 하향조정함.

〈표 7〉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10	2009		2010				2011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실업률(%)	5.0	5.4	5.0	5.1	5.3	5.1	4.8	4.7	4.9	4.6
비농업취업자 증감 ²⁾ (만 명)	8	-31	-7	-24	30	6	-4	-17	2	8
소비자물가 상승률 ¹⁾ (%)	-0.7	-2.2	-2.0	-1.2	-0.9	-0.8	0.1	0.0	0.1	0.2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	-1.2	-0.9	-1.1	-1.1	-1.6	-1.5	-0.8	-0.6	-0.5	-0.2
소매판매 증가율 ¹⁾ (%)	2.5	-1.8	-0.8	4.5	3.7	3.2	-0.4	-3.6	-4.6	-4.9
소비자신뢰지수 ³⁾	41.4	39.4	39.6	41.0	42.1	41.8	41.0	40.5	37.6	35.3
주택착공호수 ⁴⁾ (만 호)	81.9	71.6	78.9	81.6	77.6	81.5	84.3	84.2	82.6	80.7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 ⁸⁾ (%)	7.7	-29.1	-13.5	1.1	8.4	15.5	6.4	8.7	6.5	6.3
광공업생산 증가율 ⁵⁾ (%)	16.6	-20.5	-5.1	27.6	20.5	13.3	6.8	-2.5	-7.5	-10.7
- 가동률지수 증가율 ⁶⁾ (%)	20.3	-23.3	-6.1	36.8	25.1	14.8	8.0	-3.8	-11.0	-15.6
- 재고율지수 증가율 ⁷⁾ (%)	-17.6	15.8	-7.0	-29.0	-21.9	-12.6	-3.3	0.6	5.7	8.6

주: 1) 전년동기대비, 2) 전분기대비 증감,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3) 기준치=50, 4) 연간 환산치, 5) 계절조정, 2005=100,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6) 2005=100, 계절조정,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7) 계절조정, 8) 변동성이 큰 선박·전력 제외, 전년동기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국토교통성.

〈고용과 물가〉

■ 실업률이 1/4분기 하락 후 4~5월 동안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취업자 수도 1/4분기 감소 후 4~5월 들어 소폭 증가함.

○ 실업률은 1/4분기에 4.7%로 하락한 후, 4월에 반등하고, 5월에 다시 하락함.

○ 비농업취업자 수는 1/4분기에 전분기대비 17만 명이 감소한 후, 4~5월에는 소폭 증가함.

6) IMF(2011, 6),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 소비자물가는 지진과 경기침체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그 상승세가 미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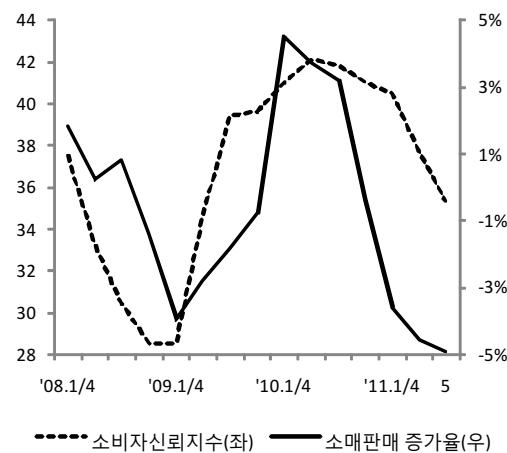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는 1/4분기 중 에너지가격 및 식료품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요부족으로 전분기대비 0.0% 상승에 머물렀고, 근원소비자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함.
- 4~5월에는 에너지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반영되어 미미한 상승률을 기록함.

〈내수부문〉

■ 소매판매 역시 지진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전분기대비 감소하고, 소비자체감지수도 전분기대비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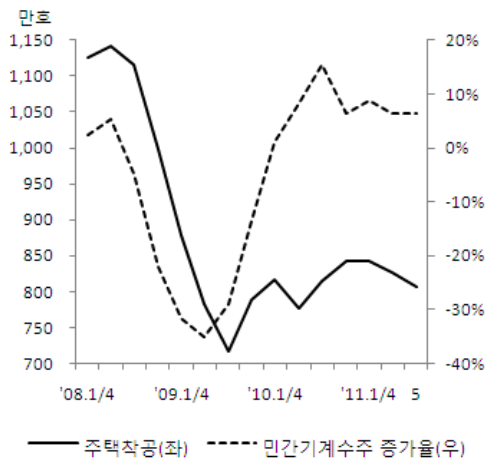
- 1/4분기 중 소매판매는 2010년 4/4분기 에코카 보조금 종료로 자동차 판매가 어려워진데다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그 감소폭이 확대됨.
- 1/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40.5로 2010년 4/4분기보다 0.5p 하락하였고, 4~5월 들어서도 하락세를 이어감.

〈그림 13〉 소비자신뢰지수 및 소매판매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내각부.

〈그림 14〉 주택착공 및 민간기계수주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 민간기계수주액이 1/4분기 이후 점차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주택착공 증가율도 둔화되는 등 투자부문이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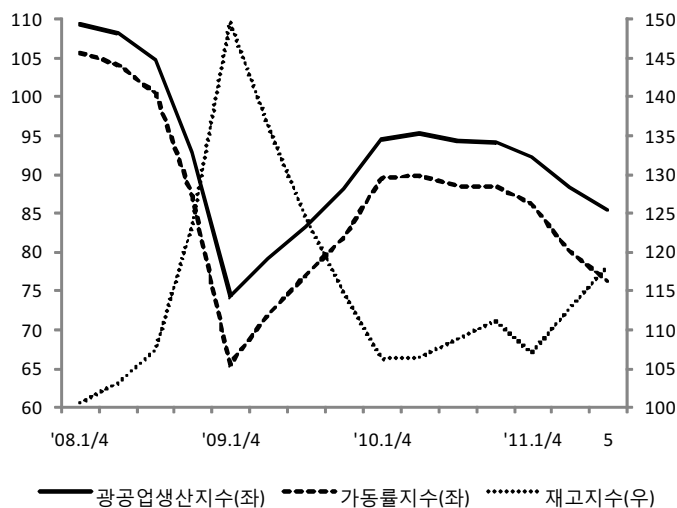
- 선박·전력을 제외한 1/4분기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8.7% 증가로 2010년 4/4분기보다는 다소 높아졌으나, 4~5월 들어 둔화폭이 커짐.
- 연간 주택착공호수는 1/4분기 중 84만 2,000호로 전분기대비 1,000호가 감소하였고, 4~5월에는 이러한 감소세가 확대됨.

〈생산부문〉

■ 1/4분기 광공업생산 및 가동률 지수는 자동차·화학 부문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감소하고 재고는 4~5월에 들어 증가세가 커지면서 생산부문의 침체 가능성이 높아짐.

- 1/4분기 광공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하고 광공업 가동률 역시 3.8% 감소함.
- 1/4분기 출하대비 재고는 106.9를 기록하여 전분기대비 다소 하락했으나 4~5월에는 118.0까지 상승함으로써 생산부문 위축 가능성이 높아짐.

〈그림 15〉 광공업생산, 가동률 및 재고 지수



주: 2005=100

자료: 일본 내각부.

라. 중국경제

2011년 1/4분기 중국경제는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통화긴축에도 불구하고 내수 위주의 성장 모멘텀이 유지되면서 2010년 4/4분기와 비슷한 9%대 후반의 고성장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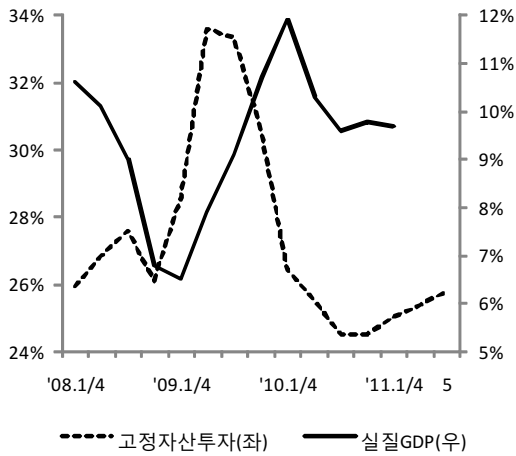
〈최근 동향 및 전망〉

- 중국의 1/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견조한 내수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9.7% 성장함.
 - 소비지출은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긴축에도 불구하고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여 1/4분기 실질 GDP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함.⁷⁾
 - 투자는 2010년 평균보다 실질 GDP 성장 기여도(4.3%)가 낮아졌으나, 꾸준한 증가세로 내수 위주의 경제성장에 일조함.
 -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5.0%로 호조세를 유지함.
 - 반면, 순수출은 전분기대비 가공무역 수출 둔화와 최종재 수입 증가로 크게 감소하면서 실질 GDP 기여도도 감소함.
 - 지역별로는 1/4분기 중 전체 대외무역에서 유럽(15.5%), 미국(12.2%)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반면, 아세안 5개국(9.9%) 지역 비중이 증가하여 일본(10.1%)의 비중에 근접함.
- 올해 4월 World Bank⁸⁾는 물가상승과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고용 및 소득수준 개선이 내수 확대에 이어지면서 9%대의 고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World Bank는 중국경제가 2011년 9.3%의 고성장을 하였고, 이 중에서 내수부문 성장기여도가 9.0%p, 순수출 기여도가 0.3%p일 것으로 전망함.

7) 소비지출의 1/4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5.9%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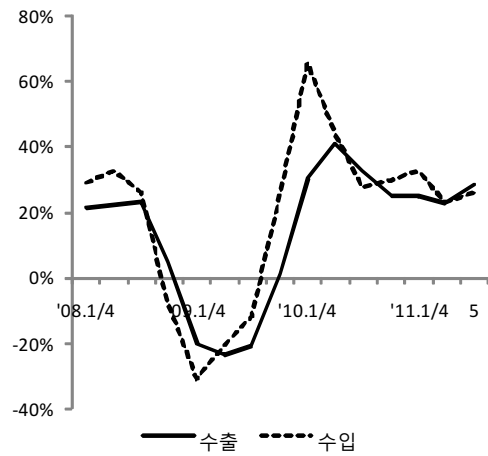
8) World Bank(2011. 4), China Quarterly Update.

〈그림 16〉 실질 GDP와 고정자산투자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그림 17〉 수출 및 수입 증가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표 8〉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10	2009		2010				2011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실질 GDP(%) ²⁾	10.3	9.1	10.7	11.9	10.3	9.6	9.8	9.7	-	-
고정자산투자 ¹⁾ (%)	24.5	33.3	30.5	26.4	25.5	24.5	24.5	25.0	25.4	25.8
수출 증가율(%)	32.3	-20.5	0.9	30.3	41.0	32.5	25.2	25.3	22.7	28.4
수입 증가율(%)	14.6	-11.8	25.4	65.4	44.0	27.3	29.5	32.6	22.9	25.8
소비자물가 상승률(%)	3.3	-1.3	0.7	2.2	2.9	3.5	4.7	5.1	5.2	5.4
생산자물가 상승률(%)	5.5	-7.7	-2.1	5.2	6.8	4.5	5.7	7.0	7.1	7.0
소매판매 증가율(%)	18.4	15.4	16.5	18.4	18.5	18.4	18.8	16.3	15.4	17.1
소비자신뢰지수	105.5	102.8	103.9	105.6	107.7	106.4	102.4	102.4	104.6	106.7
산업생산 증가율(%)	14.5	12.3	17.9	19.8	16.0	13.5	13.3	14.4	14.4	13.8
구매자관리지수 ³⁾	53.8	53.9	55.7	54.3	53.9	52.2	54.6	52.8	52.9	52.0

주: 1) 전년동기 누계 대비, 도시지역 기준, 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 기준=50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물가〉

■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식료품 가격과 주거비의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5.1%를 기록하여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귀함.

○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주거비(6.5%)가 전분기대비 0.9%p, 식료품가격(11.0%) 이 0.5%p 상승으로 전분기대비 0.4%p 상승한 5.1%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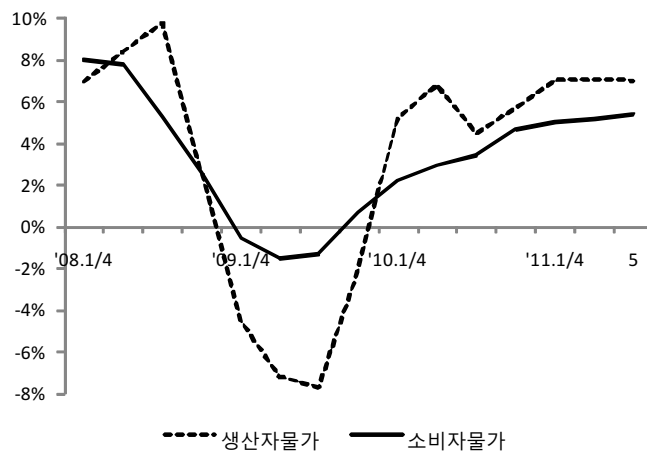
- 주거비는 2011년 1월부터 적용되는 소비자물가 바스켓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⁹⁾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짐.

- 식료품 가격은 3월 동안 전년동월대비 11.7% 상승한 반면, 비식료품 가격은 2.7% 상승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 확대 추세는 풍부한 유동성, 수입물가 상승, 불확실한 기상 여건, 노동비용 상승, 핫머니 유입 지속으로 2/4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노동비용 상승, 위안화 강세와 해외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인한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010년 4/4분기 5.7%에서 2011년 1/4분기 7.0%로 확대됨.

〈그림 18〉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상승률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9) 주거비의 소비자물가 바스켓 비중은 2011년 1월에 4.22%p 증가한 반면, 식료품의 비중은 2.21%p 감소함.

〈내수부문〉

■ 1/4분기 소매판매는 통화긴축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에 비해 증가세 둔화가 나타났으나, 소득수준의 개선에 힘입어 1/4분기 말부터 높은 증가세로 회귀함.

○ 1/4분기 소매판매는 통화긴축정책¹⁰⁾, 일부 종목 소비진작 정책효과 소진 등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6.4% 증가로 나타남.

- 자동차 및 전자제품 소비촉진정책 종료로 이들의 소매판매 증가율은 빠르게 둔화됨.

○ 그러나 동 소매판매는 소득수준 개선¹¹⁾에 힘입어 3월부터 판매전반에 걸쳐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5월에는 전년동월대비 17.1%까지 증가함.

○ 소비자신뢰지수는 1/4분기 동안 전년동기대비 3.1% 하락하여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나타냄.

■ 1/4분기 주택착공은 전년동기에 비해 증가했으나, 부동산 과열 억제정책¹²⁾에 힘입어 4~5월 들어 둔화되었으며, 주요 대도시 주택가격 상승률은 1/4분기부터 둔화되기 시작함.

○ 1/4분기 주택착공은 전년동기대비 33.7% 증가한 가운데 동 증가율이 2010년 평균(20.8%)을 상회하였으나, 4~5월에는 28%대로 둔화됨.

○ 1/4분기 베이징(6.2%), 상하이(1.8%), 선전(3.1%) 등 주요 대도시 전년동기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은 2010년 평균(베이징 18.0%, 상하이 7.6%, 선전 9.1%)보다 둔화됨.

- 다만, 우루무치(9.7%), 창사(9.0%) 등 중소도시는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를 지속함.¹³⁾

○ 주택경기 둔화는 정부의 통화긴축정책과 부동산 과열 억제정책에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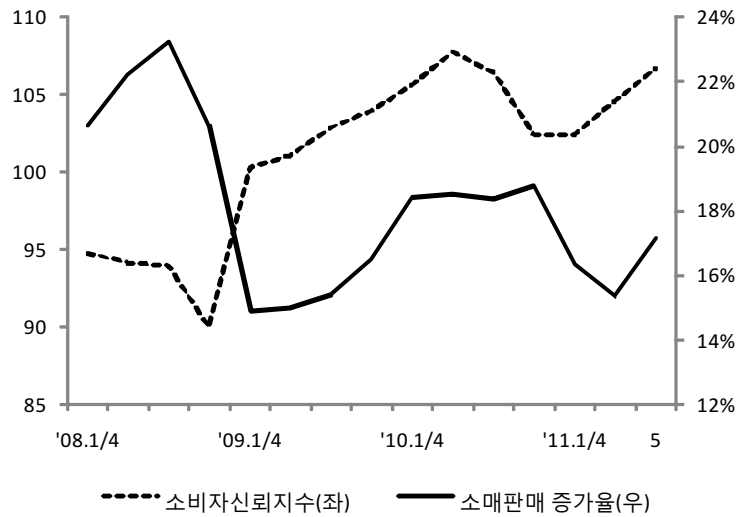
10) 중국인민은행은 2010년 10월, 12월, 2011년 2월, 4월, 7월에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각각 0.25%p 상향조정함에 따라 2011년 7월 현재 대출금리가 6.56%, 예금금리가 3.50%에 달함.

11) 도시소득 증가율은 1/4분기에 2010년 평균(11.3%)을 상회하는 12.3%를 기록하였고, 비도시 소득증가율은 1/4분기에 20.6%로 나타나 2010년 평균(13.1%)을 크게 상회함.

12) 2011년부터 상하이와 충칭은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하였고, 베이징과 광저우는 주택 매입자격을 제한하는 등 부동산대책을 강화함.

13) 지방정부들이 건설경기 둔화와 세수감소를 우려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음.

〈그림 19〉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신뢰지수



주: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생산부문〉

■ 1/4분기 산업생산은 인프라 건설투자와 꾸준한 소비 증가에 힘입어 호조세를 보였으나, 5월 들어 증가세가 다시 둔화됨.

○ 1/4분기 산업생산은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건설과 중앙정부의 소비진작 정책으로 전년동기대비 14.4% 증가함에 따라 동 증가율은 전분기(13.3%) 수준을 상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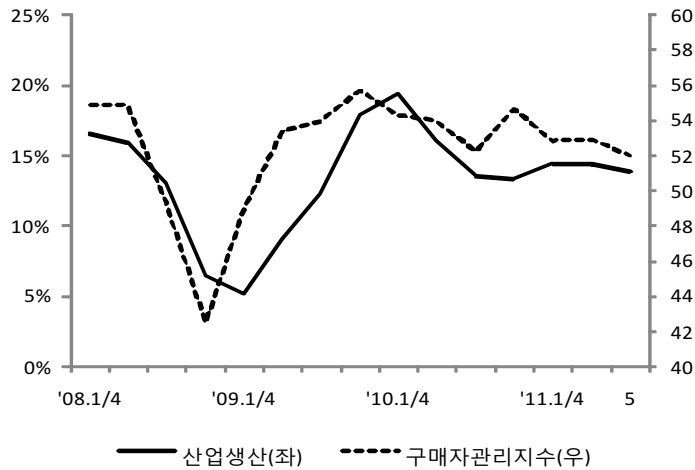
○ 그러나 5월에는 일본지진으로 인한 부품수입 차질과 저장, 광둥, 충칭 지역의 전력 단전으로 산업생산 증가율이 13%대로 다시 둔화됨.

■ 1/4분기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¹⁴⁾가 전분기에 비해 하락하면서 2/4분기 생산부문 둔화가 우려됨.

14)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는 생산(25%), 신규주문(30%), 취업(20%), 납품업체 배송(15%), 재고(10%) 등으로 구성되어 작성됨.

- PMI는 1/4분기 중 춘절과 일본 지진 등의 영향으로 52.8을 기록하여 전분기보다 1.8p 하락하였으며, 4~5월에는 주요부품 수입과 수주잔고 등이 위축되면서 PMI의 낮은 수준이 지속됨.
- 생산, 수출주문, 신규주문, 부품구매, 납품업체 배송 부문은 양호한 추세이나, 수주잔고, 최종재 재고, 주요 부품재고 등은 일본지진과 일부 지방 전력부족으로 위축되고 있음.

〈그림 20〉 산업생산 증가율과 구매자관리지수



주: 구매자관리지수 기준=50,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2. 국내경제

〈성장 및 내수〉

2011년 1/4분기 내수성장 둔화에도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실질 GDP가 4.2% 성장하였으나, 경기선행지수 상승이 주춤하고 있어 향후 경기회복 속도는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 2011년 1/4분기 실질 GDP는 건설투자 대폭 감소,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증가 둔화에도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전년동기대비 4.2% 성장함.

- 민간소비는 고용시장이 꾸준히 개선되었지만, 물가상승에 따른 가계의 실질구매력 하락 등으로 2.8% 증가에 그침.
- 설비투자는 기저효과로 인한 증가율 둔화로 11.7% 증가에 머물렀으며, 건설투자는 공공부문 역할 축소와 건축 및 토목건설의 부진으로 11.9% 감소함.

〈표 9〉 실질 GDP와 지출 항목별 성장률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9		2010					2011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실질 GDP	6.3 (0.2)	0.2	8.5 (2.1)	7.5 (1.4)	4.4 (0.6)	4.7 (0.5)	6.2	4.2 (1.3)
- 민간소비	5.6	0.2	6.6	3.5	3.6	2.9	4.1	2.8
- 설비투자	12.2	-9.1	29.1	30.5	26.6	15.9	25.0	11.7
- 건설투자	4.0	4.4	4.3	-2.3	-3.1	-2.9	-1.4	-11.9
- 재화수출 ³⁾	14.6	0.0	20.8	14.7	11.6	16.9	15.8	18.7
- 재화수입 ³⁾	8.7	-7.9	21.6	20.4	16.0	15.5	18.2	13.7

주: 1) 2000년 가격기준에서 2005년 연쇄가격 기준으로 전환됨.

2) ()는 계절조정이 반영된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3) F.O.B(본선인도가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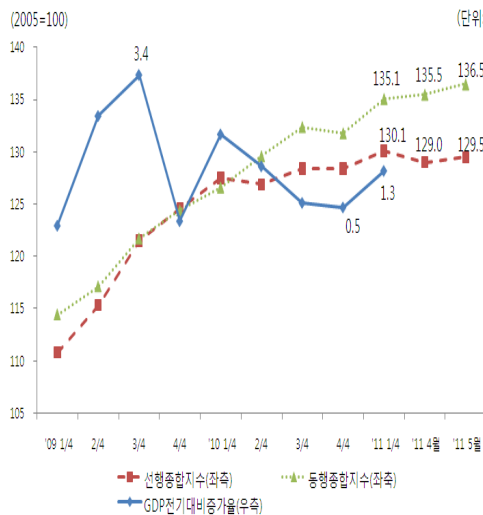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 1/4분기 재화수출은 철강, 중화학, 일반기계, 무선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18.7%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소비재를 중심으로 13.7%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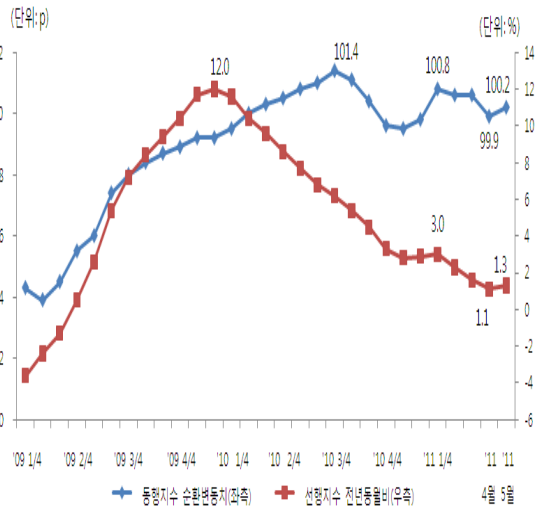
■ 5월 경기동행지수는 2011년 1/4분기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경기선행지수는 하락함.

- 경기동행지수는 5월 말 136.5를 기록하면서 1/4분기 135.1에 비해 1.4p 상승하였으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4월 말 대비 0.3p 상승한 100.2를 나타냄.
- 5월 말 경기선행지수는 1/4분기에 비해 0.6p 하락한 129.5로 나타났으며,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4월 말 대비 0.2%p 상승한 1.3%를 기록함.

〈그림 21〉 GDP와 경기지수 추이



〈그림 22〉 경기종합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1년 1/4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내구재와 준내구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5.1% 상승함.

- 컴퓨터·통신기기, 가전제품 등 내구재 판매는 1/4분기 동안 전년동기대비 12.9% 늘어났으며, 4~5월 들어서도 각각 15.8%, 19.9% 증가하면서 증가세가 더욱 확대됨.
- 의복 및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판매는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했으며, 4~5월에도 각각 7.4%, 5.4% 증가함.
- 음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1/4분기 들어 전년동기대비 0.8% 증가함.

〈표 10〉 소비 관련 지표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 분	2009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소매판매	2.7	9.7	4.9	7.5	5.1	6.6	5.1	5.1	6.2
- 내구재	8.2	29.6	5.6	17.0	10.6	14.9	12.9	15.8	19.9
* 승용차	21.8	48.9	-2.1	12.0	0.1	11.1	10.2	13.9	13.3
- 준내구재	1.3	2.5	6.2	6.6	11.1	6.8	6.1	7.4	5.4
- 비내구재	1.2	3.2	3.3	3.0	-0.7	2.2	0.8	-1.5	0.2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1년 1/4분기 설비투자는 기계류, 운송장비 등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6.6% 증가하였으며, 기계수주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발주증가로 인하여 20.9% 증가함.

〈표 11〉 투자 관련 지표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 분	2009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설비투자지수	-9.4	30.0	29.5	29.3	13.6	25.1	6.6	-0.3	10.5
- 기계류	-12.6	32.5	37.1	37.4	17.1	30.5	6.8	5.4	11.4
- 운송장비	4.6	19.3	2.8	-0.1	-1.2	4.3	5.6	-26.5	6.5
- 기계수주	-13.7	6.5	19.5	-4.6	16.3	8.9	20.9	-10.5	-1.3
건설투자	4.4	4.3	-2.3	-3.1	-2.9	-1.4	-11.9	-	-
- 건설기성	3.2	6.3	2.0	-0.4	3.3	2.7	-6.2	-4.1	-6.3
건축	-4.9	4.4	-1.9	-6.4	-1.4	-1.6	-9.3	-4.3	-8.5
토목	17.5	9.0	7.5	9.2	9.4	8.8	-2.0	-3.8	-3.3
- 국내건설수주	5.0	-1.6	-6.7	-3.6	-40.2	-18.7	-12.8	-2.7	-22.5
건축	-14.2	8.3	55.3	-1.3	-46.4	-9.9	-9.7	2.4	-20.5
토목	44.3	-12.4	-49.7	-7.0	-29.9	-29.5	-17.0	-12.8	-28.4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기계류에 대한 투자는 일반기계류, 정밀기기 등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1/4분기 동안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하였고, 4월에 이어서 5월에도 증가세를 유지하였음.
- 운송장비의 경우 4월에 26.9% 감소하였으나 기타운송장비투자의 큰 증가로 인하여 5월에 6.5% 증가로 반전됨.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1/4분기에 증가한 것과 달리 4월에 10.5% 감소하였고, 5월에는 공공부문에서 공공운수업, 전기업과 민간부문에서 펄프종이제품, 전기장비 등에서 발주가 증가하면서 감소세(-1.3%)가 완화되었음.

■ 2011년 1/4분기의 건설기성은 공공, 민간부분의 실적이 감소하면서 6.2% 감소하였으며, 국내건설수주는 민간부분의 주택건설수주가 대폭 줄어들면서 12.8% 감소함.

- 5월 건설기성은 1/4분기에 이어서 공공 및 민간부분의 건축과 토목공사 실적이 감소하면서 6.3%의 감소율을 나타냄.
- 건설기성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 보다는 민간부분의 감소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5월 공공부문은 3.5% 감소한 반면 민간부문은 9.4% 감소함.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는 5월에 민간부분의 건축과 토목공사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1/4분기 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22.5% 증가율을 기록함.
- 공종별로는 건축과 토목이 모두 감소하였으며,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이 중앙정부의 건축 수주가 크게 늘어나면서 11.3% 증가하였으나 민간부문은 33.4%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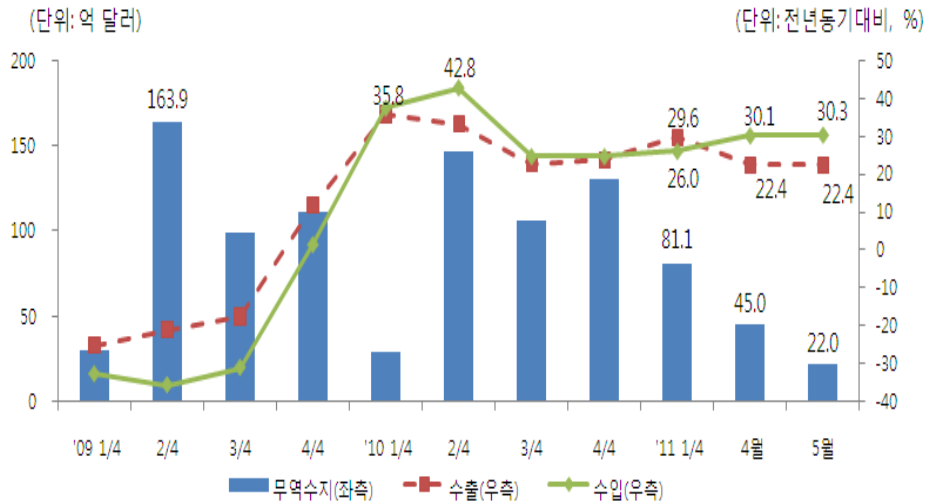
〈대외거래〉

■ 2011년 5월에 수출(확정치)은 22.4%, 수입은 30.3% 증가로 수입 증가가 수출 증가를 상회한 가운데, 무역수지는 22.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수출은 1/4분기와 마찬가지로 승용차(25.9%), 선박(23.5%), 석유제품(82.1%), 무선통신기기(47.6%) 등에서 호조를 보임.
- 수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원유(51.0%), 철광석(110.7%) 등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무선통신기기(68.6%), 소고기(43.4%), 돼지고기(141.8%)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함.

- 2011년 5월에 지역별 수출입은 미국, 일본 등 대선진국 수출 뿐 아니라 중국 등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원유 등을 중심으로 한 대중남미 수입이 크게 증가함.
- 지역별 수출은 미국(24.7%), 일본(36.4%) 등 대선진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중국(19.8%)에 대한 수출도 증가함.
- 지역별 수입은 원자재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중남미(82.6%), 중동(40.5%), 캐나다(81.6%) 등 주요 자원보유 국가로부터 수입이 증가함.

〈그림 23〉 대외거래 지표 추이



자료: 관세청(통관기준).

〈산업생산〉

- 2011년 1/4분기 광공업 생산지수는 반도체 및 부품, 기계장비, 자동차 등의 성장에 힘입어 증가세를 시현하였고, 서비스업 생산지수도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2011년 1/4분기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33.8%)의 큰 증가, 기계장비(13.3%), 자동차(10.6%) 등의 호조세 등으로 10.8% 증가하였으며, 5월에도 전년 동월대비 8.3% 증가함.

- 서비스업 생산도 운수업(7.2%), 금융 및 보험업(7.2%), 도매 및 소매업(4.0%) 등의 호조에 따라 2.7% 증가하였으며, 5월에도 전년동월대비 3.6%의 증가세를 지속하였음.

〈표 12〉 산업생산지수의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 분	2009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광공업	-0.2	26.4	19.3	11.0	12.0	16.6	10.8	6.9	8.3
- 제조업	-0.2	26.6	19.3	11.2	12.0	16.7	10.9	7.1	8.5
- 자동차	-6.4	48.8	32.1	11.3	10.2	23.1	16.1	8.2	10.6
- ICT	9.3	45.9	26.7	19.1	15.2	25.2	14.3	12.4	12.5
서비스업	1.8	6.2	4.2	2.3	3.2	3.9	2.7	3.1	3.6
- 도매 및 소매업	-0.4	7.4	5.6	5.0	4.7	5.7	4.0	4.5	6.4
- 운수업	-6.6	14.1	14.3	10.1	10.0	12.0	7.2	3.9	3.0
- 숙박 및 음식점업	-1.4	1.2	0.7	1.3	1.7	1.2	-0.6	0.7	2.9
- 금융 및 보험업	7.8	6.7	2.5	1.4	8.2	4.6	7.2	9.2	9.3
- 부동산 및 임대업	5.3	11.5	-2.4	-15.9	-24.2	-8.6	-17.7	-16.0	-12.7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물가 및 고용〉

2011년 2/4분기 동안 소비자물가는 4%대의 높은 상승률 수준이 지속되고 있고, 고용 시장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개선되고 있음. 한편, 1/4분기 가계소득, 소비지출, 가계흑자액 모두 전년동기에 비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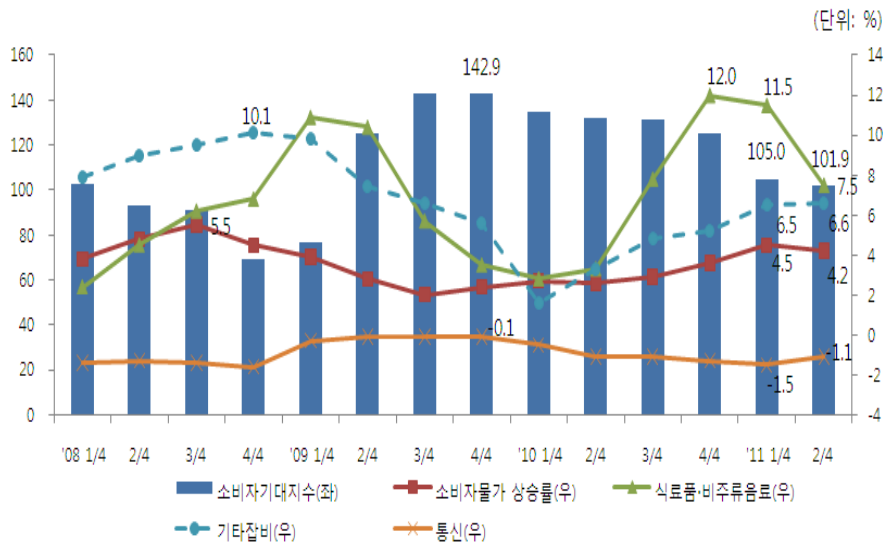
- 2011년 2/4분기 소비자물가는 교통과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등의 물가상승으로 4.2% 상승한 가운데, 1/4분기(4.5%)에 이어 4%대의 높은 상승률이 지속됨.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4.2%), 주류 및 담배(0.9%), 의복 및 신발(2.7%), 주거 및 수도광열(4.9%),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3.8%), 교통(6.6%), 기타잡비(6.6%) 물가는 상승한 반면, 통신(-1.1%)부문 물가는 하락함.

■ 소비자기대지수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위축의 다양한 위험요인들로 인해 2011년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하락함.

- 1/4분기 소비자기대지수는 자산가격 하락,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의 우려로 전분기대비 20.2 하락한 105.0을 나타냈으며, 2/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3.1 하락한 101.9를 기록함.

〈그림 24〉 소비자물가와 소비심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 2011년 1/4분기에는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고용여건이 다소 악화되었으나, 2/4분기 들어 서비스업의 고용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개선됨.

- 2011년 2/4분기 총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한 반면, 청년취업자 수는 1.9% 감소함.
- 1/4분기 고용률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57.4%에 그쳐 전분기에 비해 1.5%p 하락하였으나, 2/4분기 들어 59.9%로 개선됨.
- 실업률도 1/4분기에 4.2%를 기록하였으나, 2/4분기 들어 3.4%로 빠르게 개선됨.
 - 1/4분기 실업률은 계절적 요인으로 높았던 반면, 2/4분기에는 서비스업 고용이 늘어나면서 고용환경이 개선됨.
 - 청년실업률도 취업시즌 청년층 구직활동으로 2010년 말~2011년 초에 급격히 상승했으나, 3월(9.5%)을 정점으로 그 이후부터 꾸준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6월에는 7.6%로 낮아짐.

■ 2/4분기 산업별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 광공업, SOC 및 기타서비스업 모두에서 전년동기에 비해 증가함.

- 1/4분기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2.3% 감소했으나, 2/4분기 들어서 0.2% 증가함.
- 1/4분기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하였으나, 2/4분기에는 2.7% 증가에 그쳐 증가세가 둔화됨.

〈표 13〉 고용 관련 지표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 분	2009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총취업자	-0.3	0.6	1.8	1.6	1.5	1.4	1.8	1.7
- 청년취업자	-3.1	-0.3	-1.4	-1.1	-1.5	-1.1	-1.2	-1.9
고용률	58.6	57.0	59.6	59.3	58.9	58.7	57.4	59.9
실업률	3.6	4.7	3.5	3.5	3.3	3.7	4.2	3.4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2.2	-11.7	-4.6	-2.5	-2.2	-5.0	-2.3	0.2
광공업	-3.2	1.6	4.4	6.8	6.9	4.9	5.8	2.7
- 제조업	-3.2	1.6	4.5	6.9	7.0	5.0	5.8	2.8
SOC 및 기타서비스업	0.5	1.3	1.9	0.9	0.7	1.2	1.2	1.6
- 건설업	-5.0	-3.6	2.5	5.4	3.3	1.9	-0.2	-2.3
- 도소매음식숙박	-2.4	-1.0	-1.3	-1.2	-1.3	-1.2	-1.1	-0.1
- 전기, 운수, 통신, 금융	-0.9	4.1	2.4	2.3	1.9	2.7	1.6	3.6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4.6	3.2	3.9	0.9	1.0	2.2	3.0	2.8

주: 1) 실업률은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고용률은 '취업자/15세 이상 인구×100'로 정의됨.

2) 청년은 15~29세 기준임.

3) SOC는 전기가스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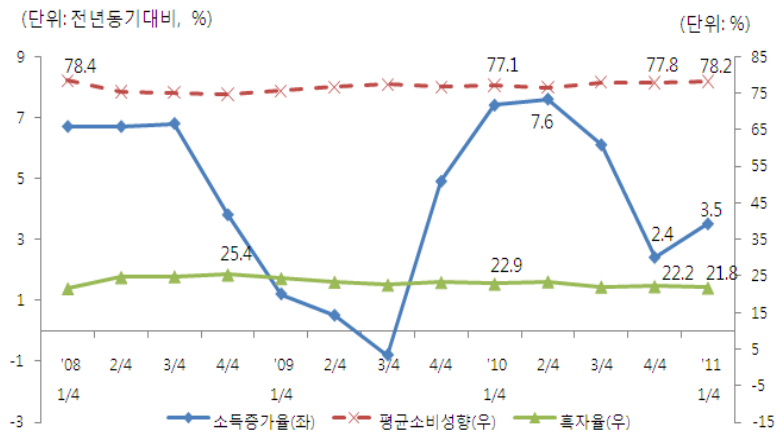
- 전기·운수·통신·금융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부문 취업자 수 증가로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SOC 및 기타서비스업 부문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함.
- 다만, 경기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설업 취업자 수가 1/4분기 감소에 이어 2/4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2.3% 감소하였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문 취업자 수도 0.1% 감소함.

■ 2011년 1/4분기 가계소득과 소비지출은 모두 증가한 반면,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흑자액은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함.

-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85만 7,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하였으나, 실질소득은 물가상승 등으로 0.9% 감소함.
- 1/4분기 경상소득은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하고, 비경상소득은 14.0% 감소함.
-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3만 9,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3% 증가하였고, 실질소비지출도 0.7% 증가함.
- 교통(11.5%), 보건(10.9%), 의류·신발(9.3%) 등의 소비지출 증가가 두드러짐.

- 1/4분기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12만 1,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하였고,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흑자액도 68만 2,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9% 감소함.
- 1/4분기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소비지출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이 78.2%로 전년동기 대비 1.1%p 상승하였는데, 이는 증가한 소득이 소비로 이어졌음을 반영함.

〈그림 25〉 가계 소득 및 흑자율 추이



3. 금융경제

〈금리〉

국고채(3년) 금리와 회사채 금리는 2/4분기 중반까지 횡보하다가,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고 기준금리도 인상되면서 후반부터 완만하게 상승함.

■ 2/4분기 기준금리는 6월 초까지 동결되다가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3.25% 수준으로 인상됨.

- 4~5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있었으나, 경제 성장세 유지를 위해 기준금리가 동결됨.
- 당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 중반까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물가안정 기조가 크게 위협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 6월 동안 에너지 및 농산물 가격 상승이 가공식품 가격, 개인서비스 요금 등에 반영되면서 근원소비자물가 상승세 지속으로 기준금리가 25bp 상향조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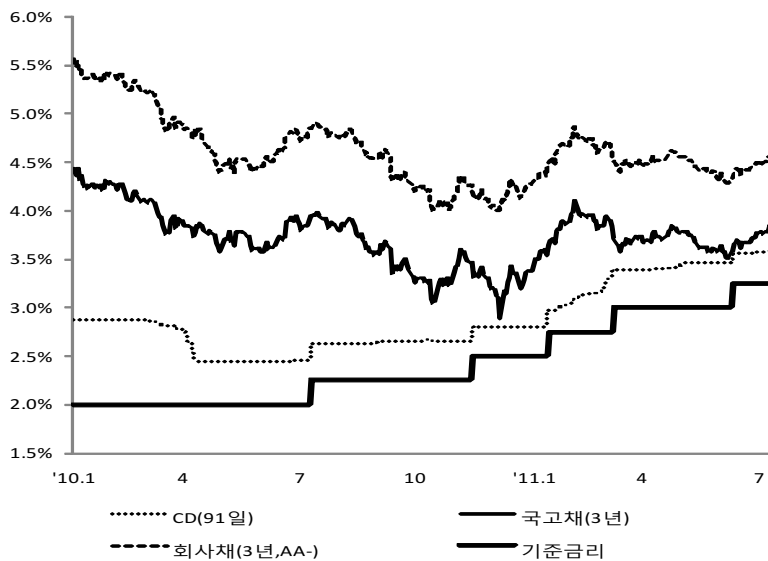
■ 국고채(3년) 금리는 2/4분기 동안 대외 불확실성의 일부 해소로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늘고, 기준금리도 인상되는 등 후반부터 완만하게 상승함.

- 4월에는 수출 증가와 경기회복 기대로 물가상승 압력이 증가하면서 국고채 금리 상승이 예상되었으나, 국고채 공급 감소와 수요 지속으로 국고채 금리는 방향성 없이 횡보함.
- 5월 들어 대외적으로는 그리스 채무조정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국고채 수요로 이어지고, 대내적으로는 기준금리 동결로 금리 반등이 어려워짐.
- 6월에는 기준금리 인상과 그리스 디폴트 우려 완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누그러지고 위험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국고채 금리는 완만하게 상승함.

■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2/4분기 양도성 예금증서(91일) 금리와 국고채(3년) 금리 또는 회사채(AA-, 3년) 금리 간 스프레드 축소는 회사채(AA-, 3년) 금리의 상승압력으로 이어짐.

- 4~5월 동안 양도성 예금증서(91일) 금리와 국고채(3년) 금리 간 스프레드가 평균수준(2003년 이후 50bp)에 미치지 못하는 15bp로 축소되면서 시중금리 상승압력으로 작용함.
- 우량 등급 회사채 금리는 4월 중 기준금리 동결로 횡보하다가, 5월에는 대내외 경제지표 부진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확대되면서 하락세를 보였고, 6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상승함.

〈그림 26〉 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환율〉

2/4분기 중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와 무역흑자 지속으로 하락했으며, 엔/달러 환율은 유럽 재정위기 및 미국 재정 우려 등으로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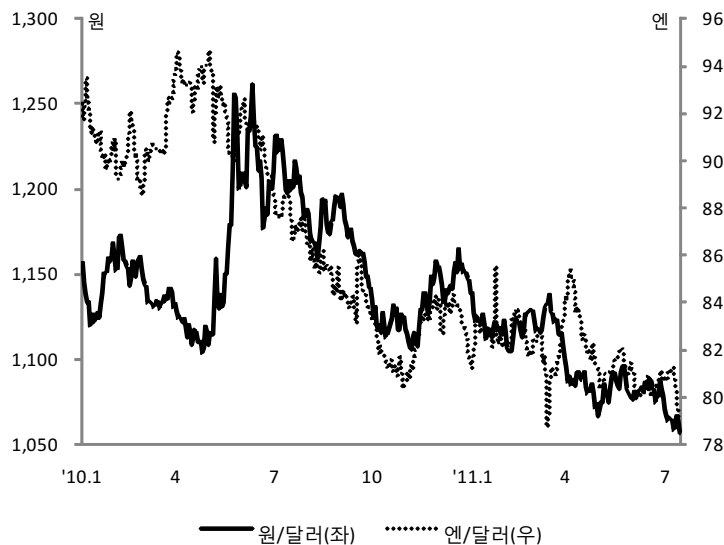
- 2/4분기 중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와 무역흑자가 지속되면서 전분기 평균 대비 36.9원 하락한 1,083원을 기록함.

- 4~5월 중 원/달러 환율은 미국 경제 및 기축통화의 신용도 하락에 대한 우려로 달러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한때 연중 최저인 1,060원대까지 하락함.
- 6월 들어 원/달러 환율은 그리스 채무조정 지원을 둘러싼 불확실성 증대로 상승했으나, 월말에는 이러한 불확실성 요인이 해소되면서 1,078원 대로 마감함.

■ 2/4분기 중 엔/달러 환율은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재정적자 우려 등으로 엔화가 안전통화로서 자리매김함에 따라 전분기 평균 대비 0.9엔 하락한 81.4엔을 기록함.

- 엔/달러 환율은 4~5월 초까지 일본 여진 발생에 따른 지진복구 본국 송금수요 증가로 80.4엔까지 하락함.
- 5~6월 중 일본의 경기회복 지연 우려와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등으로 엔/달러 환율은 다소 상승했으나, 미국 경제지표 부진과 유럽 재정위기 불안 지속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80엔대에서 횡보함.

〈그림 27〉 환율변동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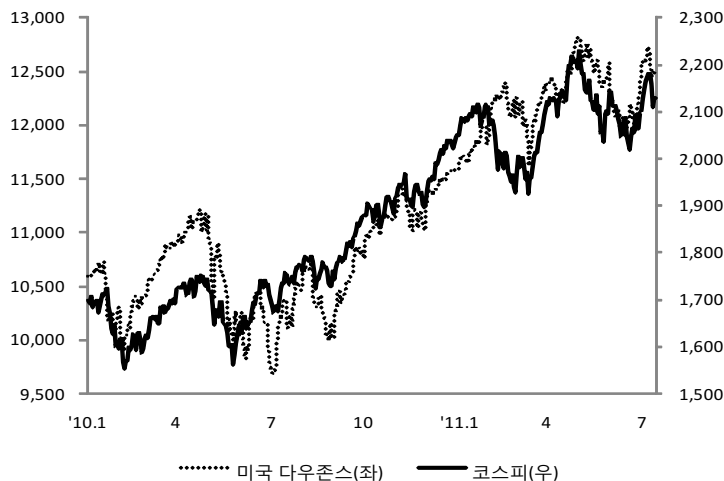
〈주가지수〉

2/4분기 국내증시는 대내외 호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이후, 유럽 재정위기, 기준금리 인상, 국내외 경기둔화로 조정 국면에 놓임.

■ 코스피지수는 2/4분기 중 국내 경기 모멘텀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한때 2,200선을 상회했으나, 그리스 채무위기 확산, 국내외 경기둔화 예상,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정 국면에 놓임.

- 4월 중 코스피지수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정 불안, 일본 방사능 유출 등 악재가 있었지만, 경제성장 지속 전망이 제반 악재들을 상쇄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전월 평균 대비 130.4p 상승한 2,153.1을 기록함.
- 5월 코스피지수는 그리스 채무위기 위험확산, 미국의 제2차 양적완화 종료 이후 유동성 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 미국과 중국 등의 경기지표 둔화로 외국인의 매도심리가 증가하면서 조정 국면을 보여 2,121.9까지 하락함.
- 6월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 유동성 축소, 국내외 경기둔화 전망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글로벌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지수가 2,074.6까지 하락함.

〈그림 28〉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자금흐름〉

2011년 1/4분기 보험권의 순수신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의 지급보험금 증가로 전분기에 비해 감소한 가운데, 은행권과 증권사 순수신도 전분기대비 감소함. 한편, 투신사와 증금사의 1/4분기 순수신은 마이너스(-) 금액을 기록함.

■ 1/4분기(CY 기준) 보험권의 순수신은 전분기에 비해 손해보험의 순수신이 소폭 늘어났으나, 생명보험의 순수신 감소로 전분기대비 감소함.

○ 1/4분기 생명보험의 순수신은 수신대비 보험금지급이 증가하면서 전분기대비 감소한 반면, 손해보험은 장기보험을 비롯한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이 모두 양호한 실적을 보이면서 순수신이 증가함.

〈표 14〉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 원)

구 분	2009			2010				2011
	2/4	3/4	4/4	1/4	2/4	3/4	4/4	1/4
보 험	101,850	100,434	112,581	90,965	113,206	106,839	97,513	95,956
- 생 보	73,533	71,883	84,809	65,558	79,340	80,183	68,578	64,883
- 손 보	28,317	28,551	27,772	25,407	33,866	26,655	28,935	31,073
은 행	218,527	282,694	121,671	217,133	265,044	33,397	274,211	201,600
- 일 반	245,899	282,430	102,900	176,891	247,333	44,878	150,020	123,112
- 신 탁	-27,372	264	18,771	40,242	17,711	-11,481	124,191	78,488
증 권	37,013	33,892	-44,842	45,027	15,820	-7,803	17,429	15,731
투 신	-115,228	-282,355	-140,750	107,354	-83,616	-78,660	-111,569	-131,059
증 금	-64,396	-76,105	-7,191	38,000	-22,687	-13,827	9,480	-10,921

주: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 1/4분기 은행권과 증권사의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감소하였고, 투신권 및 종금사는 마이너스

(-) 순수신을 기록함.

- 은행권의 순수신은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재차 부각되고, 단기금리 또한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은행신탁이 부진해지면서 전분기대비 감소함.
- 증권사의 순수신은 조정과정에 따른 주식시장의 하락세 조짐으로 RP 자금이 대거 유출되면서 전분기에 비해 감소함.
- 투신권에서는 금리상승 압력으로 채권형 상품의 수탁고 감소세가 투신권 전체 수탁고 감소를 주도함.
- 종금사의 순수신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예탁금에서 5,413억 원이 순유출 되고, 발행어음도 8,683억 원이 상환된 한편, 어음매출 자금도 전분기대비 감소함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함.

Ⅲ.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10 4/4분기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손해보험 성장률이 소폭 하락한 반면, 생명보험 성장률이 5분기 만에 두 자리수를 기록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3.3% 증가한 34조 4,996억 원으로 나타남.

■ FY2010 4/4분기 보험산업의 전체 수입(원수)보험료 규모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전반적으로 고른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전년동기대비 13.3% 증가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이 저축성 보험을 중심으로 고성장하고, 퇴직연금 시장 확대로 단체보험도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10.8% 증가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 중심의 장기손해보험 고성장과 경기회복세에 힘입은 자동차보험 호조로 17.5% 증가함.

〈표 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단위: 억 원, %)

구 분	FY2009			FY2010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명보험	223,606	191,423	769,568	192,402	192,149	233,418	212,105	830,074
	13.8	8.6	4.6	9.8	7.1	4.4	10.8	7.9
손해보험	120,115	113,058	438,323	120,829	122,403	146,321	132,891	522,444
	21.1	19.4	16.9	20.8	16.5	21.8	17.5	19.2
합 계	343,721	304,481	1,207,891	313,231	314,552	379,739	344,996	1,352,518
	16.2	12.4	8.8	13.8	10.6	10.5	13.3	12.0

주: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 기준임.

3)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총자산

FY2010 4/4분기 말 보험산업 전체 총자산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특별계정 자산 증가에 비해 일반계정 자산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체적으로 2.3% 증가한 519조 원을 기록함.

■ FY2010 4/4분기 말 보험산업의 총자산은 특별계정 자산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2.3%로 낮은 수준을 기록함.

- 생명보험 부문 총자산 규모는 특별계정 자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반계정 자산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전분기대비 2.0% 증가에 그침.
- 손해보험 부문 총자산 규모는 원수보험료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운용자산 이익이 안정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일반계정자산이 증가하고 특별계정자산도 퇴직연금 관련 자산 확대에 증가함에 따라 전분기대비 3.3% 증가함.

〈표 2〉 보험산업 총자산

(단위: 조 원, %)

구 분	FY2009			FY2010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명보험	361	373	373	381	397	408	417	417
	2.5	3.1	13.5	2.5	4.1	2.8	2.0	11.8
손해보험	83	86	86	90	94	99	102	102
	4.4	3.8	16.4	4.8	4.7	4.8	3.3	18.7
합 계	444	459	459	471	491	507	519	519
	2.8	3.4	14.2	2.7	4.2	3.2	2.3	13.0

주: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수익성

FY2010 4/4분기 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은 생명보험의 경우 투자영업수익이 증가하였고,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영업이익 개선이 두드러지면서 전년동기대비 1.4%p 상승한 2.8%로 나타남.

■ FY2010 4/4분기 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에서 실적이 개선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4%p 상승함.

- 생명보험회사의 자본이익률은 IFRS 적용에 따른 사모펀드의 처분 또는 공모펀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투자영업수익이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1.5%p 상승함.
- 손해보험회사의 자본이익률은 투자영업이익 증가 속에 보험영업이익 개선이 두드러지면서 전년동기대비 1.2%p 상승함.

〈표 3〉 보험산업 자본이익률

(단위: %)

구 분	FY2009			FY2010				
	3/4	4/4	연간 ³⁾	1/4	2/4	3/4	4/4	연간 ³⁾
생명보험	2.2	1.1	9.9	4.1	2.5	2.5	2.6	12.4
손해보험	3.3	2.3	13.9	4.0	2.2	1.1	3.5	11.3
합 계	2.4	1.4	10.9	4.1	2.4	2.2	2.8	12.1

주: 1) 생명 및 손해보험회사는 각각 22개, 17개 국내외 보험회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분기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3) 연간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년도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전체〉

■ FY2010 4/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수입보험료가 모두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0.8% 증가한 21조 2,105억 원으로 나타남.

-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생사혼합보험, 생존보험, 변액보험 등 저축성 보험이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전체적으로 9.2% 증가함.
-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보험과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38.6% 증가함.
- FY2010 수입보험료는 단체보험 수입보험료의 소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인 저축성보험의 높은 성장세를 바탕으로 7.9% 증가함.

■ FY2010 4/4분기 생명보험 총자산은 특별계정 자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운용자산이 감소하면서 전분기대비 2.0%의 낮은 증가율을 나타냄.

- FY2010 총 자산은 수입보험료의 안정적인 유입과 양호한 자산운용 수익으로 11.8% 증가함.

〈표 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억 원, %)

구 분	FY2009			FY2010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수입보험료	223,606	191,423	769,568	192,402	192,149	233,418	212,105	830,074
	13.8	8.6	4.6	9.8	7.1	4.4	10.8	7.9
총 자 산	3,614,323	3,725,247	3,725,247	3,816,622	3,974,875	4,084,952	4,166,520	4,166,520
	2.5	3.1	13.5	2.5	4.1	2.8	2.0	11.8

주: 1)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서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연금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2) 하단은 성장률이며,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수입보험료 현황〉

■ FY2010 4/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사망보험의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고성장이 지속되면서 9.2% 증가함.

-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종신보험 수요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 등으로 1.0% 감소하면서 10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감.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연금보험 전문회사 설립, 개인연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으로 8.8%의 양호한 증가율을 나타냄.
 - 2010년 9월 설립된 IBK연금보험은 FY2010 4/4분기 생존보험 수입보험료에서 4.9%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함.
 - 세제적격 개인연금이 전체 생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6%에 불과하지만,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의 영향으로 2~3%에 불과하던 성장률이 FY2011 4/4분기 7.3%로 높아지는 등 생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에 기여함.
-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타 금융권대비 상대적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23.1% 증가하였고, FY2010 기준으로 28.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변액보험은 변액연금의 고성장이 지속되고, 변액유니버설보험 수요가 확대되면서 18.9% 성장함.
 -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보험 수입보험료는 각각 20.7%, 19.0% 증가함.
- FY2010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상대적 고금리로 상품경쟁력이 부각된 생사혼합보험의 지속적인 고성장과 상반기 생존보험, 하반기 변액보험의 고성장을 바탕으로 8.7% 증가함.

■ FY2010 4/4분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이 가속화되어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36.8% 증가함.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105.2% 증가한 반면, 퇴직보험과 일반단체보험은 각각 47.5%, 3.7% 감소함.
- FY2010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도 고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0.5% 감소함.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억 원, %)

구 분		FY2009			FY2010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	보험료	40,807	40,908	153,119	40,313	41,775	44,312	44,496	170,897
	성장률	16.2	14.1	8.8	17.2	12.9	8.6	8.8	11.6
	구성비	18.2	21.4	19.9	21.0	21.7	19.0	21.0	20.6
사망	보험료	72,632	72,330	289,498	71,767	71,868	71,895	71,632	287,162
	성장률	-0.7	-0.1	-1.7	-0.2	-1.1	-1.0	-1.0	-0.8
	구성비	32.5	37.8	37.6	37.3	37.4	30.8	33.8	34.6
생사 혼합	보험료	21,248	23,387	82,052	24,183	24,875	27,370	28,786	105,215
	성장률	33.9	20.1	23.6	33.6	28.7	28.8	23.1	28.2
	구성비	9.5	12.2	10.7	12.6	12.9	11.7	13.6	12.7
변액 보험	보험료	44,375	44,522	171,882	44,983	45,598	50,600	52,949	194,130
	성장률	5.1	10.4	-2.3	10.0	8.3	14.0	18.9	12.9
	구성비	19.8	23.3	22.3	23.4	23.7	21.7	25.0	23.4
개인계	보험료	179,061	181,145	696,551	181,247	184,116	194,177	197,863	757,403
	성장률	7.6	7.8	2.8	9.7	7.6	8.4	9.2	8.7
	구성비	80.1	94.6	90.5	94.2	95.8	83.2	93.3	91.2
단체	보험료	44,544	10,277	73,017	11,156	8,033	39,241	14,242	72,672
	성장률	48.0	23.8	25.7	12.6	-3.1	-11.9	38.6	-0.5
	구성비	19.9	5.4	9.5	5.8	4.2	16.8	6.7	8.8
합계	보험료	223,606	191,423	769,568	192,402	192,149	233,418	212,105	830,074
	성장률	13.8	8.6	4.6	9.8	7.1	4.4	10.8	7.9

주: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연금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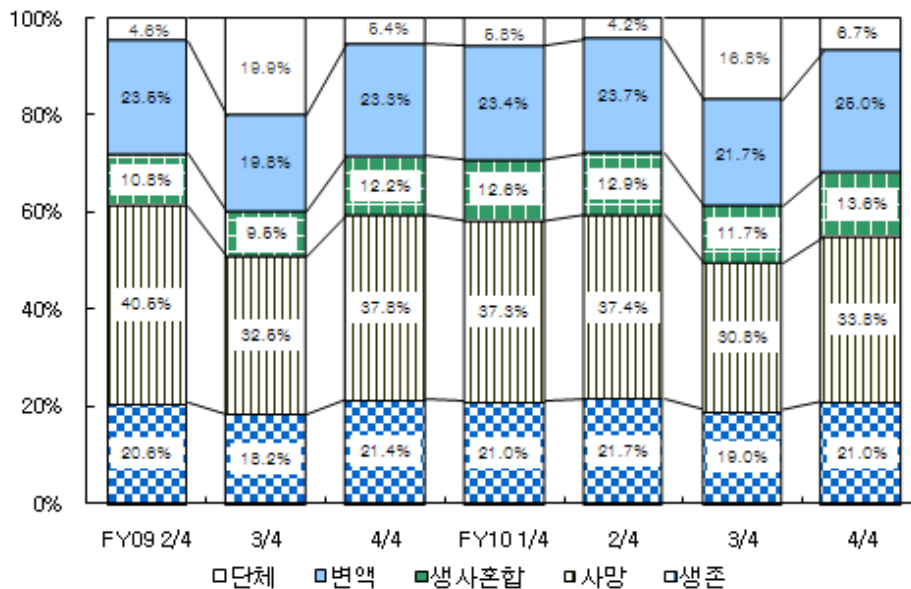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 FY2010 4/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는 전년동기대비 사망, 생존보험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생사혼합보험, 변액보험, 단체보험의 비중은 증가함.

- 4/4분기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사망보험의 비중은 4.0%p 감소한 33.8%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보인 생존보험의 비중도 0.4%p 감소한 21.0%로 나타남.
- 생사혼합보험과 변액보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4%p, 1.7%p 증가한 13.6%와 25.0%로 나타났으며, 단체보험 비중 또한 1.3%p 증가한 6.7%를 기록함.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변동 추이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10 4/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은 국내중소형사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상위 3사와 외국사의 점유율은 하락함.

- 국내중소형사의 점유율은 방카슈랑스 의존도가 높은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년동기대비 1.9%p 상승한 28.2%로 상승함.
- 상위 3사의 점유율은 대형사 비중이 높은 사망보험의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0.8%p 하락한 51.0%로 나타났으며, 외국사의 점유율도 0.7%p 하락한 21.2%로 낮아짐.
- FY2010 기준으로도 국내중소형사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상위3사와 외국사의 점유율은 하락하였으며, 특히 외국사의 점유율은 FY2008 금융위기 이후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FY2010 4/4분기 허핀달지수는 상위3사의 점유율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0.0031 감소한 0.1141로 나타났으며, FY2010 전체로는 0.1186으로 나타남.

〈표 6〉 생명보험시장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구 분	FY2009			FY2010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상위 3개사	57.4	51.8	54.1	52.3	51.7	54.1	51.0	52.3
국내중소형사	23.4	26.3	24.8	26.4	26.6	27.3	28.2	26.9
외 국 사	19.2	21.9	21.1	21.3	21.7	18.5	21.2	20.8
허핀달지수	0.1449	0.1172	0.1263	0.1186	0.1165	0.1253	0.1141	0.1186

주: 1) 퇴직보험·연금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10년 12월 말 알리안츠 등 9개사이며 ING, 카디프는 국내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국내중소형사(11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보험금 지급률 및 사업비율〉

■ FY2010 4/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보험금 지급률은 개인보험 중 생존보험과 변액보험 지급률이 상승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6%p 상승한 69.4%로 나타남.

○ 생존보험 지급률은 해약환급금과 생존급여금의 증가로 4.8%p 상승한 58.8%로 나타났으며, 변액보험 지급률 또한 주가상승에 따른 해약환급금 증가로 14.7%p 상승한 67.2%로 나타남.

○ 사망보험 지급률은 수입보험료 감소와 입원급여 지급금 증가로 1.4%p 상승한 52.8%로 나타났고, 생사혼합보험 지급률은 만기도래로 발생하는 생존지급금이 감소하면서 32.8%p 하락한 51.7%로 나타남.

■ 수입보험료 대비 실제 지출한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0.7%p 상승한 17.4%로 나타났으며, 해지율은 0.8%p 감소한 10.5%를 시현함.

〈표 7〉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지율

(단위: %)

구 분	FY2009			FY2010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보험금 지급률	62.1	65.8	61.6	58.8	58.3	70.6	69.4	64.7
개 인 계	57.1	56.5	55.4	52.1	54.0	62.8	57.8	56.8
- 생 존	52.2	54.0	55.6	51.0	51.3	61.2	58.8	55.7
- 사 망	49.4	51.4	51.6	50.2	51.1	51.1	52.8	51.3
- 생사혼합	108.9	84.5	86.0	49.7	50.3	68.6	51.7	55.3
- 변 액	49.4	52.5	47.3	57.5	62.9	77.6	67.2	66.6
단 체	82.1	228.0	119.9	166.7	157.1	109.4	230.3	147.2
사 업 비 율	15.2	16.7	16.6	16.8	16.7	14.2	17.4	16.2
해 지 율	9.0	11.3	11.3	3.0	5.6	8.2	10.5	10.5

주: 1) 보험금 지급률=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사업비율=실제사업비/수입보험료,
해지율=(효력상실액+해지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2) 신계약률과 해지율은 누계치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10 4/4분기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04.6% 증가한 9,649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연간 당기순이익은 4조 193억 원으로 63.7% 증가함.

○ 1/4분기 보험영업이익의 경우 보험영업수익이 일반계정 수입보험료 증가로 3.3% 증가하고, 보험영업비용이 만기환급금 축소로 2.5%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36.9% 증가함.

○ 투자영업이익의 경우 투자영업수익이 이자수입 증가와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증가로 16.8% 증가하고, 투자영업비용이 대손상각비 감소와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 감소로 45.2%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41.4% 증가함.

〈표 8〉 생명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억 원)

구 분		FY2009			FY2010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총수익	보험영업	143,930	146,566	562,962	143,720	146,201	149,339	151,443	590,702
	투자영업	42,706	46,808	185,863	51,080	38,169	47,279	54,683	195,936
	영업외	7,880	9,011	33,471	12,470	8,831	8,969	9,481	39,752
	소 계	194,516	202,384	782,296	207,269	193,202	205,587	215,606	826,390
총비용	보험영업	124,251	124,885	484,636	111,152	111,572	122,808	121,772	467,305
	투자영업	8,591	13,308	48,228	9,784	-3	6,776	7,313	28,596
	영업외	2,487	699	5,982	1,594	1,560	1,381	2,031	6,566
	소 계	135,330	138,892	538,846	122,531	113,130	130,965	131,115	502,466
수지차	보험영업	19,678	21,681	78,326	32,567	34,629	26,530	29,671	123,398
	투자영업	34,115	33,500	137,635	41,296	38,172	40,503	47,370	167,340
	영업외	5,393	8,312	27,489	10,876	7,271	7,588	7,450	33,186
	소 계	59,186	63,492	243,450	84,739	80,072	74,622	84,491	323,923
책임준비금전입		51,381	58,552	210,586	68,042	69,018	61,545	71,183	269,789
법인세		2,015	1,773	8,315	3,846	2,652	3,785	3,659	13,942
당기순이익		5,790	3,168	24,549	12,850	8,402	9,292	9,649	40,193

주: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실적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10 4/4분기 운용자산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4%p 상승한 5.9%로 나타났으며 일반계정자산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5%p 상승한 5.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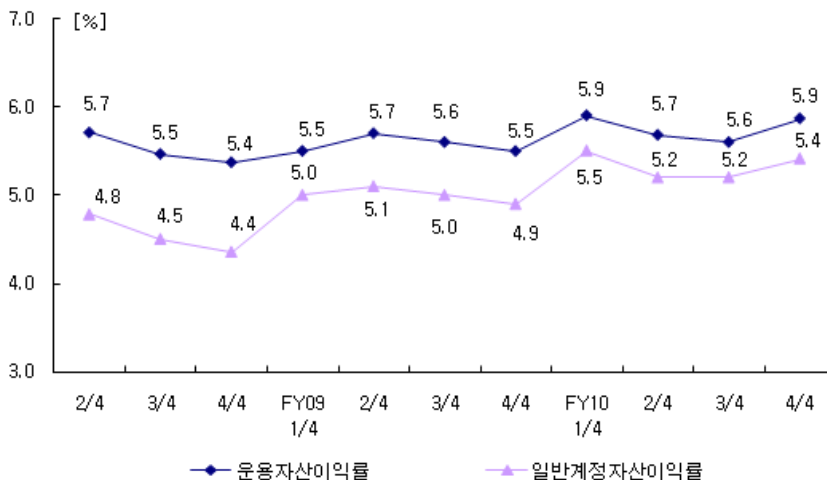
○ 운용자산 중 유가증권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6%p 상승한 5.4%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형사의 포트폴리오 변경으로 매도가능증권 수익증권의 처분이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 부동산 이익률은 1.2%p 하락한 3.0%로 나타났으며, 대출채권 이익률은 0.3%p 상승한 8.2%로 나타남.

■ 일반계정 자산에서 차지하는 항목별 투자비중은 유가증권 65.7%, 대출채권 19.9%, 부동산 3.6%, 현금과예금 3.5% 순으로 나타남.

○ 전년동기에 비해 대출채권, 부동산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현금과예금, 유가증권의 비중은 각각 0.3%p, 2.6%p 증가함.

〈그림 2〉 운용자산 이익률 추이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일반계정자산에서 비운용자산을 제외한 것임.

2) 운용자산의 투자이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3) 운용자산 이익률=(운용자산이익×2)/(기초자산+기말자산-운용자산이익)×(연기준 환산)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9〉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구 분	FY2009		FY2010							
	4/4		1/4		2/4		3/4		4/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현 금 과 예 금	3.2	2.9	3.3	3.2	3.4	3.1	3.7	3.1	3.5	3.6
유 가 증 권	63.1	4.8	64.1	4.7	64.8	4.9	65.0	5.0	65.7	5.4
○ 단기매매증권	1.6	4.1	1.7	2.0	1.3	3.4	1.1	3.1	1.2	3.1
- 주 식	0.0	56.2	0.0	-15.4	0.0	4.6	0.0	8.5	0.0	16.2
- 채 권 등	0.3	4.3	0.2	1.7	0.2	5.6	0.2	3.1	0.4	2.9
- 수익증권	1.4	3.4	1.5	2.1	1.1	3.0	0.9	3.0	0.8	3.0
○ 매도가능증권	47.8	4.6	48.4	4.6	49.3	4.8	49.2	4.9	49.5	5.4
- 주 식	4.9	1.7	4.6	0.8	4.6	1.9	5.4	1.5	5.3	2.0
- 채 권 등	39.5	5.0	40.2	5.2	41.2	5.1	40.1	5.3	41.0	5.3
- 수익증권	3.5	4.1	3.5	2.6	3.5	4.4	3.7	4.7	3.1	12.7
○ 만기보유증권	12.8	5.3	13.1	5.5	13.3	5.3	13.7	5.3	14.1	5.3
- 채 권 등	12.8	5.3	13.1	5.5	13.3	5.3	13.7	5.3	14.1	5.3
- 수익증권	0.0	-	0.0	0.0	0.0	0.0	0.0	0.0	0.0	0.0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9	13.8	0.9	7.3	0.9	6.9	0.9	12.5	0.9	10.5
대 출 채 권	21.5	7.9	20.7	10.6	20.3	9.1	20.1	8.4	19.9	8.2
부 동 산	4.0	4.2	3.9	3.0	3.7	3.0	3.7	3.1	3.6	3.0
운 용 자 산 계	91.7	5.5	92.0	5.9	92.3	5.7	92.4	5.6	92.7	5.9
비 운 용 자 산	8.3	-0.3	8.0	0.3	7.7	-0.3	7.6	0.2	7.3	0.1
일 반 계 정 자 산 계 (자 산 운 용 률)	100.0 (80.6)	4.9	100.0 (80.7)	5.5	100.0 (80.4)	5.2	100.0 (80.7)	5.2	100.0 (80.4)	5.4
특 별 계 정 자 산	19.4	11.1	19.3	3.6	19.6	8.5	19.3	9.5	19.6	8.7
총 자 산	100.0	6.1	100.0	5.1	100.0	5.8	100.0	6.0	100.0	6.0
총 자 산 규 모	3,725,247		3,816,622		3,974,875		4,084,952		4,166,524	

주: 1) 이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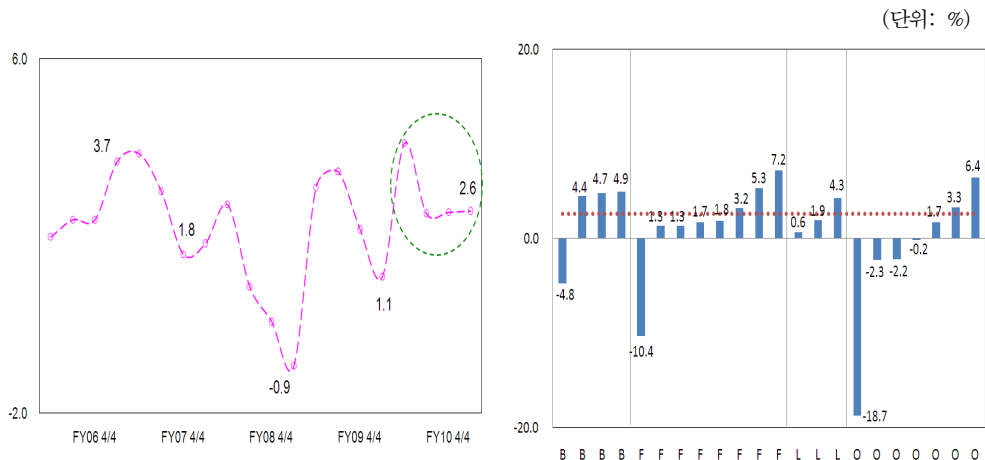
〈수익성〉

1) 자본이익률(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¹⁾

■ FY2010 4/4분기 생명보험회사 자본이익률은 2.6%로 전년동기대비 1.5%p 상승함.

- 생명보험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대형사, 방카사, 외국사는 산업평균(2.6%) 수준을 상회한 반면, 중소형사는 산업평균을 하회함.

〈그림 3〉 생명보험회사 자본이익률 현황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0 4/4분기 생명보험회사별 자본이익률임.

2)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3)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점선은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0 4/4분기 생명보험회사 자본이익률을 회사 그룹별로 살펴보면, 대형사와 방카사의 자본이익률이 각각 3.1%, 2.8%로 전년동기 또는 전분기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1)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R_t / E_t^o :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을 매출이익률(R_t / S_t :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자산회전율(S_t / A_t^o : 기중자산대비 매출액), 레버리지비율(A_t^o / E_t^o : 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로 분해하여 분석하며, 분석대상은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방카사 등 총 22개 회사임.

- 대형사와 방카사의 경우 자본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0.8%p, 1.5%p 상승, 전분기 대비로도 각각 0.6%p, 3.1%p 상승으로 개선됨.
- 중소형사의 자본이익률은 0.3%로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8.4%p 상승하여 대폭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전분기와 비교해서는 1.6%p 하락한 수준임.
- 한편, 외국사의 자본이익률은 2.1%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 전분기대비로는 1.5%p 하락한 수치임.

〈표 10〉 생명보험회사 자본이익률 추이

(단위: %)

구 분	FY2009			FY2010				
	3/4	4/4	연간 ²⁾	1/4	2/4	3/4	4/4	연간 ²⁾
대형사	2.1	2.3	11.0	4.5	2.8	2.5	3.1	13.6
중소형사	1.2	-8.1	0.1	3.3	0.1	1.9	0.3	5.7
외국사	3.0	2.5	12.9	3.4	3.1	3.6	2.1	13.1
방카사	0.6	1.3	4.4	0.4	0.4	-0.3	2.8	3.7
전체	2.2	1.1	9.9	4.1	2.5	2.5	2.6	12.4

주: 1)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전분기 자본+당분기 자본) × 0.5]

‘당기순이익 = 영업이익+영업외이익+특별계정이익-법인세비용

2)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연도말 자본+당분기 자본-누적 당기순이익) × 0.5]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전년동기대비 기준 FY2010 4/4분기 산업수준 자본이익률의 경우 레버리지비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매출이익률이 3.1%p 상승함에 따라 자본이익률이 상승함.

- 전년동기대비 자본이익률의 경우 대형사, 중소형사, 방카사의 매출이익률이 개선되면서 자본이익률이 각각 0.8%p, 8.4%p, 1.5%p 상승한 반면, 외국사는 매출이익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비율과 자산회전율이 하락하면서 자본이익률이 0.4%p 하락함.
- 전분기대비 자본이익률의 경우 대형사와 방카사는 매출이익률이 개선되면서 자본이익률이 각각 0.6%p, 3.1%p 상승한 반면, 중소형사와 외국사는 매출이익률이 악화됨에 따라 자본이익률이 각각 1.6%p, 1.5%p 하락함.

〈표 11〉 생명보험회사 자본이익률 분해

(단위: 배, %)

구 분	레버리지비율			자산회전율			매출이익률		
	FY2009 4/4	FY2010 3/4	FY2010 4/4	FY2009 4/4	FY2010 3/4	FY2010 4/4	FY2009 4/4	FY2010 3/4	FY2010 4/4
대형사	12.9	8.7	8.5	5.3	4.8	5.1	4.4	5.9	7.1
중소형사	14.9	12.0	12.4	9.1	9.4	9.3	-6.8	1.7	0.3
외국사	8.6	7.4	7.5	8.2	7.2	7.2	3.7	6.7	3.9
방카사	11.6	11.8	11.3	17.5	10.7	9.7	0.5	-0.3	2.5
전체	12.3	8.9	8.8	6.5	6.0	6.2	1.6	4.7	4.7

주: 1) 레버리지비율 = 기중자산 / 기중자본

2)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3)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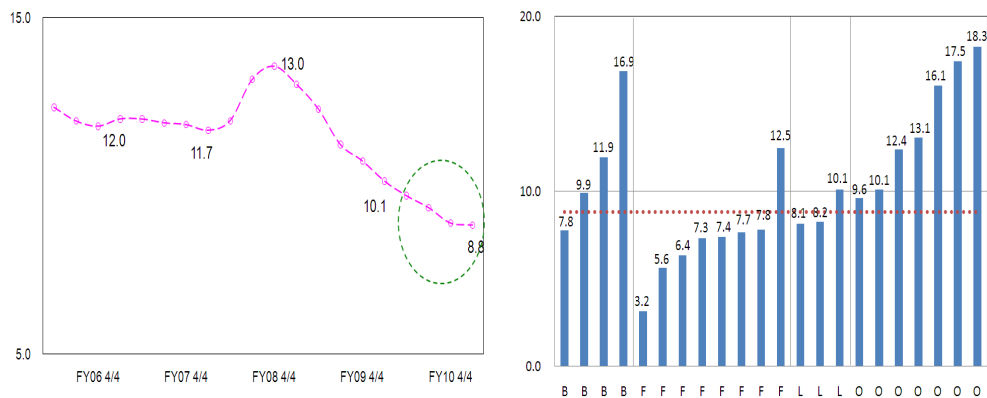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① 레버리지비율(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

■ FY2010 4/4분기 생명보험회사 레버리지비율은 8.8배로 FY2008 4/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함.

〈그림 4〉 생명보험회사 레버리지비율 현황

(단위: 배)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0 4/4분기 생명보험회사별 레버리지비율임.

2)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3) 회사별 레버리지비율 분포에서 표시된 점선은 산업수준의 레버리지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생명보험 회사별 레버리지비율 분포를 살펴보면, 중소형사와 일부 방카사 레버리지비율이 산업평균(8.8배)을 상회하였으나, 일부 대형사와 외국사 모두는 산업평균을 하회하여 레버리지비율 하락을 주도함.

■ 생명보험회사 그룹별 레버리지비율 추이를 보면, 대형사와 방카사가 전분기대비 레버리지비율이 하락한 반면, 중소형사와 외국사는 상승함.

- 특히, 대형사와 외국사는 FY2010 1/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레버리지비율이 하락하고 있음.

〈표 12〉 생명보험회사 레버리지비율 추이

(단위: 배)

구 분	FY2009			FY2010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대형사	10.8	10.1	13.2	9.5	9.2	8.7	8.5	10.8
중소형사	13.5	13.1	17.4	13.1	12.6	12.0	12.4	15.9
외국사	8.4	8.2	11.2	7.9	7.6	7.4	7.5	10.7
방카사	13.7	14.2	18.9	15.0	13.7	11.8	11.3	16.8
전체	10.7	10.1	13.4	9.7	9.4	8.9	8.8	11.4

주: 레버리지비율 = 기중자산 / 기중자본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레버리지비율을 구성하고 있는 자산 및 자본의 변화율을 살펴보면, 매출회복에 따른 부채 증가보다 이자율 하락에 따른 유가증권평가익 증가로 자본이 증가하면서 레버리지비율이 하락함.

- 중소형사와 외국사 경우 전분기대비 자산증가율이 자본증가율보다 크게 나타나 레버리지비율이 상승한 반면, 대형사와 방카사는 자본증가율이 자산증가율보다 크게 나타나 동 비율이 하락함.

〈표 13〉 생명보험회사 자산 및 자본증가율

(단위: %)

구 분	자산증가율		자본증가율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대형사	49.8	6.8	87.6	11.6
중소형사	14.8	2.2	25.3	1.1
외국사	9.3	1.8	29.3	3.7
방카사	17.6	4.0	23.6	0.7
전체	12.1	2.3	28.7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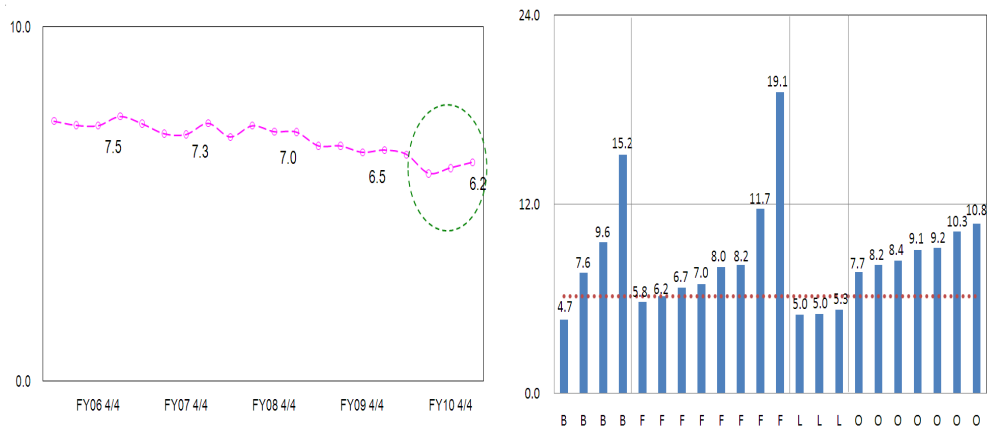
주: IBK 연금보험을 제외한 22개의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② 자산회전율(기중자산대비 매출액)

■ FY2010 4/4분기 생명보험회사 자산회전율은 FY2010 2/4분기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0.3%p 하락한 6.2%를 기록함.

〈그림 5〉 생명보험회사 자산회전율 현황

(단위: %)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0 4/4분기 생명보험회사별 자산회전율임.
2)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3) 회사별 자산회전율 분포에서 표시된 점선은 산업수준의 자산회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생명보험 회사별 자산회전율 분포를 보면, 중소형사 모두, 외국사와 방카사 대부분의 자산회전율이 산업평균(6.2%) 수준을 상회한 반면, 대형사의 경우만 모두 산업평균을 하회함.

■ 자산회전율을 보험영업회전율과 투자영업회전율로 구분해 보면, 보험영업회전율 하락으로 생명보험회사 자산회전율이 전년동기대비 0.3%p 하락함.

-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는 대형사, 외국사, 방카사의 경우 주로 보험영업회전율 하락으로 자산회전율이 각각 0.2%p, 1.0%p, 7.8%p 하락한 반면, 중소형사의 경우 보험영업회전율이 상승하면서 자산회전율이 0.2%p 상승함.
- 전분기대비 기준으로 보면, 보험영업회전율 하락으로 인해 중소형사와 방카사 자산회전율이 하락함.

〈표 14〉 생명보험회사 자산회전율 분해

(단위 : %)

구 분	자산회전율			보험영업			투자영업		
	FY2009 4/4	FY2010 3/4	FY2010 4/4	FY2009 4/4	FY2010 3/4	FY2010 4/4	FY2009 4/4	FY2010 3/4	FY2010 4/4
대형사	5.3	4.8	5.1	3.7	3.3	3.3	1.6	1.4	1.8
중소형사	9.1	9.4	9.3	7.4	7.9	7.8	1.6	1.5	1.5
외국사	8.2	7.2	7.2	6.7	5.7	5.8	1.5	1.5	1.4
방카사	17.5	10.7	9.7	16.1	9.5	8.2	1.4	1.2	1.5
전체	6.5	6.0	6.2	4.9	4.6	4.5	1.6	1.5	1.6

주: 1)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2) 보험영업회전율 = 보험영업수익 / 기중자산

3) 투자영업회전율 = 투자영업수익 / 기중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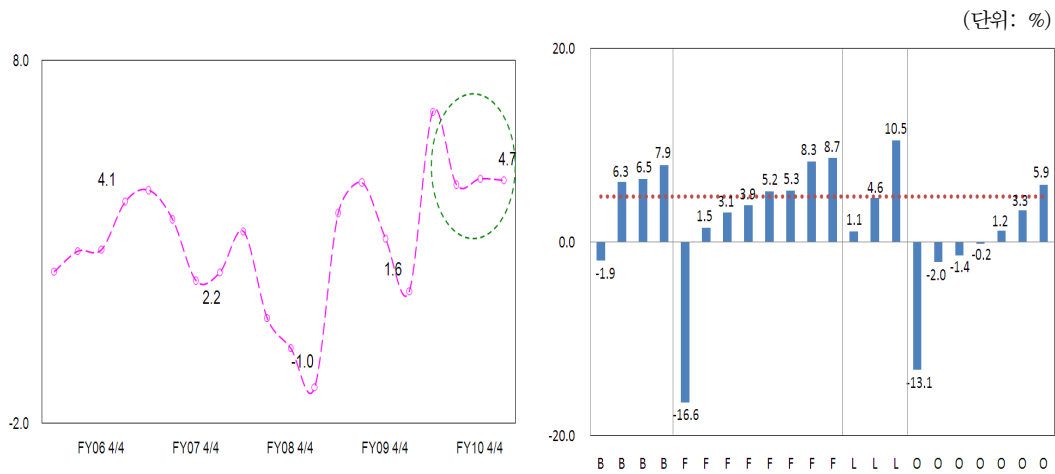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③ 매출이익률(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 FY2010 4/4분기 생명보험회사 매출이익률은 4.7%로 전년동기대비 3.1%p 상승하였으나, 전분기와는 동일한 수준임.

○ 생명보험 회사별 매출이익률 분포를 보면, 대부분의 방카사와 일부 외국사의 경우 산업평균(4.7%)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중소형사의 경우는 대부분 산업평균을 하회함.

〈그림 6〉 생명보험회사 매출이익률 현황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0 4/4분기 생명보험회사별 매출이익률임.

2)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3) 회사별 매출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점선은 산업수준의 매출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0 4/4분기 생명보험회사 매출이익률을 보험영업이익률과 투자영업이익률로 구분해 살펴보면, 투자영업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5.8%p 상승함에 따라 매출이익률이 개선되었으나, 전분기대비로는 보험영업이익률과 투자영업이익률 변화가 서로 상쇄하면서 동일한 수준의 매출이익률을 기록함.

○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대형사, 방카사, 외국사의 경우 투자영업이익률 개선으로 인해 매출이익률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소형사의 경우 보험영업이익률과 투자영업이익률 모두 개선되어 매출이익률이 7.1%p 상승함.

- 대형사와 방카사의 경우 전분기대비 매출이익률이 상승하였으나, 중소형사의 경우 보험영업이익률이, 외국사의 경우 보험영업이익률과 투자영업이익률이 하락하면서 매출이익률이 악화됨.

〈표 15〉 생명보험회사 매출이익률 분해

(단위: %)

구 분	매출이익률			보험영업			투자영업		
	FY2009 4/4	FY2010 3/4	FY2010 4/4	FY2009 4/4	FY2010 3/4	FY2010 4/4	FY2009 4/4	FY2010 3/4	FY2010 4/4
대형사	4.4	5.9	7.1	-0.2	4.1	4.8	24.2	26.9	30.6
중소형사	-6.8	1.7	0.3	18.7	27.5	28.3	3.9	11.5	11.9
외국사	3.7	6.7	3.9	23.0	12.6	17.1	15.1	17.7	17.1
방카사	0.5	-0.3	2.5	64.2	41.8	41.8	7.3	10.8	13.2
전체	1.6	4.7	4.7	11.2	13.0	14.1	17.3	20.7	23.1

주: 1)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당기순이익 = 영업이익+영업외이익+특별계정이익-법인세비용

2) 보험영업이익률 = 보험영업이익 / 영업수익(보험영업수익+투자영업수익)

3) 투자영업이익률 = 투자영업이익 / 영업수익(보험영업수익+투자영업수익)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FY2010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은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비중이 모두 감소한 반면, 방카슈랑스 비중이 크게 증가함.

- 임직원 비중은 FY2009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6.0%p 축소되었으나, FY2007 14.4%, FY2008 17.8%보다는 확대된 21.0%로 나타남.
- 방카슈랑스 비중은 고성장을 기록 중인 생사혼합보험과 생존보험에서의 지속적인 비중 확대로 6.9%p 증가한 45.5%로 나타남.
 - 생명보험 종목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생사혼합보험에서 방카슈랑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FY2009 85.8%에서 FY2010 88.4%로 확대됨.

- 설계사는 변액보험에서 높은 비중을 지속적으로 차지하고 있으나, 방카슈랑스 채널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생사혼합보험과 생존보험에서 비중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1.0%p 축소된 26.1%의 비중을 기록함.
- 대리점 비중은 0.2%p 감소한 6.8%로 나타남.

〈표 16〉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억 원)

구 분	FY2009			FY2010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임 직 원	46.9	14.2	27.0	14.1	11.5	26.2	25.2	21.0
설 계 사	19.5	28.6	27.1	26.5	27.2	29.1	21.8	26.1
대 리 점	5.6	7.7	7.0	7.2	7.7	6.1	6.8	6.8
중 개 사	0.0	0.0	0.0	0.0	0.0	0.0	0.0	0.0
방카슈랑스	27.8	49.1	38.6	51.9	53.1	37.6	45.4	45.5
기 타	0.2	0.3	0.2	0.3	0.4	0.9	0.8	0.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0,990	25,688	96,851	24,407	25,053	44,342	40,993	134,794

주: 합계의 하단 수치는 전체 초회보험료 규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FY2010 4/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모집조직은 전분기에 비해 임직원 수가 증가한 반면, 설계사와 대리점 수가 감소함.

- 임직원 수는 전분기대비 105명 증가한 26,586명으로 나타났으며, 대형3사에서 증가한 반면 중소형사에서 감소함.
- 설계사 수는 전분기에 비해 3,075명 감소하였으며, 이 중 전속설계사는 1,646명 감소하였고 교차설계사는 1,429명 감소함.

- 집단별로 살펴보면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모두 전속설계사와 교차설계사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외국사의 교차설계사 수 감소가 두드러짐.
- 대리점 수는 개인대리점과 법인대리점이 각각 512개, 1개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513개가 감소한 9,846개로 나타남.
- 개인대리점 수는 대형사와 외국사에서 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형3사의 법인대리점수는 오히려 10개 증가함.

〈표 17〉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 분	FY2009			FY2010			
	2/4	3/4	4/4	1/4	2/4	3/4	4/4
임 직 원	27,131	26,541	26,693	26,566	26,230	26,481	26,586
설 계 사	165,852	164,175	162,687	159,512	153,778	149,140	146,065
- 전속	140,796	141,067	140,461	137,945	137,027	133,763	132,117
- 교차	25,056	23,108	22,226	21,567	16,751	15,377	13,948
대 리 점	13,739	13,387	13,244	11,679	10,659	10,359	9,846
- 개인	8,940	8,874	8,702	7,548	7,186	6,876	6,364
- 법인	4,799	4,513	4,542	4,131	3,473	3,483	3,482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손해보험 전체〉

■ FY2010 4/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성보험²⁾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고성장을 유지하고, 자동차보험이 전분기에 이어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7.5% 증가한 13조 2,891억 원으로 나타남.

- 장기성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 중심의 장기손해보험 고성장이 지속된 가운데, 제도적 요인³⁾ 등에 따른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의 수요증가도 이어지면서 전년동기대비 21.0% 증가한 8조 5,787억 원을 기록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경기회복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가 계속되고, 차량 대형화·고급화에 의한 대물배상(대물) 및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 강화 추세도 지속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3.8% 증가한 3조 2,143억 원으로 나타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와 해상보험의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증과 특종보험이 10%를 넘는 성장률을 기록함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7.5% 증가한 1조 4,961억 원으로 나타남.

■ FY2010 4/4분기 말 손해보험 총자산 규모는 일반계정자산이 전분기대비 2.9% 증가하고, 특별계정자산도 전분기대비 13.3% 증가함에 따라 전분기대비 3.3% 증가한 102조 2,151억 원으로 나타남.

- 일반계정자산은 원수보험료 증가세와 양호한 자산 이익률에 힘입어 증가하였고, 특별계정자산은 퇴직연금 호조로 관련 자산이 늘어나면서 증가함.

2) 장기성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을 말함.

3) 퇴직보험 등의 효력기간 만료와 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 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등 제도변화가 있었음.

〈표 18〉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억 원, %)

구 분	FY2009			FY2010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원수보험료	120,115	113,058	438,323	120,829	122,403	146,321	132,891	522,444
	21.1	19.4	16.9	20.8	16.5	21.8	17.5	19.2
- 장기성	76,291	70,894	267,629	75,524	76,673	97,426	85,787	335,411
	33.5	28.3	26.4	30.1	22.9	27.7	21.0	25.3
- 자동차	28,482	28,252	112,224	29,307	30,581	32,103	32,143	124,133
	3.3	6.4	2.6	7.6	8.3	12.7	13.8	10.6
- 일반손해	15,341	13,912	58,470	15,999	15,149	16,792	14,961	62,901
	5.9	8.1	8.7	8.4	4.8	9.5	7.5	7.6
총 자 산	829,558	861,222	861,222	902,218	944,143	989,680	1,022,151	1,022,151
	4.4	3.8	16.4	4.8	4.6	4.8	3.3	18.7

주: 1) 주요 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증감률이며,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장기성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실적을 포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원수보험료 현황〉

1) 장기성보험(장기손해,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 FY2010 4/4분기 장기성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기손해보험이 저축성보험 호조세에 힘입어 성장세를 유지하고,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도 고령화 대비 수요증가와 퇴직연금 활성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큰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년동기대비 21.0% 증가한 8조 5,787억 원을 시현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금리 경쟁력을 기반으로 저축성보험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한 7조 3,551억 원으로 나타났으나, 6분기 동안 계속된 20% 이상의 고성장세는 다소 둔화됨.

- 저축성보험은 계속보험료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초회보험료 급증세가 둔화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41.0% 증가한 1조 6,466억 원을 나타냄.

- 상해·질병보험은 해지율 안정화로 인한 계속보험료 유입과 기저효과 등에 의한 초회보험료의 소폭 회복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각각 15.6%, 11.1% 증가한 1조 9,616억 원과 1조 4,770억 원을 기록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경기회복세와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연금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기대비 33.6% 증가한 6,908억 원을 나타냄.
- 퇴직보험 원수보험료는 제도 종료⁴⁾로 전년동기대비 80.7% 감소한 111억 원으로 나타남.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퇴직보험 제도 종료에 따른 퇴직연금 전환 효과와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설정 의무화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61.7% 증가한 5,218억 원을 실현하여 고성장세를 지속함.

〈표 19〉 장기성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 분		FY2009			FY2010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장기손해	보험료	59,443	63,158	232,988	66,651	69,459	72,151	73,551	281,813
	증가율	24.5	27.0	23.4	25.5	21.2	21.4	16.5	21.0
	구성비	77.9	89.1	87.1	90.7	90.6	74.1	85.7	84.0
개인연금	보험료	4,971	5,169	17,841	5,527	5,818	6,444	6,908	24,697
	증가율	46.5	49.9	38.8	51.3	43.7	29.6	33.6	38.4
	구성비	6.5	7.3	6.7	7.5	7.6	6.6	8.1	7.4
퇴직보험	보험료	6,828	573	8,680	960	273	3,940	111	5,284
	증가율	43.1	-48.4	27.5	26.7	-47.5	-42.3	-80.7	-39.1
	구성비	8.9	0.8	3.2	1.3	0.4	4.0	0.1	1.6
퇴직연금	보험료	5,049	1,994	8,119	2,385	1,123	14,890	5,218	23,616
	증가율	307.9	112.4	144.4	346.4	107.4	194.9	161.7	190.9
	구성비	6.6	2.8	3.0	3.2	1.5	15.3	6.1	7.0
합계	보험료	76,291	70,894	267,629	75,524	76,673	97,426	85,787	335,411
	증가율	33.5	28.3	26.4	30.1	22.9	27.7	21.0	25.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장기성보험 중 차지하는 비중임.

2)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I의 자산연계형 실적을 포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함)」에서 퇴직보험 등의 효력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

〈표 20〉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 분			FY2009			FY2010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원 수 보험료	상 해	보험료	16,414	16,964	64,069	17,671	18,263	18,976	19,616	74,527
		증가율	30.1	25.1	28.9	17.5	16.7	15.6	15.6	16.3
	운전자	보험료	5,160	5,459	20,621	5,571	5,611	5,636	5,719	22,537
		증가율	-0.7	7.6	-1.4	11.2	12.4	9.2	4.8	9.3
	재 물	보험료	4,701	4,836	18,635	5,002	5,240	5,604	5,945	21,791
		증가율	3.6	6.9	2.9	9.9	15.2	19.2	22.9	16.9
	질 병	보험료	13,000	13,294	49,853	13,525	13,914	14,405	14,770	56,614
		증가율	48.4	35.9	47.7	28.0	7.1	10.8	11.1	13.6
	저축성	보험료	9,924	11,676	39,119	14,020	15,515	16,540	16,466	62,541
		증가율	34.7	56.1	32.0	65.3	71.6	66.7	41.0	59.9
	통합형	보험료	10,129	10,335	39,719	10,595	10,624	10,733	10,798	42,749
		증가율	10.4	12.1	9.1	13.6	7.0	6.0	4.5	7.6
	자산 연계형	보험료	117	594	973	267	292	257	239	1,055
		증가율	10.7	469.3	210.5	140.1	93.2	120.5	-59.8	8.5
초 회 보험료	상 해	보험료	350	478	2,266	518	460	517	551	2,046
		증가율	-41.4	-42.1	-4.2	-19.7	-42.0	48.0	15.4	-9.7
	운전자	보험료	210	200	650	127	108	103	201	540
		증가율	103.0	85.0	53.2	4.6	-8.6	-50.8	0.8	-16.9
	재 물	보험료	200	190	692	223	259	302	314	1,098
		증가율	34.2	15.0	11.2	29.6	98.6	51.6	65.0	58.7
	질 병	보험료	283	247	1,796	239	320	294	345	1,197
		증가율	-42.8	-65.7	1.9	-53.3	-57.5	3.6	39.8	-33.3
	저축성	보험료	1,095	1,716	5,056	2,971	3,477	3,202	2,574	12,224
		증가율	137.2	163.4	110.3	172.3	201.5	192.4	50.0	141.8
	통합형	보험료	110	137	750	104	106	97	102	409
		증가율	-27.5	-37.3	-11.9	-42.4	-67.1	-11.9	-25.7	-45.5
	자산 연계형	보험료	30	332	362	-7	-	0	0	-7
		증가율	-	-	-	-	-	-100.6	-100.0	-101.9
계 속 보험료	상 해	보험료	2,278	3,300	11,572	4,176	4,730	4,516	4,087	17,509
		증가율	16.4	22.8	37.3	53.3	44.6	98.3	23.8	51.3
	운전자	보험료	16,065	16,487	61,803	17,153	17,804	18,458	19,065	72,480
		증가율	33.0	29.4	31.3	19.2	19.8	14.9	15.6	17.3
	재 물	보험료	4,949	5,259	19,971	5,444	5,503	5,533	5,518	21,997
		증가율	-2.8	5.9	-2.5	11.4	12.9	11.8	4.9	10.1
	질 병	보험료	4,502	4,646	17,943	4,779	4,981	5,302	5,631	20,692
		증가율	2.6	6.6	2.6	9.2	12.8	17.8	21.2	15.3
	저축성	보험료	12,716	13,047	48,057	13,286	13,594	14,111	14,425	55,417
		증가율	55.0	43.9	49.0	32.1	11.1	11.0	10.6	15.3
	통합형	보험료	8,829	9,960	34,063	11,049	12,038	13,338	13,892	50,317
		증가율	27.8	45.9	25.1	49.6	52.6	51.1	39.5	47.7
	자산 연계형	보험료	10,019	10,198	38,969	10,491	10,518	10,636	10,696	42,340
		증가율	11.0	13.3	9.6	14.7	9.5	6.2	4.9	8.7
소 계		보험료	87	262	611	274	292	258	239	1,062
		증가율	-17.7	150.8	94.9	146.0	93.4	196.8	-8.8	73.9
소 계		보험료	57,167	59,858	221,416	62,475	64,729	67,636	69,464	264,304
		증가율	24.8	27.2	22.7	24.0	19.8	18.3	16.0	19.4

주: 기간별 수치는 분기별 실적이며, 자산연계형은 FY09 3/4분기부터 초회와 계속보험료로 구분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0 4/4분기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상해·질병보험이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저축성보험이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년동기대비 23.8% 증가한 4,087억 원을 기록함.

-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증가율은 FY2010 4/4분기에 50.0%를 기록하여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나, 이전 5분기 증가율이 100%를 상회하였던 것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임.
- 상해·질병보험 초회보험료는 상품표준화⁵⁾로 인한 FY2009 3/4분기 큰 폭의 감소 이후 소폭의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4/4분기 기저효과가 존재하기는 하나 전년동기대비 각각 15.4%, 39.8% 증가함.
- 재물보험 초회보험료는 화보법 개정⁶⁾ 효과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65.0% 증가하면서 고성장세를 지속함.

■ FY2010 4/4분기 누적 기준 장기손해보험 해지율은 효력상실액 및 해약액 감소와 보유계약액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2.9%p 감소한 12.9%를 기록함.

〈표 21〉 장기손해보험 해지율

(단위: %)

구 분	FY2009			FY2010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상 해	14.1	16.9	16.9	3.8	6.8	9.7	12.4	12.4
운전자	12.7	15.3	15.3	4.1	7.1	10.3	14.3	14.3
재 물	10.7	13.5	13.5	5.0	8.6	12.1	14.8	14.8
질 병	12.6	16.0	16.0	3.8	6.7	9.4	11.9	11.9
저축성	13.4	17.0	17.0	4.6	8.4	11.8	14.7	14.7
통합형	10.9	13.2	13.2	3.0	5.3	7.7	9.9	9.9
계	12.8	15.8	15.8	4.0	7.1	10.1	12.9	12.9

주: 1) 해지율=(효력상실액+해약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2) 기간별 수치는 누계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5) 2009년 10월 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상품표준화 시행으로 보장한도 축소가 이루어졌으며,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보험가입을 원하는 수요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남.

6) 「화재로 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이하 '화보법'이라 함)」 개정으로 2011년 1월부터 의무가입대상 특수건물의 범위가 확대됨.

- 해약상실액 및 해약액은 재물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신계약 급증으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38.0%, 5.0% 증가하였으나, 기타 나머지 종목에서 모두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8.8% 감소함.
- 보유계약액은 장기손해보험 호조세가 지속되고, 통합형 보험을 제외한 전종목이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전년동기대비 18.4% 증가함.

2) 자동차보험

■ FY2010 4/4분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와 임의 담보⁷⁾ 확대 추세로 전년동기대비 13.8% 증가한 3조 2,143억 원을 시현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감.

- 자동차보험은 경기회복으로 인하여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수입차와 대형차의 비중 증가 등으로 대물배상(대물) 및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 확대가 이어지면서 전년동기대비 13.8%의 고성장을 기록함.

■ 담보별로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I 원수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한 8,545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종합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8.1% 증가한 2조 2,512억 원을 시현함.

- 대인배상 I 원수보험료는 개인용 물건이 전년동기대비 3.3% 증가하고, 업무용 물건도 전년동기대비 4.1% 늘어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함.
- 종합보험 원수보험료는 차량 대형화 및 고급화로 대물배상(대물)과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의 원수보험료가 각각 전년동기대비 17.3%, 26.8%로 급증하면서 18.1%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부보가 의무화된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제외하고, 임의 가입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을 의미함.

〈표 22〉 자동차보험 담보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 분		FY2009			FY2010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대인 I		8,632	8,245	34,210	8,539	8,730	8,798	8,545	34,613
		-4.0	-2.1	-4.1	0.0	-0.8	1.9	3.6	1.2
종합 보험	대인 II	3,158	3,091	12,386	3,187	3,249	3,266	3,211	12,914
		4.5	6.6	4.1	5.8	4.0	3.4	3.9	4.3
	대물	7,573	7,548	29,481	7,839	8,189	8,801	8,851	33,679
		9.2	11.6	9.0	12.0	11.2	16.2	17.3	14.2
	자차	6,807	7,132	27,082	7,393	8,003	8,735	9,042	33,173
		2.9	12.4	4.1	14.2	20.0	28.3	26.8	22.5
	자손	1,017	1,017	3,988	1,054	1,078	1,137	1,125	4,394
		36.6	8.6	3.6	10.7	7.6	11.7	10.7	10.2
	무보험	283	274	1,110	280	288	290	282	1,139
		1.2	2.9	1.3	3.8	1.6	2.4	2.8	2.6
	소 계	18,839	19,062	74,047	19,752	20,807	22,229	22,512	85,299
		7.0	10.8	5.9	11.6	12.8	18.0	18.1	15.2
외화표시		35	21	108	27	20	34	20	102
		-18.6	-4.1	-14.6	-16.4	-0.9	-2.0	-0.6	-5.9
이륜자동차		119	110	510	157	145	138	128	569
		15.3	13.8	14.4	9.5	5.8	16.1	16.5	11.6
기타		857	814	3,349	831	878	904	938	3,552
		2.5	0.7	3.2	0.8	3.0	5.4	15.2	6.0
합계		28,482	28,252	112,224	29,307	30,581	32,103	32,143	124,134
		3.3	6.4	2.6	7.6	8.3	12.7	13.8	10.6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0 4/4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정부와 손해보험업계의 손해율 안정을 위한 노력⁸⁾과 고유가에 따른 차량 운행 감소에 힘입어 거의 모든 담보에서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5%p 낮아진 77.1%를 기록함.

8)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2010년 12월 29일 발표함.

- 대인배상 I 손해율은 요율인하로 경과보험료가 빠르게 늘지 않았으나, 개인용·업무용 차량의 발생손해액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1%p 하락한 65.9%를 나타냄.
- 종합보험 손해율은 발생손해액 증가세가 둔화되고, 경과보험료 증가세가 확대됨에 따라 자기차량손해(자차)를 비롯한 대부분의 담보에서 손해율이 전분기대비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8%p 하락한 81.2%를 기록함.

〈표 23〉 자동차보험 담보별 손해율

(단위: 억 원)

구 분		FY2009			FY2010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대인 I		75.7	69.0	71.1	71.4	75.1	81.1	65.9	73.5
종합보험	대인 II	68.7	68.0	66.9	70.5	74.1	74.5	80.0	74.6
	대물	86.7	83.2	81.3	83.1	87.2	93.7	80.7	86.1
	자차	81.8	92.3	81.6	78.3	92.1	90.4	84.0	86.5
	자손	74.1	78.4	70.9	74.8	75.4	82.3	77.9	77.2
	무보험	47.3	30.1	40.5	17.3	46.3	33.3	42.9	34.6
	소계	80.5	83.0	77.8	77.8	85.7	88.0	81.2	83.2
외화표시		52.9	52.2	54.4	64.7	81.9	67.5	71.7	71.5
이륜자동차		85.7	68.6	85.5	97.3	72.3	98.0	64.4	85.4
기타		79.4	81.1	75.7	67.1	86.0	82.9	84.4	81.0
합계		79.0	78.6	75.7	75.7	82.5	85.9	77.1	80.3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손해율임.

2) 손해율은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임.

3)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4)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일반손해보험

- FY2010 4/4분기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 및 해상보험이 감소한 반면, 보증 및 특종보험이 성장하여 전년동기대비 7.5% 증가한 1조 4,961억 원을 기록함.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2011년 1월부터 「화보법」 개정으로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의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이탈 등의 영향으로 수요증가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전년동기대비 3.2% 감소한 657억 원을 기록함.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적하보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선박보험의 감소세가 이어짐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2.1% 감소한 1,728억 원을 나타냄.
 - 적하보험은 기저효과 및 경기회복으로 인한 물동량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6.3% 증가한 788억 원을 기록한 반면, 선박보험은 환율하락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4.5% 감소한 619억 원을 시현함.

〈표 24〉 일반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 분		FY2009			FY2010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화 재	보험료	798	679	2,763	622	602	779	657	2,660
	증가율	0.7	-4.3	-2.5	-5.0	-4.7	-2.4	-3.2	-3.7
	구성비	5.2	4.9	4.7	3.9	4.0	4.6	4.4	4.2
해 상	보험료	1,858	1,967	8,049	2,084	1,970	1,939	1,728	7,721
	증가율	-27.5	5.5	-5.4	-5.9	-2.0	4.4	-12.1	-4.1
	구성비	12.1	14.1	13.8	13.0	13.0	11.5	11.5	12.3
보 증	보험료	3,106	3,126	12,287	3,194	2,978	3,417	3,483	13,074
	증가율	10.1	5.4	6.6	0.9	3.1	10.0	11.4	6.4
	구성비	20.2	22.5	21.0	20.0	19.7	20.4	23.3	20.8
특 종	보험료	8,919	7,606	33,293	9,665	9,030	9,955	8,469	37,120
	증가율	16.3	12.6	14.3	15.8	7.2	11.6	11.4	11.5
	구성비	58.1	54.7	56.9	60.4	59.6	59.3	56.6	59.0
해 외 원보험	보험료	661	534	2,078	433	568	702	623	2,326
	증가율	3.8	-7.9	16.7	13.1	13.6	6.2	16.6	11.9
	구성비	4.3	3.8	3.6	2.7	3.7	4.2	4.2	3.7
합계	보험료	15,341	13,912	58,470	15,999	15,149	16,792	14,961	62,901
	증가율	5.9	8.1	8.7	8.4	4.8	9.5	7.5	7.6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은 권원보험의 원수보험료를 포함함.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1.4% 증가한 3,483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전반기 저성장세와는 달리 하반기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냄.
 - 보증보험은 통신요금 신용보험이 성장세를 나타내고, 이행 보증보험 수요도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고성장함.
- 특종보험 원수보험료는 기술보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상해 및 종합보험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1.4% 증가한 8,469억 원을 나타냄.
 - 기술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경기회복으로 기계 및 조립보험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65.0%, 36.3% 증가하였으나, 건설보험이 공공부문 건설투자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23.6%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3.1% 감소한 755억 원을 기록함.
 - 상해보험의 경우 의료비 상승 및 근로자 복지확대 추세 등의 영향으로 단체상해보험과 일반상해보험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20.9%, 19.6% 증가하였고,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여행자보험도 12.0%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18.8% 증가한 3,129억 원의 원수보험료를 기록함.
 - 종합보험의 경우도 하나의 보험으로 다수의 위험 보장이라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비중이 큰 기업성 물건이 전년동기대비 15.7% 증가하고 가계성 물건도 10.1% 증가하여 전체 15.1% 증가한 2,331억 원의 원수보험료를 시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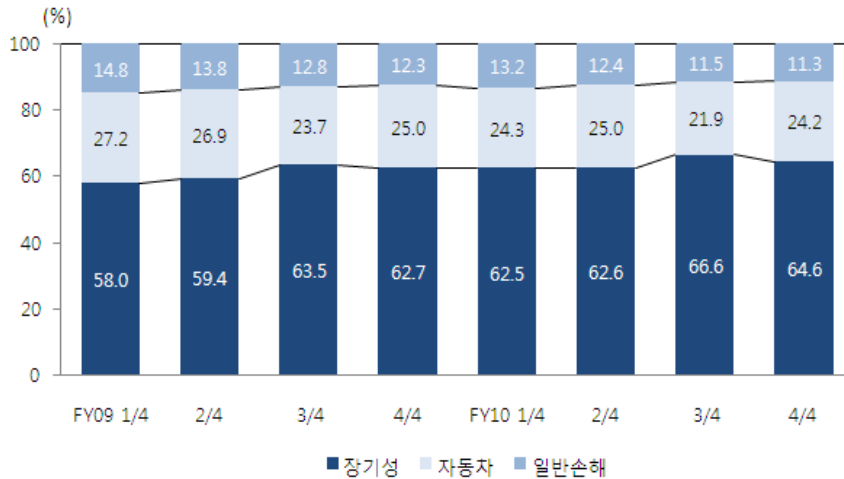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 FY2010 4/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종목별 구성비는 성장세 둔화에도 여전히 고성장하고 있는 장기성보험의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확대된 반면,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비중은 축소됨.

- 장기성보험 비중은 노후소득 관심 증가에 따른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호조세와 저축성 보험 중심의 장기손해보험 고성장으로 전년동기대비 1.9%p 확대된 64.6%을 나타냄.
- 자동차보험 비중은 경기회복에 의한 성장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장기성보험의 고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8%p 감소한 24.2%를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 비중은 경기회복으로 보증 및 특종보험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양호한 원수보험료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타종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낮아 전년 동기대비 1.0%p 축소된 11.3%를 나타냄.

〈그림 7〉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10 4/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은 장기성 손해보험의 고성장으로 상위 4사의 점유율이 확대된 반면, 국내 기타 국내사, 전업사, 외국사, 온라인사의 비중은 축소됨.

- 상위 4사 시장점유율은 전통적으로 강세인 장기손해보험과 연금부문 호조세로 전년 동기대비 1.3%p 증가한 70.3%로 나타남.
- 기타 국내사는 전년동기대비 13.8%의 양호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상위 4사의 고성장으로 인해 0.8%p 감소한 24.2%의 점유율을 나타냄.
- 상위 4사와 기타 국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낮은 전업사와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0.2%p, 0.4%p 감소한 2.6%, 2.8%를 기록하였으며, 온라인사도 전년동기대비 0.5%p 감소한 2.8%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냄.

■ FY2010 4/4분기 허핀달지수는 상위 4사의 전년동기대비 시장점유율 확대로 0.0024p 증가한 0.1461로 나타남.

〈표 25〉 손해보험시장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단위: %)

구 분	FY2009			FY2010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상위 4사	69.3	69.0	68.8	69.1	69.3	70.8	70.3	69.9
국내 기타사	25.2	25.0	25.2	25.2	25.1	24.3	24.2	24.7
전업사	2.6	2.8	2.8	2.7	2.4	2.3	2.6	2.5
외국사	2.9	3.2	3.2	3.0	3.2	2.6	2.8	2.9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온라인사	3.0	3.3	3.2	3.0	3.2	2.6	2.8	2.9
허핀달지수	0.1440	0.1437	0.1436	0.1459	0.1462	0.1500	0.1461	0.1471

주: 1) 국내 기타사에는 국내 중소형사 뿐만 아니라 국내 온라인사가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국내 및 외국계 재보사를 포함함. 외국사는 차티스(舊 AIG), ACE, 페더럴,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미쓰이스미토모뿐만 아니라 AXA 손보, 에르고다움다이렉트와 같은 외국계 온라인사도 포함되었음. 온라인사는 주로 자동차보험에 주력하는 더케이 손보, 현대하이카, 에르고다움다이렉트, AXA손보 실적을 따로 구분하여 파악한 것임.

2) 허핀달지수는 각 사 시장점유율을 제공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3) 원수보험료 실적은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I, II를 모두 포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율과 합산비율〉

■ FY2010 4/4분기 손해보험 손해율은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개선으로 전년 동기대비 0.4%p 하락한 77.8%를 나타냄.

-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발생손해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매출 확대에 의한 경과보험료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0%p 하락한 80.5%를 시현함.
-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성장세 확대에 경과보험료가 증가하고, 손해율 개선을 위한 정부 및 손해보험업계의 노력과 고유가로 인한 차량 운행 감소 등에 힘입어 발생손해액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5%p 낮아진 77.1%를 기록함.

■ FY2010 4/4분기 사업비율은 장기손해보험 사업비율 소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사업비율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0.5%p 낮아진 22.3%를 나타냄.

○ 장기손해보험 사업비율은 신계약 증가로 순사업비 증가율이 보유보험료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3%p 높아진 17.8%를 기록함.

○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은 자동차보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보유보험료 증가율이 순사업비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7%p 하락한 30.0%를 시현함.

■ FY2010 4/4분기 합산비율은 손해율과 사업비율의 소폭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0.9%p 낮아진 100.1%를 기록함.

○ 합산비율의 경우 사업비율이 자동차보험 사업비율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0.5%p 낮아지고, 손해율이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으로 0.4%p 하락함에 따라 0.9%p 하락함.

〈표 26〉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

(단위: %)

구 분		FY2009			FY2010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손해율	장기손해보험*	80.1	81.5	79.8	81.3	81.3	81.6	80.5	81.2
	자동차보험	79.0	78.6	75.7	75.7	82.5	85.9	77.1	80.3
	화재보험	54.3	39.9	32.0	21.2	50.1	-7.2	300.2	38.8
	해상보험	85.4	81.9	77.4	36.1	55.2	143.6	109.6	83.7
	보증보험	31.5	88.0	58.0	-98.2	70.9	27.8	33.8	9.2
	특종보험	63.0	57.4	62.4	52.8	66.4	62.2	66.4	62.2
	해외원보험	29.0	35.2	32.7	42.6	36.1	43.8	41.9	41.1
	해외수재보험	60.2	59.3	59.3	71.8	51.1	82.3	69.9	68.4
	전 체	76.7	78.2	76.0	72.8	79.3	80.2	77.8	77.6
사업비율		22.5	22.8	23.8	21.9	22.3	21.7	22.3	22.0
합산비율		99.1	101.0	99.8	94.6	101.6	101.9	100.1	99.6

주: 1)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치임.

2)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사업비율=순사업비/보유보험료,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

3) *는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10 4/4분기 손해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이익 적자에도 불구하고 투자영업이익이 흑자를 나타냄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99.8% 증가한 6,766억 원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연간 당기순이익은 31.8% 증가한 2조 314억 원 흑자로 나타남.

〈표 27〉 손해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억 원)

구 분		FY2009			FY2010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총 수 익	보험영업	109,467	108,281	408,165	111,904	117,324	121,779	125,138	476,145
	투자영업	10,272	10,357	42,559	11,239	11,210	12,610	12,336	47,396
	기타	12,688	3,885	21,181	4,901	2,883	13,794	11,876	33,455
	소계	132,427	122,523	471,905	128,044	131,418	148,183	149,351	556,996
총 비 용	보험영업	111,301	112,353	417,530	109,492	121,789	127,437	127,308	486,025
	투자영업	2,461	2,688	11,146	2,247	2,013	2,831	2,959	10,050
	기 타	13,123	4,095	22,515	4,719	2,365	14,105	12,319	33,508
	소계	126,884	119,137	451,192	116,458	126,167	144,373	142,585	529,583
수 지 차	보험영업	-1,834	-4,072	-9,365	2,412	-4,464	-5,658	-2,169	-9,879
	투자영업	7,811	7,668	31,413	8,992	9,197	9,778	9,377	37,345
	기타	-435	-210	-1,335	182	518	-311	-442	-53
	소계	5,542	3,386	20,713	11,586	5,251	3,810	6,766	27,413
법인세		1,461	1,005	5,299	2,717	1,315	1,195	1,871	7,098
당기순이익		4,081	2,381	15,414	8,870	3,936	2,614	4,895	20,314

주: 기간별 수치는 퇴직보험과 퇴직연금을 제외한 실적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0 4/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보험영업수익은 장기손해보험 고성장세 지속과 퇴직연금과 자동차보험 성장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15.6% 증가하였으며, 지급보험금과 사업비 증가로 보험영업비용이 전년동기대비 16.4% 증가함에 따라 보험영업수지는 2,16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함.
- FY2010 4/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투자영업이익의 경우, 유가증권 처분 및 평가손실 등으로 투자영업비용은 전년동기대비 10.1% 증가하였으나, 이자수익 및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에 따라 투자영업수익이 전년동기대비 19.1% 증가하여 투자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2.3% 증가한 9,377억 원의 흑자를 기록함.

〈자산운용〉

- FY2010 4/4분기 일반계정 자산에서 각 운용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유가증권 53.4%, 대출채권 18.4%, 부동산 5.7%, 현금과 예금 5.4% 순임.⁹⁾
 - 유가증권 구성비는 매도가능증권 44.7%, 단기매매증권 4.8%, 만기보유증권 3.0%, 투자주식 0.9% 순으로 나타남.
- FY2010 4/4분기 손해보험회사 운용자산 이익률은 유가증권 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동일한 수준을 나타낸 가운데, 현금과 예금 이익률이 상승하였으나 대출채권 이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전년동기와 동일한 5.1%를 나타냄.
 -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 이익률이 채권과 수익증권 이익률 상승에 힘입어 0.4%p 상승한 5.8%를 기록하였으나, 단기매매증권과 만기보유증권 이익률이 주식과 채권 등의 이익률 하락으로 각각 1.9%p, 0.7%p 낮아진 4.6%, 5.4%를 나타내 전년동기와 동일한 5.6%의 이익률을 기록함.
 - 현금과 예금 이익률은 1.5%p 상승한 3.1%를 나타냈으며, 대출채권 이익률은 0.5%p 하락한 5.9%를 나타냄.

9) 전체 일반계정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준이며, 운용자산 항목별 비중만을 포함시켰고 비운용자산 비중은 논의에서 제외함.

■ FY2010 4/4분기 운용자산과 비운용자산을 포괄한 일반계정자산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1%p 높아진 4.3%로 나타남.

〈표 20〉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구 분	FY2009		FY2010							
	4/4		1/4		2/4		3/4		4/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현 금 과 예 금	5.1	1.6	5.3	5.0	5.4	3.4	5.1	3.4	5.4	3.1
유 가 증 권	52.9	5.6	53.3	5.4	53.8	5.5	54.0	5.7	53.4	5.6
○ 단기매매증권	3.0	6.5	3.1	2.9	4.6	5.0	3.9	5.5	4.8	4.6
- 주 식	0.2	38.5	0.3	2.0	0.3	10.0	0.4	14.2	0.3	14.9
- 채 권 등	0.4	7.0	0.4	7.7	0.6	9.9	0.8	4.5	1.3	3.6
- 수익증권	2.4	4.9	2.4	2.1	3.6	3.7	2.7	4.7	3.2	4.0
○ 매도가능증권	44.6	5.4	44.8	5.4	44.0	5.5	46.3	5.7	44.7	5.8
- 주 식	4.9	9.7	4.3	6.5	4.3	6.6	4.6	7.5	4.5	7.6
- 채 권 등	28.5	5.6	29.0	5.2	28.3	5.4	30.7	5.5	29.6	5.5
- 수익증권	11.2	3.1	11.5	5.5	11.4	5.2	10.9	5.7	10.5	5.7
○ 만기보유증권	4.0	6.1	4.2	5.7	4.0	5.5	2.6	6.2	3.0	5.4
- 채 권 등	3.8	6.4	3.9	5.6	3.7	5.7	2.4	6.3	2.8	5.5
- 수익증권	0.2	2.6	0.3	7.3	0.3	2.5	0.2	4.8	0.2	3.6
○ 투자주식	1.3	5.5	1.3	7.1	1.3	6.0	1.3	4.1	0.9	2.0
대 출 채 권	18.5	6.4	18.0	6.2	18.0	6.1	18.1	6.1	18.4	5.9
부 동 산	6.2	0.9	6.0	1.3	5.9	1.1	5.8	0.9	5.7	0.9
운 용 자 산 계	82.7	5.1	82.6	5.2	83.1	5.1	83.0	5.3	83.0	5.1
비 운 용 자 산	17.3	0.0	17.4	0.0	16.9	0.2	17.0	0.1	17.0	0.1
일반계정 자산계	100.0	4.2	100.0	4.3	100.0	4.3	100.0	4.4	100.0	4.3
일 반 계 정 자 산	96.2	4.2	96.3	4.3	96.4	4.3	96.7	4.4	96.4	4.3
특 별 계 정 자 산	3.8	-	3.7	-	3.6	-	3.3	-	3.6	-
총 자 산	100.0	4.0	100.0	4.1	100.0	4.1	100.0	4.2	100.0	4.0
총 자 산 규 모	861,222		902,218		944,143		989,680		1,022,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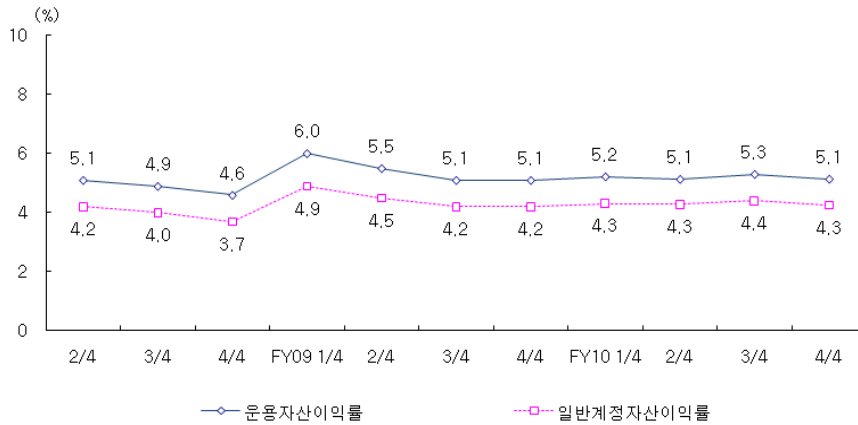
주: 1) 운용자산 이익률=(운용자산손익×2)/(기초자산+기말자산-운용자산손익)×연기준환산

2) 투자주식은 「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임.

3)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 운용자산과 일반계정자산 이익률 추이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 비운용자산까지 포함한 것임.

2) 운용자산 이익률=(운용자산손익×2)/(기초자산+기말자산-운용자산손익)×연기준환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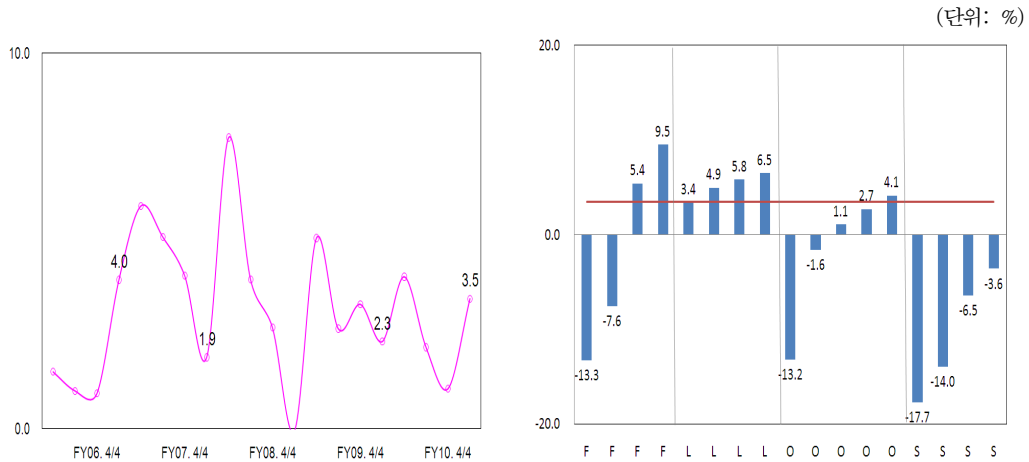
1) 자본이익률(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¹⁰⁾

■ FY2010 4/4분기 손해보험회사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2%p 상승한 3.5%를 기록함.

-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를 보게 되면, 대형사는 모두 양(+)의 자본이익률을 기록한 가운데, 대부분의 대형사가 산업평균수준(3.5%)을 상회함.
- 반면, 외국사 일부, 중소형사 대부분, 전업사 모두는 당기순손실로 음(-)의 자본이익률을 기록함.

10)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R_t / E_t^o :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을 매출이익률(R_t / S_t :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자산회전율(S_t / A_t^o : 기중자산대비 매출액), 레버리지비율(A_t^o / E_t^o : 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로 분해하여 분석하며, 분석대상은 국내외 17개 회사임.

〈그림 9〉 손해보험회사 자본이익률 현황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0 4/4분기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임.

2)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3)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 FY2010 4/4분기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자본이익률 평균은 대형사와 중소형사가 양(+)의 자본이익률을 기록한 반면, 외국사와 전업사는 음(-)의 자본이익률을 기록함.

○ 대형사의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0%p 상승한 4.3%를 기록하였고, 중소형사는 0.9%p 상승한 1.4%를 기록함.

〈표 29〉 손해보험회사 자본이익률 추이

(단위: %)

구 분	FY2009			FY2010				
	3/4	4/4	연간 ²⁾	1/4	2/4	3/4	4/4	연간 ²⁾
대형사	3.6	3.3	16.8	4.2	2.8	2.6	4.3	14.8
중소형사	4.8	0.5	11.2	4.5	1.6	-4.2	1.4	3.1
외국사	-7.2	-15.7	-37.7	-4.9	4.4	-2.0	-2.2	-1.8
전업사	-7.1	-5.6	-10.4	0.3	-15.3	-17.0	-8.9	-31.4
국내외 17개사	3.3	2.3	13.9	4.0	2.2	1.1	3.5	11.3

주: 1) 분기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2) 연간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년도 말 자본 + 당기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한편, 외국사는 -2.2%의 자본이익률을 기록하였으나, 전년동기보다는 13.5%p 상승하여 자본이익률이 개선됨.
- 전업사의 자본이익률은 -8.9%로 전년동기대비 3.3%p 하락하였으나, 전분기보다는 다소 개선됨.

■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 변화 원인을 레버리지비율, 자산회전율, 매출이익률 측면에서 살펴보면, 매출이익률과 레버리지비율 변화가 자본이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동기대비 자본이익률의 경우 전업사는 매출손실률 악화와 레버리지비율 상승으로 자본이익률이 하락한 반면, 대형사는 매출이익률 개선으로, 그리고 중소형사와 외국사는 매출이익률 개선과 레버리지비율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자본이익률이 상승함.
- 전분기대비 기준으로는 대형사는 매출이익률 상승이, 중소형사는 레버리지비율과 매출이익률 상승으로 자본이익률이 상승한 반면, 외국사는 음(-)의 매출이익률(즉 매출손실률) 악화에 레버리지비율까지 상승하면서 자본이익률이 하락함.
- 전업사는 매출손실률이 완화되어 전분기대비 자본이익률이 상승함.

〈표 30〉 손해보험회사 자본이익률 분해

(단위: 배, %)

구 분	레버리지비율			자산회전율			매출이익률		
	FY2009 4/4	FY2010 3/4	FY2010 4/4	FY2009 4/4	FY2010 3/4	FY2010 4/4	FY2009 4/4	FY2010 3/4	FY2010 4/4
대형사	7.1	7.1	7.1	13.8	14.0	13.7	3.3	2.6	4.4
중소형사	10.8	11.3	12.8	16.6	16.0	15.6	0.3	-2.3	0.7
외국사	4.1	4.2	4.4	24.5	25.9	25.9	-15.5	-1.8	-1.9
전업사	4.3	5.3	4.9	21.5	21.9	21.3	-6.0	-14.8	-8.6
국내외 17개사	7.6	7.6	7.8	14.6	14.6	14.3	2.1	1.0	3.1

주: 1) 레버리지비율 = 기중자산 / 기중자본

2)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3)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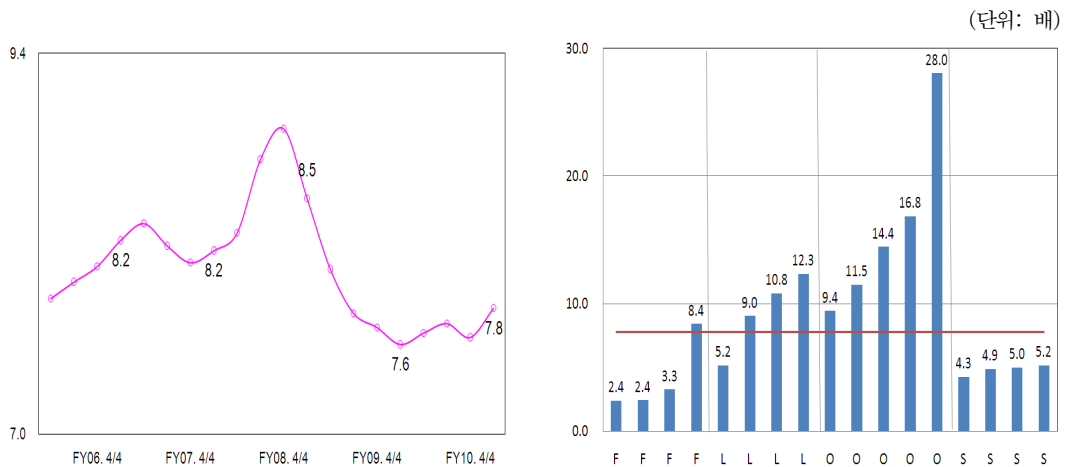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① 레버리지비율(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

■ FY2010 4/4분기 손해보험회사 레버리지비율은 7.8배로 전년동기 및 전분기에 비해 상승함.

- 손해보험 회사별 레버리지비율 분포를 살펴보면, 중소형사 및 대다수 대형사가 산업 평균수준(7.8배)을 상회한 반면, 외국사 및 전업사는 하회함.

〈그림 10〉 손해보험회사 레버리지비율 현황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0 4/4분기 회사별 레버리지비율 분포임.

2)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3) 회사별 레버리지비율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레버리지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레버리지비율 추이를 보게 되면, 중소형사와 외국사는 전분기대비 레버리지비율이 상승하였으나, 전업사는 하락함.

- 특히, 중소형사의 경우 FY2009 4/4분기 이후 레버리지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 31〉 손해보험회사 레버리지비율 추이

(단위: 배)

구 분	FY2009			FY2010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대형사	7.3	7.1	7.7	7.2	7.2	7.1	7.1	7.4
중소형사	10.8	10.8	11.5	11.1	11.2	11.3	12.8	12.8
외국사	4.0	4.1	3.9	4.3	4.2	4.2	4.4	4.4
전업사	4.2	4.3	4.4	4.5	5.0	5.3	4.9	4.5
국내외 17개사	7.7	7.6	8.1	7.6	7.7	7.6	7.8	8.0

주: 레버리지비율 = 기중자산 / 기중자본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중소형사의 전분기대비 자본 감소와 자산 증가가 산업전체 레버리지비율 상승을 견인함.

○ 중소형사 및 외국사의 경우 자산증가율이 자본증가율보다 크게 나타나 레버리지비율이 전분기대비 상승한 반면, 전업사의 경우 자본증가율이 자산증가율보다 크게 나타나 전분기대비 하락함.

〈표 32〉 FY2010 4/4분기 손해보험회사 자산 및 자본증가율

(단위: %)

구 분	기중자산증가율 ^{주)}		기중자본증가율 ^{주)}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대형사	19.5	3.7	19.7	2.8
중소형사	23.8	4.3	5.1	-7.2
외국사	10.3	2.1	3.8	-1.4
전업사	10.5	2.2	-1.2	10.8
국내외 17개사	20.2	3.8	16.7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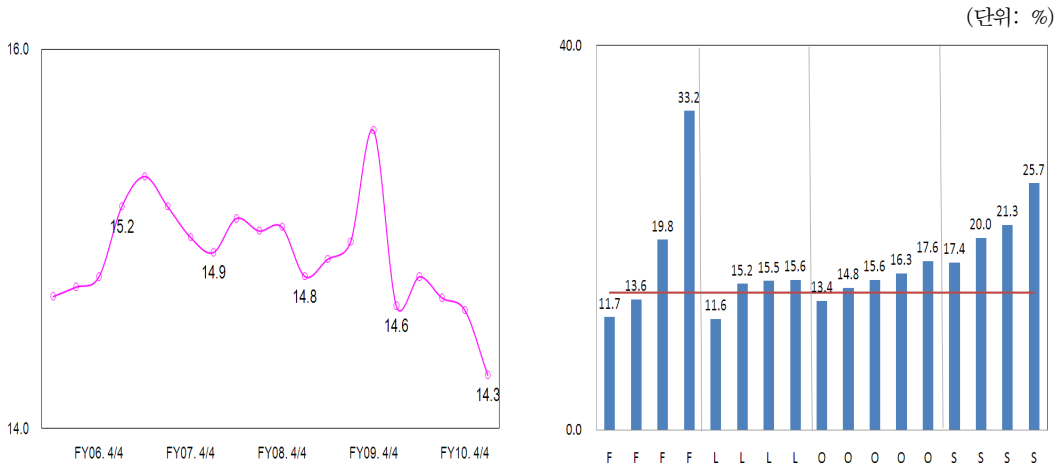
주: 손해보험회사의 자산 및 자본증가율은 국내외 17개사를 대상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② 자산회전율(기중자산대비 매출액)

■ FY2010 4/4분기 손해보험회사 자산회전율은 FY2010 1/4분기 이후 하락하고 있으며, 전년동기에 비해서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 회사별 자산회전율 분포를 보면,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경우 산업집계수준(14.3%)에 머무르고 있으며, 전업사와 일부 외국사는 산업평균을 상회함.

〈그림 11〉 손해보험회사 자산회전율 현황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0 4/4분기 회사별 자산회전율 분포임.

2)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3) 회사별 자산회전율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산회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자산회전율을 보험영업회전율과 투자영업회전율로 구분해 보면, 주로 보험영업회전율 하락이 자산회전율 하락의 주요인으로 나타남.

-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는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 모두 자산회전율이 하락한 가운데, 외국사의 경우 보험영업회전율이 1.4%p 상승하면서 자산회전율도 상승함.
- 한편, 전분기대비 기준으로 대형사의 경우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회전율 모두가 하락하였고, 중소형사와 전업사의 경우 보험영업회전율이 하락하면서 자산회전율도 하락함.

〈표 33〉 손해보험회사 자산회전율 분해

(단위: %)

구 분	자산회전율			보험영업회전율			투자영업회전율		
	FY2009 4/4	FY2010 3/4	FY2010 4/4	FY2009 4/4	FY2010 3/4	FY2010 4/4	FY2009 4/4	FY2010 3/4	FY2010 4/4
대형사	13.8	14.0	13.7	12.5	12.5	12.4	1.3	1.5	1.3
중소형사	16.6	16.0	15.6	15.4	14.7	14.2	1.2	1.3	1.3
외국사	24.5	25.9	25.9	23.8	25.2	25.2	0.7	0.7	0.7
전업사	21.5	21.9	21.3	20.3	20.9	20.3	1.2	1.0	1.0
국내외 17개사	14.6	14.6	14.3	13.4	13.2	13.0	1.3	1.4	1.3

주: 1)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2) 보험영업회전율 = 보험영업수익 / 기중자산

3) 투자영업회전율 = 투자영업수익 / 기중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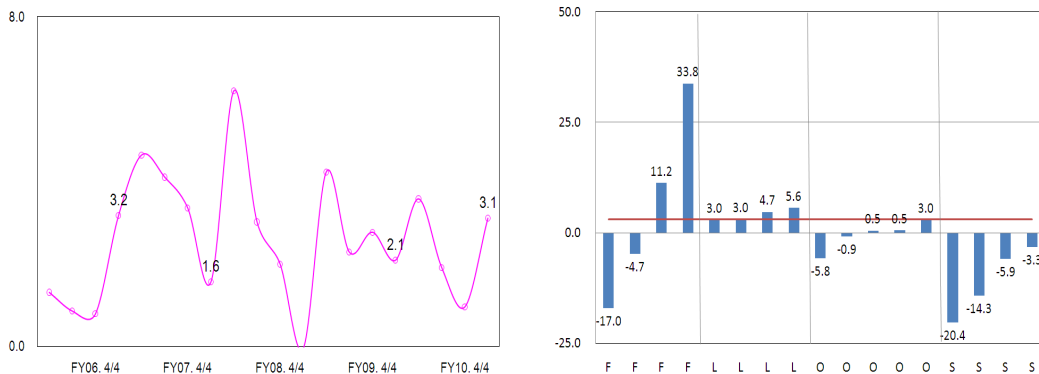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③ 매출이익률(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 FY2010 4/4분기 손해보험회사 매출이익률은 3.1%로 나타나 전년동기대비 1.0%p 상승, 전분기대비 2.1%p 상승함.

〈그림 12〉 손해보험회사 매출이익률 현황

(단위: %)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0 4/4분기 회사별 매출이익률 분포임.

2)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기업사, 전업사를 의미함.

3) 회사별 매출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매출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 손해보험 회사별 매출이익률 분포를 살펴보면, 일부 외국사와 대형사의 경우 산업평균수준(3.1%)을 상회하고 있으나, 중소형사 및 전업사의 경우 산업평균수준을 하회함.

■ 산업평균수준의 매출이익률을 보험영업이익률과 투자영업이익률로 구분해 보면, 주로 보험영업이익률이 개선되면서 매출이익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손해보험회사 그룹별로는 성과 차이가 존재함.

-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경우 전년동기에 비해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이익률이 개선되면서 매출이익률이 각각 1.1%p, 0.4%p 상승하였고, 전분기대비로는 투자영업이익률 개선효과가 두드러지면서 각각 1.8%p, 3.0%p 상승함.
- 한편, 외국사의 경우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보험영업이익률이 개선되면서 매출이익률이 13.6%p 상승하였으나, 전분기대비 기준으로는 보험영업이익률이 악화됨에 따라 0.1%p 하락함.
- 반면, 전업사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이익률 모두 악화되어 매출이익률이 2.6%p 하락한 가운데, 전분기대비로도 보험영업이익률이 악화되면서 3.8%p 하락함.

〈표 34〉 손해보험회사 매출이익률 분해

(단위: %)

구 분	매출이익률			보험영업			투자영업		
	FY2009 4/4	FY2010 3/4	FY2010 4/4	FY2009 4/4	FY2010 3/4	FY2010 4/4	FY2009 4/4	FY2010 3/4	FY2010 4/4
대형사	3.3	2.6	4.4	-2.4	-4.1	-1.1	6.9	7.9	7.3
중소형사	0.3	-2.3	0.7	-5.2	-8.5	-4.4	5.8	6.0	6.1
외국사	-15.5	-1.8	-1.9	-18.0	-3.1	-1.7	2.9	2.6	2.6
전업사	-6.0	-4.8	-8.6	-10.2	-18.5	-12.4	4.0	3.3	3.5
국내외 17개사	2.1	1.0	3.1	-3.5	-5.5	-2.2	6.6	7.3	6.8

주: 1)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당기순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이익 + 특별계정이익 - 법인세비용

2) 보험영업이익률 = 보험영업이익 / 영업수익(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3) 투자영업이익률 = 투자영업이익 / 영업수익(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FY2010 4/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모집형태별 비중을 살펴보면 대리점 채널 비중은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하고, 설계사 채널 비중은 감소함.

〈표 35〉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 분	FY2009			FY2010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임직원	21,568	16,057	64,725	16,892	15,250	30,526	19,023	81,690
	18.0	14.2	14.8	14.0	12.5	20.9	14.3	15.6
설계사	37,202	39,523	145,894	40,166	41,265	43,085	43,873	168,389
	31.0	35.0	33.3	33.2	33.7	29.4	33.0	32.2
대 리 점	53,814	48,862	197,584	54,290	55,964	62,068	60,255	232,577
	44.8	43.2	45.1	44.9	45.7	42.4	45.3	44.5
중개사	978	656	3,372	905	971	1,402	898	4,176
	0.8	0.6	0.8	0.7	0.8	1.0	0.7	0.8
방카슈랑스	5,974	7,280	24,971	8,404	8,754	9,040	8,493	34,692
	5.0	6.4	5.7	7.0	7.2	6.2	6.4	6.6
공동인수	580	680	1,777	172	200	200	350	922
	0.5	0.6	0.4	0.1	0.2	0.1	0.3	0.2
전 체	120,115	113,058	438,323	120,829	122,403	146,321	132,892	522,44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원수보험료 실적은 분기치이며,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설계사는 교차모집설계사의 실적을 포함한 수치임.

3) 원수보험료 실적은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모두 포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대리점 채널 비중은 독립대리점(GA) 활성화로 전년동기대비 2.1%p 증가한 45.3%를 나타낸 반면, 설계사 채널 비중은 2.0%p 감소한 33.0%를 기록함.

〈모집조직 규모〉

■ FY2010 4/4분기 말 손해보험 모집조직은 설계사 수가 전분기대비 증가한 반면, 임직원 수 및 대리점 수는 감소함.

- 임직원 수는 비정규직 직원의 전분기대비 406명 감소로 449명이 감소하여 2만 8,951명으로 나타남.
- 설계사 수는 교차설계사 수가 감소한 반면, 전속설계사 수가 일부 대형 손해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 채널 보강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분기대비 377명 증가한 16만 2,144명을 기록함.
- 대리점 수는 독립법인대리점(GA) 대형화 추세로 개인대리점과 법인대리점 수가 감소하여 전분기대비 964개 줄어든 4만 1,963개로 나타남.

〈표 36〉 손해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 분	FY2009			FY2010			
	2/4	3/4	4/4	1/4	2/4	3/4	4/4
임직원	28,317	28,563	28,796	28,917	29,206	29,400	28,951
설계사	164,383	167,539	164,203	162,693	162,985	161,767	162,144
- 전속	84,487	86,856	83,020	83,562	83,765	83,597	84,144
- 교차	79,896	80,683	81,183	79,131	79,220	78,170	78,000
대리점	46,238	46,070	45,049	44,139	43,343	42,927	41,963
- 개인	34,674	34,359	32,976	32,270	31,650	31,003	30,091
- 법인	11,564	11,711	12,073	11,869	11,693	11,924	11,872

주: 교차모집설계사는 FY2008 2/4분기부터 허용되었으나, 설계사의 세분은 FY2008 4/4분기 업무보고서부터 수록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IV. 해외보험시장 동향

1. 미국 동향)

가. 생명보험

■ 2011년 1/4분기²⁾ 미국 생명보험 신계약의 연납화 보험료³⁾는 정기보험만이 감소한 가운데, 유니버설보험, 종신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등이 모두 두 자리수 증가율을 나타내면서 전년동기대비 8% 증가함.

○ 생명보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니버설보험은 1/4분기 14% 성장으로 5분기 연속 두 자리수 성장률을 이어감에 따라 생명보험 신계약 보험료 성장을 주도함.

- 유니버설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중 60%에 달하는 회사에서 신계약 보험료가 증가했으며, 동시에 50%는 두 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함.

- 유니버설보험은 특히 적립부문 소진 시에도 위험보장이 지속되는 long-term secondary guarantees 특약이 부가되지 않은 상품을 중심으로 성장함.

○ 종신보험이 동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75%에서 신계약 보험료가 증가하면서 15% 성장한 가운데, 종신보험의 단순한 상품구조가 동 상품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함.

○ 변액유니버설보험은 14% 성장으로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되었으며, 정기보험 신계약 보험료는 11% 감소하면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이어감.

1) 미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함.

2) CY 기준임.

3) 연납화 보험료(Annualized Premium) = (일시납보험료 × 10%) + 정기납보험료

■ 신계약 보험료 기준 누적 구성비를 살펴보면 보험료가 증가한 유니버설보험 및 변액유니버설보험 비중이 전분기에 비해 증가하고, 보험료가 감소한 정기보험 비중이 유일하게 감소함.

- 종목별 구성비는 유니버설보험이 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종신보험, 정기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이 각각 30%, 22%, 7%를 차지함.

〈표 1〉 미국 생명보험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 증가율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09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증가율	비중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유니버설	-20	41	17	11	8	13	10	42	14	41
기타변액	0	0	0	0	0	0	0	0	0	0
변액유니버설	-49	9	10	2	-6	-25	-7	8	14	7
정기	-1	26	-4	-11	-16	-16	-12	22	-11	22
종신	4	24	15	23	6	14	15	28	15	30
계	-16	100	10	7	0	2	4	100	8	100
연납화 보험료	9,240		2,216	2,408	2,306	2,704	9,541		2,363	

주: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비중은 누적치임.
자료: LIMRA(2011, 6),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표 2〉 미국 신규 보험계약건수 증가율 추이

(단위: %, 천 건)

구 분	2009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증가율	비중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성장률	비중
유니버설	5	15	21	22	23	20	21	16	18	22
기타변액	0	0	0	0	0	0	0	0	0	0
변액유니버설	-48	2	-15	-7	-14	-14	-13	1	-11	3
정기	-3	46	-5	-11	-16	-16	-12	39	-11	64
종신	0	37	1	8	-7	6	2	44	9	11
계	-2	100	0	1	-7	-2	-2	100	2	100
전체 건수	6,247		1,565	1,553	1,454	1,535	6,107		1,599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비중은 누적치임.
자료: LIMRA(2011, 6),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나. 연금보험

■ 2011년 1/4분기 미국 개인연금에 대한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6.7% 증가한 601억 달러로 신규보험료가 3분기 연속 증가한 것은 2007년 이후 처음이며, 보험료 규모는 2009년 2/4분기 이후 가장 큰 수준임.

- 1/4분기 변액연금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3.9% 증가한 399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보험료 규모는 2008년 2/4분기 422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가장 큰 수준임.
- 1/4분기 정액연금 신규보험료 또한 4.7% 증가하면서 두 분기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종목별로는 고정금리 이연연금(Fixed-Rate Deferred Annuity)상품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임.

〈표 3〉 미국 연금 종목별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10억 달러, %)

구 분		2009		2010					2011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변액연금	보험료	33.0	128.0	32.2	35.2	34.6	38.5	140.5	39.9
	성장률	-2.4	-17.9	3.9	9.7	8.5	16.7	9.8	23.9
	비 중	61.0	53.6	62.5	61.8	61.8	66.5	63.2	66.4
정액연금	보험료	21.1	110.6	19.3	21.8	21.4	19.4	81.9	20.2
	성장률	-39.4	0.5	-47.4	-25.3	-9.3	-8.1	-25.9	4.7
	비 중	39.0	46.4	37.5	38.2	38.2	33.5	36.8	33.6
합 계	보험료	54.1	238.6	51.5	57.0	56.0	57.9	222.4	60.1
	성장률	-21.1	-10.3	-23.9	-7.0	0.9	7.0	-6.8	16.7
	비 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LIMRA(2011. 6), *U.S. Individual Annuities*.

■ 개인연금 판매 현황을 채널별로 살펴보면 독립중개인이 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전속설계사가 20%, 독립설계사, 은행, 증권중개인, 직접판매 등이 각각 16%, 16%, 15%, 7%로 나타남.

- 변액연금에서는 독립중개인의 비중이 3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정액 연금에서는 독립설계사의 비중이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 미국 개인연금 판매채널 비중

(단위: %)

구 분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은행	19	15	16	15	14	16
전속설계사	21	20	21	21	21	20
직접판매	8	9	8	7	7	7
독립중개인	19	20	21	20	21	23
독립설계사	17	19	18	20	18	16
증권중개인	13	12	12	13	14	15
기 타	4	4	4	4	4	3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LIMRA(2011, 6), *U.S. Individual Annuities*.

다. 소득보상보험

■ 2011년 1/4분기 소득보상보험의 신규보험료는 보험료 변경권이 있는 Guaranteed Renewable⁴⁾과 Non-cancellable⁵⁾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6.4% 증가함.

- Guaranteed Renewable은 6.2% 증가하면서 네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Non-cancellable은 6.6% 증가하면서 2008년 3/4분기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함.

4) Guaranteed Renew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회사는 갱신 시 보험료를 변경할 권리를 갖지만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인 급부 변경을 할 수 없음.

5) Non-cancell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보험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 또는 급부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음.

〈표 5〉 미국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천, 천 달러, %)

구 분			CY2009		CY2010						CY2011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계 약 건 수	Guaranteed Renewable	건 수	80,328	315,627	105,731	74,268	83,742	80,365	344,106	107,171	
		성장률	0.6	-5.9	0.6	2.7	44.6	0.0	9.0	1.4	
		구성비	66.7	67.6	77.5	69.2	69.0	67.3	71.0	76.2	
	Non-cancell able	건 수	40,073	150,980	30,775	33,110	37,552	39,043	140,480	33,427	
		성장률	-6.5	-13.3	-8.0	-8.8	-8.8	-2.6	-7.0	8.6	
		구성비	33.3	32.4	22.5	30.8	31.0	32.7	29.0	23.8	
	전 체	건 수	120,401	466,607	136,506	107,378	121,294	119,408	484,586	140,598	
		성장률	-1.9	-8.4	-1.4	-1.1	22.4	-0.8	3.9	3.0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 규 보 험 료	Guaranteed Renewable	보험료	49,365	198,768	60,396	48,896	50,856	50,985	211,133	64,144	
		성장률	-5.7	-5.9	-1.3	14.1	12.1	3.3	6.2	6.2	
		구성비	38.0	39.7	49.2	42.2	40.4	40.1	42.9	49.1	
	Non-cancellable	보험료	80,584	301,867	62,468	66,959	74,967	76,277	280,671	66,577	
		성장률	-6.6	-9.7	-7.2	-9.2	-6.5	-5.3	-7.0	6.6	
		구성비	62.0	60.3	50.8	57.8	59.6	59.9	57.1	50.9	
	전 체	보험료	129,949	500,635	122,864	115,855	125,824	127,261	491,804	130,721	
		성장률	-6.2	-8.2	-4.4	-0.6	0.2	-2.1	-1.8	6.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LIMRA(2011. 6),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라. 손해보험

■ 2011년 1/4분기 미국 손해보험 보험영업수지는 원수보험료의 양호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급보험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6억 6,000만 달러 증가한 4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한 1,085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임.

- 개인보험 또는 기업보험을 주로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원수보험료가 각각 3.8%와 3.5% 증가하는 등 손해보험산업이 종목별로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5.3% 증가한 785억 달러로 나타난 가운데, 동 지급보험금은 미국 내 대재해 손실 20억 달러(25.9% 감소), 해외 대재해 손실을 포함한 기타 손실 765억 달러(6.5% 증가)로 구성됨.

- 2월 뉴질랜드 지진과 3월 일본의 대지진 및 쓰나미 등으로 미국 손해보험회사들이
입은 손해액은 20억~5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합산비율은 1.9%p 상승한 103.0%로 나타났으며, 모기지 및 금융보증 관련회사들의
합산비율은 176.9%, 이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의 합산비율은 102.2%로 나타남.

〈표 6〉 미국 손해보험 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1/4	2/4	3/4	4/4	연간	1/4
원수보험료	금 액	105,053	107,571	110,683	98,918	422,065	108,589
	성장률	-1.3	1.3	2.1	1.2	0.8	3.4
지급보험금	금 액	74,532	77,385	77,600	79,655	309,109	78,459
	성장률	-5.3	2.9	-0.1	6.3	0.8	5.3
보험영업수익	금액	-1,294	-3,027	-846	-3,020	-8,160	-4,008
	성장률	-41.6	-503.1	10.9	-358.1	671.3	209.7
계약자 배당금	금 액	512	256	340	1,162	2,270	456
	성장률	55.6	-25.4	12.6	14.8	14.3	-10.9
보험영업수지	금 액	-1,806	-3,283	-1,186	-4,182	-10,430	-4,463
	성장률	-29.0	-904.7	11.4	-2746.8	242.6	147.1
세전 영업이익	금 액	10,197	8,915	10,001	8,678	37,834	8,610
	성장률	6.9	-30.5	-12.8	-20.9	-15.5	-15.6
투자영업이익	금 액	11,591	11,985	11,442	12,221	47,246	12,561
	성장률	-1.2	0.9	-6.8	9.9	0.5	8.4
실현자본이익	금 액	981	1248	2,201	1,254	5,688	984
	성장률	-112.3	-139.4	43.6	-24.6	-171.5	0.3
투자영업수지	금 액	12,573	13,233	13,643	13,475	52,935	13,545
	성장률	235.8	52.0	-1.2	5.4	35.5	7.7
당기순이익	금 액	8,856	7,638	10,147	7,993	34,670	7,807
	성장률	-776.5	6.3	-2.5	-34.2	21.9	-11.8
자기자본(surplus)	금액	540,700	530,529	544,848	556,852	556,852	564,656
	성장률	23.7	14.6	11.0	8.9	-70.7	4.4
지급준비금	금 액	552,863	556,068	556,808	557,710	557,710	560,795
	성장률	-0.3	0.7	0.8	0.9	-74.8	1.4
합산비율		101.1	102.3	100.2	106	102	103

주: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세전영업이익=보험영업이익+투자영업이익+기타이익

자료: III(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2011. 6), Property/Casualty Insurers' Profits And Profitability Fell In First Quarter 2011 As Net Losses On Underwriting Ballooned.

■ 투자영업수지는 특별배당금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7.7% 증가한 135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기타 이익은 1억 달러 증가한 5억 달러를 기록함.

○ 주식배당금과 이자수입으로 구성된 투자영업이익은 8.4% 증가하였으나, 이는 한 보험회사가 자회사로부터 특별 배당금을 받았기 때문이며 이를 제외한 투자영업이익은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실현자본이익은 2011년 1/4분기 S&P 500지수와 다우존스지수가 각각 5.4%, 6.4%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0.3% 증가에 그침.

■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은 11.8% 감소한 78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자기자본이익률은 1.2%p 하락한 5.6%를 기록함.

○ 모기지 및 금융보증 관련 회사의 자기자본이익률은 2010년 1/4분기 -66.0%에서 -17.7%로 개선되었으며, 이들을 제외한 손해보험회사들의 자기자본이익률은 2010년 1/4분기 8.3%에서 2.2%p 하락한 6.1%로 나타남.

조사 개요 및 출처

■ 미국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연금보험, 건강보험, 손해 보험으로 구분되며, 이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과 장기간병보험, 소득보상 보험에 대한 분기별 통계를 입수할 수 있음.

○ 미국 민영건강보험 사업자는 비영리 민간보험조합인 Blue Shield, Blue Cross와 지역의료공급조직(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이 존재하고 이들이 민영 의료보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강보험이 직장단체보험으로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음.

○ 생명보험에는 유니버설보험, 변액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크게 변액연금보험과 정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됨.

-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나 생명보험마케팅연구단체(LIMRA: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등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자료만 제공함.

- 원고 작성에 사용되는 LIMRA의 분기별 자료는 신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중심으로 발표됨.

○ 손해보험은 다양한 세부 종목이 존재하나, 미국손해보험협회(PCI: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와 보험요율단체(ISO: Insurance Services Office Limited), 보험정보원(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분기별 지표는 전체적인 영업성과 위주로 제시됨.

■ 구체적으로 미국보험시장 동향 작성을 위해 참고한 문헌은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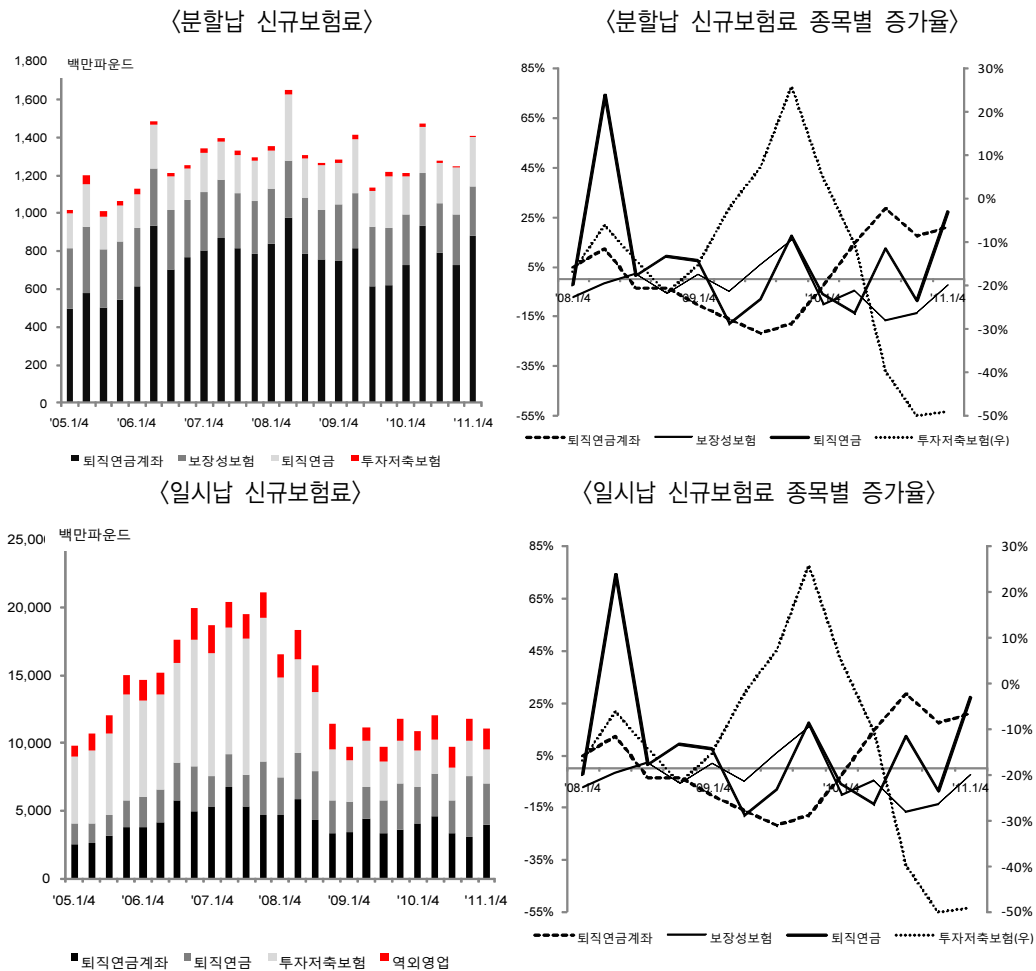
보고서	참여 회사 수	수입보험료 비중	발표 기관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77개사	85%	LIMRA
U.S. Individual Annuities	61개사	97%	LIMRA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18개사	-	LIMRA
U.S. Individual LTC Insurance	24개사	95%	LIMRA
손해보험 분기별 실적 보도자료	-	-	PCI, ISO, III

2. 영국 동향⁶⁾

가.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추이

■ 2011년 1/4분기 신규보험료는 분할납 신규보험료와 일시납 신규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모두 증가하여 3.0% 증가세로 전환됨.

〈그림 1〉 생명보험 신규보험료와 종목별 증가율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6) 영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함.

-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퇴직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이 양호한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역외 영업도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6.0% 증가함.
-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퇴직연금과 역외영업이 증가세를 시현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함.

〈투자·저축보험 신규보험료〉

■ 2011년 1/4분기 투자·저축보험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주로 어린이신탁(child trust)보험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49.2% 감소함.

- 어린이신탁의 1/4분기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87.0% 감소함에 따라 동 감소세가 가속되고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의 직접판매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 1/4분기 투자·저축보험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주로 변액연동채권(unit-linked bonds)의 판매가 부진하면서 전년동기대비 6.2% 감소함.

- 투자·저축보험의 일시납 신규보험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변액연동채권(unit-linked bonds)은 1/4분기 동안 방카슈랑스를 포함한 모든 판매채널에서 저조한 판매실적을 기록함에 따라 판매액이 24.9% 감소함.
- 그밖에 소득 인출이 정기적으로 가능한 투자자산(distribution bonds) 판매도 30.8% 감소함.

〈퇴직연금계좌 신규보험료〉

■ 1/4분기 퇴직연금계좌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모든 종목에서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1.0% 증가함.

- 독립재정자문가(IFA)를 통한 판매 증가로 단체개인연금계좌(group personal pensions),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s), 사용자후원 개인퇴직계좌(employer-sponsored stakeholders) 판매액이 각각 30.8%, 52.9%, 26.5% 증가함.

■ 1/4분기 퇴직연금계좌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년동기 대비 2.3% 감소함.

- 개인연금계좌, 개별개인연금계좌(self-invested personal pension), 사용자후원 개인퇴직계좌 등 대부분의 종목에서 IFA를 통한 판매가 감소하여 각각 13.5%, 21.9%, 28.7% 감소함.

〈퇴직연금 신규보험료〉

■ 1/4분기 퇴직연금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최근 판매액이 급증한 신탁투자퇴직연금(TIPs: Trustee Investment Plans)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7.2% 증가함.

- 퇴직연금 분할납 신규보험료 중 DB형 퇴직연금과 맞춤형퇴직연금(Executive Pension Plans) 판매는 각각 88.7%, 27.1% 감소함.
- 그러나 비중이 가장 큰 신탁투자퇴직연금(TIPs) 판매가 101.9% 증가함에 따라 퇴직연금 분할납 신규보험료 증가를 견인함.

■ 1/4분기 퇴직연금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신탁투자퇴직연금(TIPs)과 Group AVC 판매가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4.5% 증가함.

- DB, DC형 퇴직연금은 각각 19.5%, 220.6% 증가한 반면, Bulk Buyouts⁷⁾은 69.9% 감소함.

〈보장성보험 신규보험료〉

■ 1/4분기 보장성보험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모기지 연계 개인사망보험, 단체 CI보험, 단체 소득보장 보험 판매의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2.6% 감소함.

- 1/4분기 종신보험은 15.3% 증가했으나, 모기지 연계 개인사망보험, 단체 CI보험은 각각 8.2%, 26.7%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보장성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소폭 감소함.

7) DB형 퇴직연금의 관리 책임을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연금을 구입함.

- 분할납 보장성 보험료의 19% 수준에 불과한 일시납 보장성 보험료는 종합생명보험(Collective Life)의 판매실적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20.7% 감소함.

〈역외영업의 신규보험료〉

- 1/4분기 역외영업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Personal Bonds-Pooled⁸⁾의 판매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함.
 - 역외영업 일시납 신규보험료 중 가장 규모가 큰 Personal Bonds-Pooled가 방카슈랑스 판매 및 독립재정자문가(IFA) 채널에서 판매 호조를 보임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함.
 - 반면, 투자채권(Investment Bonds), 유배당채권(With-Profit Bonds) 등 기타 종목들은 각각 45.1%, 46.1% 감소함.
- 역외영업 일시납 신규보험료의 0.7%에 해당하는 역외영업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전년 동기대비 38.2% 증가함.

8) 뮤추얼 펀드, 투자신탁, Unit Trusts 등과 같은 공동투자 채권임.

〈표 7〉 영국 생명보험 분할납 및 일시납 신규보험료

(단위: 백만 파운드, %)

분할납 신규보험료		2009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	76.9	17.8	16.9	12.7	9.9	57.3	9.0
	증가율	2.7	5.1	-10.6	-39.9	-50.2	-25.4	-49.2
	구성비	1.5	1.5	1.1	1.0	0.8	1.1	0.6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2,808.0	727.8	935.9	794.4	730.2	3,188.3	880.8
	증가율	-16.5	-3.1	14.4	28.6	17.5	13.5	21.0
	구성비	55.4	59.5	63.1	61.8	57.9	60.7	62.1
퇴직연금	보험료	963.9	204.2	246.2	210.2	249.1	909.6	259.7
	증가율	-2.5	-6.2	-14.0	12.3	-8.7	-5.6	27.2
	구성비	19.0	16.7	16.6	16.3	19.8	17.3	18.3
역외영업	보험료	21.1	7.9	8.7	9.3	10.8	36.7	10.9
	증가율	8.5	70.1	73.1	76.2	74.6	73.7	38.2
	구성비	0.4	0.6	0.6	0.7	0.9	0.7	0.8
보장성보험	보험료	1,195.9	265.1	274.8	259.7	261.0	1,060.7	258.3
	증가율	4.2	-10.2	-4.8	-16.4	-13.4	-11.3	-2.6
	구성비	23.6	21.7	18.5	20.2	20.7	20.2	18.2
합계	보험료	5,065.8	1,222.8	1,482.5	1,286.3	1,261.0	5,252.6	1,418.7
	증가율	-9.4	-4.9	4.6	12.7	3.2	3.7	16.0
	구성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일시납 신규보험료		2009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	12,445.0	2,691.9	2,500.1	2,404.7	2,557.1	10,153.9	2,526.0
	증가율	-47.6	-11.2	-26.6	-16.4	-18.3	-18.4	-6.2
	구성비	29.2	24.5	20.6	24.5	21.6	22.7	22.6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14,840.4	4,064.5	4,601.8	3,369.2	3,119.5	15,155.0	3,971.5
	증가율	-19.3	18.4	4.2	1.0	-14.6	2.1	-2.3
	구성비	34.8	37.0	38.0	34.4	26.4	33.9	35.6
퇴직연금	보험료	10,528.5	2,671.2	3,203.4	2,450.5	4,477.0	12,802.1	3,058.2
	증가율	-13.0	18.0	34.7	-1.1	31.3	21.6	14.5
	구성비	24.7	24.3	26.4	25.0	37.8	28.6	27.4
역외영업	보험료	4,627.0	1,503.5	1,758.4	1,520.0	1,621.9	6,403.7	1,554.3
	증가율	-40.5	49.6	84.0	43.9	0.8	38.4	3.4
	구성비	10.8	13.7	14.5	15.5	13.7	14.3	13.9
보장성보험	보험료	237.1	61.6	54.0	55.9	53.7	225.2	48.9
	증가율	6.7	22.1	-17.4	1.4	-18.8	-5.0	-20.7
	구성비	0.6	0.6	0.4	0.6	0.5	0.5	0.4
합계	보험료	42,678.0	10,992.7	12,117.6	9,800.3	11,829.2	44,739.8	11,159.0
	증가율	-32.3	12.3	8.0	0.0	-0.3	4.8	1.5
	구성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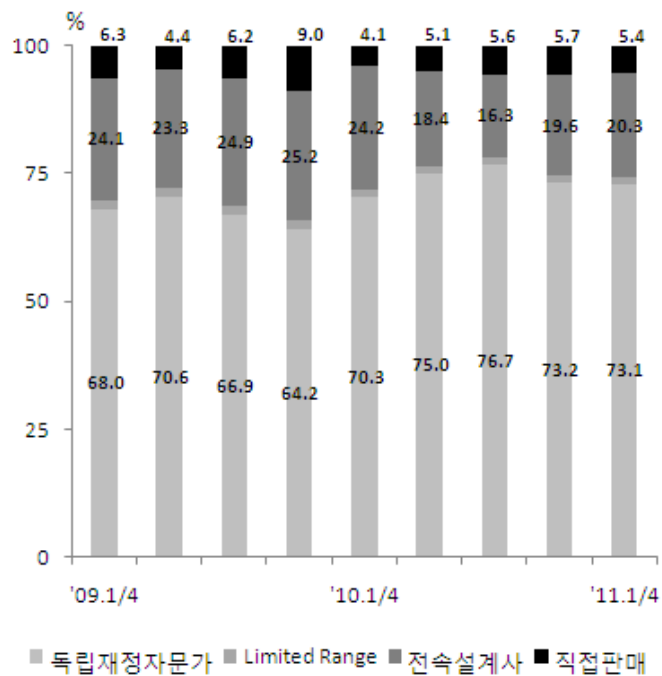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나. 판매채널별 신규보험료

■ 1/4분기 판매채널별 분할납 신규보험료에서 독립재정자문가(IFA)와 직접판매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확대된 반면, 전속설계사 비중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1/4분기 분할납 신규보험료에서 독립재정자문가의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투자 및 저축보험, 퇴직연금계좌, 개인 보장성보험, 역외영업의 판매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2.8%p 하락하여 73.1%를 기록함.
- 직접판매의 비중은 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 보장성보험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1.3%p 상승하여 5.4%를 차지함.

〈그림 2〉 판매채널별 분할납 보험료 비중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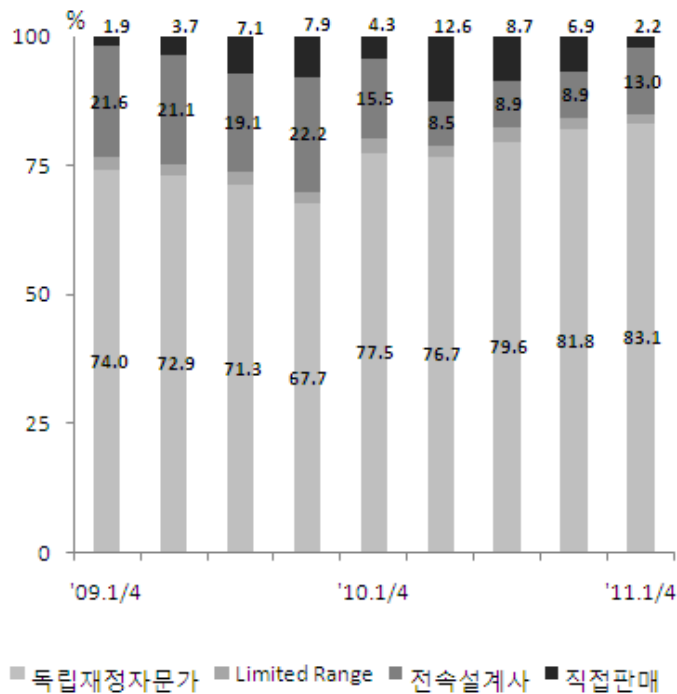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9) Limited Range는 금융상품에 대해 제한적인 설명만 하도록 규정됨.

■ 1/4분기 판매채널별 일시납 신규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독립재정자문가(IFA)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확대된 반면, 전속설계사와 직접판매의 비중은 축소됨.

- 독립재정자문가의 판매는 퇴직연금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5.6%p 증가한 83.1%를 기록함.
- 전속설계사의 판매는 퇴직연금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감소함에 따라 동 비중은 2.5%p 하락한 13.0%를 기록함.
- 또한, 직접판매는 퇴직연금계좌와 역외영업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판매가 급감하면서 2.1%p 하락한 2.2%를 차지함.

〈그림 3〉 판매채널별 일시납 보험료 비중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조사 개요 및 출처

■ 영국의 보험산업은 영국보험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 보험료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의 신규 보험료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의 기타 통계 및 손해보험의 통계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

■ 영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생명보험 신규계약은 6개 종목으로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을 제외하면 신규계약은 개인과 단체로 분리되지 않음.

○ 보장성보험이 신규계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기 때문에 개인보장성보험과 단체보장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통합하여 분류함.

■ ABI가 발표한 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Investment & Savings	투자 · 저축성보험
Individual Pensions	퇴직연금계좌
Occupational Pensions	퇴직연금
Offshore Business	역외영업
Individual Protection & Group Protection	보장성보험

3. 일본 동향¹⁰⁾

가. 생명보험

〈신규계약 현황〉

■ FY2010 4/4분기 생명보험 신규계약액은 일본 대지진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모든 보험종목에서 신규계약액이 줄어들면서 전년동기대비 6.3% 감소함.

〈표 8〉 일본 생명보험 신규계약액

(단위: 억 엔, 전년동기대비 %)

구 분			FY2009	F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개 인 성	개 인	금 액	629,077	156,984	169,250	172,207	155,430	653,871
		성장률	11.0	8.4	5.7	5.7	-3.6	3.9
		구성비	84.8	84.8	87.4	90.1	87.0	87.3
	- 사 망	금 액	504,301	126,766	137,729	141,569	126,877	532,941
		성장률	7.5	10.3	7.3	7.6	-2.0	5.7
		구성비	68.0	68.5	71.1	74.1	71.0	71.2
	- 생 사 혼 합	금 액	119,634	28,920	30,278	29,191	27,309	115,697
		성장률	31.0	1.0	-0.8	-2.5	-10.6	-3.3
		구성비	16.1	15.6	15.6	15.3	15.3	15.5
	- 생 존	금 액	5,142	1,298	1,243	1,447	1,244	5,233
		성장률	-15.3	3.9	-0.1	4.6	-1.6	1.8
		구성비	0.7	0.7	0.6	0.8	0.7	0.7
	개인연금	금 액	83,265	17,627	19,708	16,135	16,290	69,759
		성장률	12.3	-13.3	-7.8	-17.9	-25.7	-16.2
		구성비	11.2	9.5	10.2	8.4	9.1	9.3
단체보험		금 액	29,269	10,422	4,689	2,807	6,909	24,828
		성장률	-34.5	18.9	-49.1	-29.2	-5.6	-15.2
		구성비	3.9	5.6	2.4	1.5	3.9	3.3
합 계		금 액	741,757	185,072	193,667	191,174	178,665	748,579
		성장률	8.2	6.4	1.6	2.5	-6.3	0.9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10) 일본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바람.

- 개인보험 신규계약액은 모든 종목에서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6% 감소함.
 - 사망보험 신규계약액은 종신보험(10.3%)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종목이 부진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0% 감소함.
 -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양로보험(-2.7%), 정기부양로보험(-21.2%), 변액보험(-24.6%)의 실적부진으로 신규계약액이 전년동기대비 10.6% 감소함.
 - 생존보험 신규계약액은 암보험과 어린이보험이 각각 9.4%, 0.2% 성장했으나, 생존급부, 의료보험이 각각 -27.0%, -4.6% 성장함에 따라 감소함.
- 개인연금보험은 수익률 저조로 정액 및 변액연금보험 신규계약액이 각각 13.7%, 71.2% 감소하면서 전분기에 이어 감소폭이 확대됨.
- 단체보험 신규계약액은 비중이 큰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15.8%)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전년동기대비 5.6% 감소함.

〈자산 현황〉

- FY2010 4/4분기 말 총자산 규모는 현금 및 예금과 유가증권 등의 증가로 전분기대비 0.7% 증가한 320조 7,000억 엔을 기록함.
 - 단기자금과 매입금전 채권은 전분기대비 감소하고, 현금 및 예금은 96.6% 증가하는 등 자금의 유동성이 강조되는 모습임.
 - 유가증권은 안전자산 선호로 국채와 지방채가 각각 전분기대비 0.7%, 3.6% 증가하였고, 주식은 국내 경기침체로 3.3% 감소하였으며, 외국증권 매입은 2.8% 증가함.
 - 대출금은 일반대출금의 감소로 전분기대비 2.4% 감소하였으며, 감소폭은 확대됨.

〈표 9〉 일본 생명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

(단위: 억 엔, 전기대비 %)

구 분	FY2009				FY2010					
	4/4		1/4		2/4		3/4		4/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49,951	29.4	33,073	-33.8	42,241	27.7	28,765	-31.9	56,560	96.6
단기자금	21,393	-15.1	20,428	-4.5	21,264	4.1	22,249	4.6	20,096	-9.7
매입금전채권	31,970	0.8	32,972	3.1	32,778	-0.6	32,146	-1.9	30,458	-5.3
금전신탁	22,051	-8.6	22,462	1.9	20,428	-9.1	20,478	0.2	20,712	1.1
유가증권	2,441,501	1.5	2,423,965	-0.7	2,465,755	1.7	2,469,106	0.1	2,479,810	0.4
- 국 채	1,279,888	2.4	1,290,118	0.8	1,311,052	1.6	1,315,255	0.3	1,323,987	0.7
- 지방채	109,679	2.8	111,249	1.4	114,033	2.5	115,055	0.9	119,164	3.6
- 사 채	264,538	-2.6	265,474	0.4	265,240	-0.1	261,014	-1.6	252,836	-3.1
- 주 식	186,618	3.5	170,497	-8.6	163,027	-4.4	167,731	2.9	162,149	-3.3
- 외화증권	429,571	-0.5	425,960	-0.8	447,978	5.2	444,877	-0.7	457,384	2.8
대출금	468,953	-3.5	462,290	-1.4	452,978	-2.0	449,448	-0.8	438,772	-2.4
부동산	67,205	1.0	66,301	-1.3	68,500	3.3	68,192	-0.4	66,909	-1.9
운용자산	3,113,410	0.9	3,071,987	-1.3	3,115,005	1.4	3,107,627	-0.2	3,131,288	0.8
총자산	3,183,802	0.9	3,150,994	-1.0	3,184,275	1.1	3,183,287	0.0	3,206,912	0.7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에 대한 누적 잔액이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2) 운용자산은 상기 주요자산,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등의 합계임.

3) 총자산은 운용자산과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의 합계임.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나. 손해보험

〈보험료 현황〉

■ FY2010 4/4분기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화재, 운송, 상해, 특종보험의 성장세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1.0% 감소함.

○ 손해보험 전체 원수보험료의 55.8%를 차지하는 자동차보험과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의 성장률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0.6%, 1.1%로 소폭 개선되는 모습임.

〈표 10〉 일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억 엔, %)

구 분		FY2009	F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화 재	보험료	13,982	3,316	3,163	3,441	3,239	13,159
	성장률	-0.3	-2.4	-3.9	-11.7	-4.6	-5.9
	구성비	18.0	16.2	16.6	17.9	17.3	17.0
해 상	보험료	1,858	514	483	473	495	1,965
	성장률	-19.0	7.1	8.1	5.7	2.3	5.8
	구성비	2.4	2.5	2.5	2.5	2.6	2.5
운 송	보험료	626	166	144	151	146	608
	성장률	-9.5	-2.6	-3.3	-3.3	-2.3	-2.9
	구성비	0.8	0.8	0.8	0.8	0.8	0.8
자동차	보험료	34,135	8,805	8,376	8,643	8,489	34,314
	성장률	-1.0	0.4	0.8	0.3	0.6	0.5
	구성비	43.9	43.1	44.0	44.9	45.2	44.3
자동차 배상책임	보험료	8,058	2,164	2,189	1,897	1,996	8,063
	성장률	-7.2	2.7	1.8	-5.5	1.1	0.1
	구성비	10.4	10.6	10.5	9.9	10.6	10.4
상 해	보험료	10,256	2,943	2,686	2,482	2,293	10,403
	성장률	-7.6	7.7	3.4	-3.7	-2.4	1.4
	구성비	13.2	14.4	14.1	12.9	12.2	13.4
특 종	보험료	8,922	2,529	2,189	2,145	2,103	8,966
	성장률	4.5	0.7	0.4	3.4	-2.5%	0.5
	구성비	11.5	12.4	11.5	11.2	11.2	11.6
합 계	보험료	77,837	20,437	19,048	19,232	18,761	77,478
	성장률	-2.5	1.3	0.5	-2.7	-1.0	-0.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임.

3) 일본의 원수정해보험료, 신종보험을 각각 원수보험료,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지진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부진하여 전년동기대비 4.6% 감소하였고, 특종보험 역시 대부분의 종목에서 판매가 부진함에 따라 감소세로 전환됨.
- 그밖에 운송보험과 상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2.3%, 2.4% 감소한 반면, 해상보험은 선박보험료 감소를 적해보험료 증가로 상쇄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3% 증가함.

〈자산 현황〉

■ FY2010 4/4분기 말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현금 및 예금, 단기자금의 증가로 유가증권, 부동산, 대출금의 보유가치 하락을 상쇄하면서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 유가증권은 국채, 지방채, 국내주식, 해외증권 등 모든 종목이 전분기에 비해 감소한 반면, 현금 및 예금이 증가하는 등 자금의 유동성이 강조되고 있음.

○ 대출금과 부동산 역시 전분기대비 각각 3.8%, 0.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1〉 일본 손해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 엔, %)

구 분		FY2009		FY2010							
		4/4		1/4		2/4		3/4		4/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9,335	27.5	7,563	-19.0	9,007	19.1	7,871	-12.6	9,043	14.9
단 기 자 금		3,343	-7.9	3,677	10.0	4,040	9.9	2,498	-38.2	7,574	203.1
매입금전채권		12,952	6.8	14,511	12.0	11,362	21.7	9,511	-16.3	9,489	-0.2
금 전 신 탁		1,130	-0.6	1,085	-4.1	1,093	0.8	1,184	8.3	780	-34.1
유가증권	국 채	49,560	2.4	50,150	1.2	51,191	2.1	52,017	1.6	50,984	-2.0
	지 방 채	6,104	-2.9	5,740	-6.0	5,350	-6.8	5,613	4.9	5,311	-5.4
	회 사 채	38,093	-1.5	37,242	-2.2	35,875	-3.7	34,241	-4.6	32,925	-3.8
	주 식	74,527	4.2	63,857	-14.3	63,302	-0.9	66,666	5.3	64,394	-3.4
	외화증권	49,639	-2.3	48,508	-2.3	47,919	-1.2	47,788	-0.3	47,518	-0.6
	기타증권	4,398	-2.6	4,141	-5.8	4,047	-2.3	3,486	-13.9	3,242	-7.0
	소 계	222,321	1.0	209,637	-5.7	207,683	-0.9	209,810	1.0	204,374	-2.6
대 출 금		23,738	-3.0	23,452	-1.2	23,098	-1.5	22,547	-2.4	21,679	-3.8
부 동 산		10,984	-0.5	10,965	-0.2	10,877	-0.8	10,788	-0.8	10,718	-0.6
운 용 자 산		286,090	1.0	272,720	-4.7	270,310	-0.9	266,718	-1.3	265,331	-0.5
총 자 산		314,956	1.0	303,928	-3.5	301,028	-1.0	296,503	-1.5	296,733	0.1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에 대한 누적 잔액이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2) 기타자산은 현금, 건설 중인 자산, 유·무형고정자산, 대리점비용, 재보험비용, 이연세금 자산, 지불승낙담보 등을 말함.

3)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조사 개요 및 출처

■ 일본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일본생명보험협회(<http://www.seiho.or.jp>)와 일본손해보험협회(<http://www.sonpo.or.jp>)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매월/분기에 공개되는 누적 통계(raw data)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생명보험은 신계약종목별통계표(新契約種類別統計表)의 신규계약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생명보험사업개황(生命保險事業概況) 중 주요자산운용현황(主要資産運用状況) 통계를 분석함.
- 손해보험은 종목별통계표(種目別統計表)의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와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손해보험회사자금운용상황표(損害保險会社総合資金運用状況一覽表)를 이용하여 분석함.

■ 생명보험의 경우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험과 단체정보보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개인정보보험은 개인보험(個人保險)과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險)으로, 단체정보보험은 단체보험(団体保險), 단체연금보험(団体年金保險), 재형보험(財形保險), 재형연금보험(財形年金保險), 의료보장보험(医療保障保險), 취업불능보험(就業不能保障保險)으로 분류함.
- 단체정보보험 중 실적이 미미한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은 기타로 분류함.

■ 일본식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	원수보험료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지급보험금
신종보험(新種保險)	특종보험

4. 중국 동향¹⁾

가. 인보험

〈수입보험료 현황〉

- 2011년 1/4분기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으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 축소와 건강보험 매출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1.8% 감소한 3,484억 위안으로 나타남.¹²⁾
 - 올 1/4 분기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른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3,210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감소하였으며, 전체 인보험 수입보험료의 92.1%를 차지함.
 - 금년 1월 새로운 기업회계기준 시행으로 변액보험과 유니버설 수입보험료 대부분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에서 제외됨.¹³⁾
 - 올 1/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전분기 18.5% 성장률에 미치지 못했으나, 이는 회계기준 차이로 인한 성장률 하락으로 볼 수 있어 직접적인 기간간 비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187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3% 증가에 그쳤으며, 2010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이어가지 못함.
- 회계기준 개정 이외에도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방카슈랑스 관련 보험 분쟁방지’ 규정 시행에 따른 방카슈랑스 매출 감소가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 실적부진으로 이어짐.
 - 방카슈랑스는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준 판매채널이었으나, 보험 분쟁을 야기하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음.

11) 중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함.

12) 인보험 수입보험료에는 손해보험회사의 단기 의료보험과 상해보험 수입보험료와 연금보험회사 운영하는 보험상품 수입보험료(5개 연금보험회사 중 2개)도 포함됨.

13) 동 회계기준에 따르면 보험상품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위험률 차익률이 5년 이상 10%를 초과하고, 보험상품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절반 이상 보험기간의 위험률 차익률이 10%를 초과한 보험계약 수입보험료만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에 산입됨.

- 지난 10월,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회사간 또는 보험회사와 은행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 파견 설계사의 은행활동을 불허하였으며, 2010년 11월부터 각 은행 지점은 3개사 이하의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도록 규정함.
- 이에 따라 은행, 우체국 등을 비롯한 겸업 회사의 전체 수입보험료(초회보험료 기준)는 전년동기대비 3.8% 감소했고, 그 중 방카슈랑스의 수입보험료(손해보험과 인보험 모두 포함)는 1,270억 위안으로 15.3% 감소함.

〈표 12〉 인보험 수입보험료

(단위: 억 위안, %)

구 분		2009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인보험	보험료	8,261	3,547	2,434	2,389	2,263	10,632	3,484
	성장률	10.9	38.7	27.0	27.6	18.2	28.7	-1.8
	구성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생명보험	보험료	7,457	3,292	2,179	2,154	2,054	9,680	3,210
	성장률	12.0	39.5	28.1	29.5	18.5	29.8	-2.5
	구성비	90.3	92.8	89.5	90.2	90.8	91.0	92.1
- 건강보험	보험료	574	185	180	161	152	677	187
	성장률	-2.0	31.5	16.6	12.7	11.4	18.0	1.3
	구성비	6.9	5.2	7.4	6.7	6.7	6.4	5.4
- 상해보험	보험료	230	70	75	73	56	275	87
	성장률	13.0	20.0	23.7	10.9	26.7	19.7	23.3
	구성비	0.03	0.02	0.03	0.03	0.02	0.03	0.02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인신보험, 인수보험, 의외상해보험을 각각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현황〉

■ 2011년 1/4분기 인보험 지급보험금은 감독당국의 피보험자 보호규제 강화정책으로 생명 및 건강보험의 지급보험금이 급증하면서 전년동기대비 49.7% 증가한 551억 위안으로 나타났다.

-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의 지급보험금은 각각 50.7%, 54.8% 증가함에 따라 인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이 전분기에 비해 31.7%p 상승한 49.7%로 나타남.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거절 허용범위 축소 등 감독당국의 피보험자 보호규제 강화 정책이 지급보험금 급증의 주요인으로 분석됨.

〈표 13〉 인보험 지급보험금

(단위: 억 위안, %)

구 분		2009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인보험	보험금	1,550	368	346	348	382	1,444	551
	증가율	-0.2	-22.0	-18.0	4.9	18.0	-6.8	49.7
- 생명보험	보험금	1,269	290	269	263	287	1,109	437
	증가율	-3.5	-28.1	-24.1	2.0	13.3	-12.6	50.7
- 건강보험	보험금	217	62	60	66	76	264	96
	증가율	23.8	13.8	16.8	17.1	38.6	21.7	54.8
- 상해보험	보험금	64	17	16	19	20	71	18
	증가율	2.2	11.7	5.5	8.0	21.5	11.7	5.9
합 계	보험금	3,125	732	741	789	938	3,200	980
	증가율	5.2	-11.1	-5.6	7.5	19.8	2.4	33.9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인신보험, 인수보험, 의외상해보험을 각각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1년 1/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인보험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다소 축소된 반면, 중소형사는 확대됨.

- 올 1/4 분기 전체 인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3,442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함.
- 상위 5개사 중 3개사의 수입보험료가 감소함에 따라 상위5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전년 동기대비 0.2p% 감소한 75.4%로 나타남.
- 한편, 연금보험회사의 실적호조로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이 전년동기대비 1.7%p 상승한 21.2%로 나타난 반면, 외자계 회사는 3.4%로 나타나 1.5%p 하락함.

〈표 14〉 인보험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구 분			2009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인보험	중국계	상위 5개사	77.2	75.6	73.5	71.7	69.5	72.8	75.4
		중소형사	17.6	19.5	21.0	22.6	23.6	21.6	21.2
		소 계	94.8	95.1	94.6	94.3	93.1	94.4	96.6
	외자계		5.2	4.9	5.4	5.7	6.9	5.6	3.4

주: 1) 기간별 점유율은 해당기간에 대한 수치임.

2) 인보험의 상위 5개사는 중국생명, 평안생명, 신화생명, 타이핑양생명, 타이강생명 등임.

3) 중소형사는 상위사와 외자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4)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5)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나.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현황〉

■ 2011년 1/4분기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1,133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3.9% 증가한 가운데, 주력 종목인 자동차보험의 실적부진으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됨.

- 올 1/4분기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가 11.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에서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5%p 하락한 70.0%로 나타남.
- 한편, 화재보험, 책임보험, 운송보험, 공사보험의 수입보험료는 각각 16.3%, 27.1%, 28.2%, 21.9% 증가하여 양호한 성장세를 보임.
- 1/4분기 자동차보험 성장률이 전년동기(30.5%)에 비해 하락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수입보험료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와 올 상반기 자동차구매 제한정책 등으로 인한 자동차 매매 급감이 주요인으로 분석됨.
- 일부 대도시의 자동차구매 자격제한¹⁴⁾과 유가상승 등으로 올 1~3월 중국 자동차의 매출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66%p 하락한 8.1%로 나타남.

〈표 15〉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단위: 억 위안, %)

구 분		2009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손해보험	보험료	2,876	995	1,023	937	941	3,896	1,133
	성장률	23.1	38.4	29.0	29.8	46.6	35.5	13.9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재산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14) 베이징의 경우 올 1월부터 자동차 구매자를 베이징 호적인 자로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베이징 사람'의 경우에도 10~30대 1의 경쟁률 속에서 추첨을 통해 구매자격을 가질 수 있음.

〈지급보험금 현황〉

- 감독당국의 피보험자 보호규제 강화정책으로 2011년 1/4분기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17.9% 증가한 429억 위안으로 나타남.

〈표 16〉 손해보험 지급보험금

(단위: 억 위안, %)

구 분		2009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손해보험	보험금	1,576	364	395	441	556	1,756	429
	증가율	11.1	3.5	8.9	9.6	21.1	11.4	17.9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재산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1년 1/4분기 손해보험 상위 3개사와 외자계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상승한 반면, 중소형사는 하락함.

- 올 1/4분기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단기 의료보험과 상해보험 포함)는 1,176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4.4% 증가함.
- 최대 손해보험회사인 중국인민재산보험과 타이핑양재산보험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1.85%p, 0.06%p 하락했으나, 평안재산보험의 점유율이 2.51%p 상승함에 따라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0.6%p 증가함.
 - 중국인민재산보험과 타이핑양재산보험의 수입보험료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9.0%, 13.8% 증가에 그친 반면, 평안재산보험은 33.8% 증가함.
- 외자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0.1%p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 1.0%대 점유율 수준에 그침.

- 외자계 1위사인 차티스(美亚财产, AIG에서 개명)의 수입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한 가운데, 리버티뮤추얼보험(利宝互助, Liberty Mutual)은 70%가량의 고 성장으로 6위에서 2위로 올라섬.
- 2010년 3/4분기 2위사였던 삼성화재는 올 1/4분기 19.9% 성장하였으나, 4위사에 그침.

○ 한편,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0.7%p 하락한 30.7%로 나타났으며, 전 분기에 비해서도 1.2%p 하락함.

〈표 17〉 손해보험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구 분			2009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손해 보험	중국계	상위 3개사	64.2	67.6	65.0	66.2	67.0	66.4	68.2
		중소형사	34.7	31.4	33.9	32.7	31.9	32.5	30.7
		소 계	98.9	99.0	99.0	98.9	98.9	98.9	98.9
	외자계		1.1	1.0	1.0	1.1	1.1	1.1	1.1

주: 1) 기간별 점유율은 해당기간에 대한 수치임.
 2) 손해보험의 상위 3개사는 중국인민재산, 평안재산, 타이핑양재산 등임.
 3) 중소형사는 상위사와 외자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4)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5)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다. 연금보험

■ 중국의 연금보험시장은 2007년 연금보험회사의 기업연금 수탁업무가 전국에 걸쳐 허용되면서 4년간 급성장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의 기업연금 가입률을 감안할 때 기업연금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은 2004년 5월 기업연금 시범시행을 시작으로 2007년 10월 연금보험회사의 기업연금업무가 정식으로 허용됐으며, 기업연금의 누적 수입보험료는 2006년 말 910억 위안부터 현재 1,200억 위안으로 증가함.

- 기업연금을 도입한 기업은 자사 내 연금운용 이사회를 설립하거나, 전문 연금보험 회사에 위탁해서 연금 계좌를 운용할 수 있음.
- 중국은 현재 5개의 연금보험회사가 있으며, 올 1/4분기 수탁한 수입보험료는 169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28.4% 증가함.
- 연금보험회사의 누적 운용보험료는 2008년 464.3% 증가한 후, 매분기 40%대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 1/4분기는 1,147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6.9% 증가함.
- 현재 중국 기업 및 근로자의 기업연금 가입률과 기업연금의 소득대체율 모두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에 기업연금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됨.

〈표 18〉 중국 연금보험 수입보험료 및 자산 운용 현황

(단위: 억 위안,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수탁보험료	금액	86	205	264	74	77	71	135	357	169
	성장률	-	138.4	28.8	15.5	51.1	-	-	35.2	128.4
누적 운용 보험료	금액	84	474	708	781	835	920	1039	1039	1,147
	증가율	-	464.3	49.4	45.2	41.5	-	46.8	46.8	46.9

주: 1) 수탁보험료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2010년 3/4와 4/4분기 수탁보험료 증가율과 2010년 3/4분기 누적 운용 자산 증가율은 결측치임.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라. 수지상황 및 자산운용

〈수지상황〉

- 2011년 1/4분기 전체 보험산업의 총 수입보험료는 4,617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7% 증가에 그쳐 전년대비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함.

■ 올 1/4분기 사업비는 385억 위안으로 20.6% 증가했으며, 동 증가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1.5%p 하락한 수치임.

○ 2010년 1/4분기 수입보험료(전년동기대비 38.6% 증가)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업비도 22.1%에 달하는 증가율을 기록함.

〈표 19〉 중국 보험산업 수치상황

(단위: 억 위안, %)

구 분		2009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총수입보험료	보험료	11,137	4,541	3,457	3,326	3,204	14,528	4,617
	성장률	13.8	38.6	27.6	28.2	25.3	30.4	1.7
지급보험금	보험금	3,125	732	741	789	938	3,200	980
	증가율	5.2	-11.1	-5.6	7.5	19.8	2.4	33.9
사업비	금 액	1,234	320	357	369	493	1,538	385
	증가율	14.3	22.1	27.0	20.9	27.7	24.7	20.6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3)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자산운용〉

■ 2011년 1/4분기 말 보험산업의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7.1% 증가한 5조 4,064억 위안으로 나타났으며, 운용자산도 5조 67억 위안에 달해 전분기대비 8.7% 증가함.

■ 올 1/4분기 비운용자산대비 운용자산 규모는 지난 2년에 비해 커졌으나, 예치금대비 투자금 규모는 작아짐.

○ 올 3월까지 보험산업 총자산 중 비운용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4%에 불과했으나, 운용자산 비중은 92.6%로 지난 2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에 이름.

○ 한편, 지난해 연말까지 총자산의 20%대 비중에 머물러 있던 은행 예치금은 올 1/4분기 들어 1조 6,257억 위안으로 총자산의 30.1%를 차지함.

○ 투자금은 전분기대비 5.2% 늘어났으나,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5%로 지난 2년 동안 최저 수준임.

- 투자금 중 채권, 주식, 펀드, 장기 지분투자, 부동산은 각각 운용자산의 46.7%, 8.2%, 5.6%, 3.6%, 0.4%를 차지함.

■ 주식시장 불황으로 인해 올 1/4분기 자금운용 수익은 515억 위안으로 평균 수익률이 1.1%에 그쳤으며, 동 수익률은 2008년 이래 가장 낮은 1/4분기 수익률로 기록됨.

○ 2008~2010년 1/4분기 자금운용 수익률은 각각 1.2%, 1.4%, 1.2%로 나타났는데, 올 1/4분기 1.1%의 수익률은 금융위기 때였던 2008년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표 20〉 중국 보험산업 주요 경영실적 현황

(단위: 억 위안, %)

구 분		2009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운용자산 계	금액	37,417	39,538	41,654	44,323	46,047	46,047	50,067
	구성비	92.1	92.1	92.1	92.3	91.2	91.2	92.6
- 예치금	금 액	10,520	11,595	12,700	13,070	13,910	13,910	16,257
	증가율	30.1	10.2	9.5	2.9	6.4	32.2	16.9
	구성비	25.9	27.0	28.1	27.2	27.6	27.6	30.1
- 투자금	금 액	26,897	27,943	28,954	31,253	32,137	32,137	33,810
	증가율	19.7	3.9	3.6	7.9	2.8	19.5	5.2
	구성비	66.2	65.1	64.0	65.1	63.7	63.7	62.5
비운용자산 계	금액	3,218	3,391	3,581	3,672	4,435	4,435	3,997
	구성비	7.9	7.9	7.9	7.7	8.8	8.8	7.4
총자산	금 액	40,635	42,929	45,235	47,995	50,482	50,482	54,064
	증가율	21.6	5.6	5.4	6.1	5.2	24.2	7.1
	구성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의 누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3)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 보험중개시장 소개

〈정의와 시장 규모〉

- 중국은 보험회사 자사 판매를 제외한 모든 판매채널을 보험중개시장이라고 정의하며, 보험중개시장은 보험대리회사, 보험중개인회사, 설계사, 겸업회사 등을 포함함.
- 올 1/4분기 보험대리회사를 제외한 모든 모집조직 규모가 커지고 있어 보험중개시장은 확대됨.
 - 올 1~3월 16개 신설보험대리회사가 설립되었으나, 29개에 달하는 기존 보험대리회사가 시장 탈퇴함에 따라 보험대리회사는 7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 보험중개인회사는 4개 증가하였고, 설계사 수는 전분기보다 39,73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 보험중개시장 모집조직별 규모

(단위: 만 명, 개)

구 분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보험대리회사	1,903	1,887	1,856	1,864	1,853	1,846
보험중개인회사	378	381	381	381	392	396
설계사	291	293	302	315	330	334
겸업회사	148,971	149,858	155,637	199,441	189,877	198,505
- 은행	85,019	85,216	86,628	108,895	113,632	118,246
- 우체국	17,543	16,091	20,001	28,420	24,845	26,118
- 자동차 판매점	18,049	19,317	20,499	20,499	23,859	23,302
- 기타 겸업회사	28,360	29,234	28,509	41,627	27,541	30,839

주: 겸업회사는 은행, 우체국, 자동차 판매점, 항공사, 철도운행사 등을 포함함.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 자동차 시장의 불황으로 보험상품을 대신해서 판매하는 자동차 판매점은 557개 감소한 반면, 은행, 우체국, 항공사, 철도운행사 등은 증가함에 따라 올 1/4분기 겸업회사는 전분기에 비해 8,628개 증가함.

〈모집형태별 수입보험료〉

- 2011년 1/4분기 보험중개시장으로 거수된 수입보험료(초회보험료 기준)는 4,027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7.4% 증가했으며, 전체 수입보험료의 87.2%를 차지함.
- 모집형태별 수입보험료 비중은 은행 비중만이 감소한 반면, 은행을 제외한 타 겸업회사, 설계사, 보험대리회사, 보험중개인회사 등의 비중은 모두 증가함.
 - 올 1/4분기 은행으로부터 거수된 보험료가 전체 보험중개시장 보험료에서 차지한 비중은 보감회의 ‘방카슈랑스 관련 보험 분쟁방지’규정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8.5%p 감소한 31.5%로 나타남.
 - 한편, 동 규정의 시행으로 설계사의 은행 활동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사 거수 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4.9%p 증가한 44%를 기록함.
 - 우체국 거수 보험료는 416억 위안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27.8% 성장했으며, 동 보험료의 비중은 1.6%p 증가한 10.3%로 나타남.
 - 이외에 보험대리회사, 보험중개인회사, 자동차 판매점, 기타 겸업회사의 거수 보험료 비중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0.5%p, 0.5%p, 0.4%p, 0.6%p 증가함.

〈표 22〉 보험중개시장 모집형태별 수입보험료(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억 위안, %)

구 분		2009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보험대리회사	보험료	329	108	80	168	125	482	135
	구성비	3.6	2.9	3.8	5.0	7.3	4.4	3.4
보험중개인회사	보험료	245	61	67	96	89	313	86
	구성비	2.7	1.6	3.2	2.9	5.2	2.9	2.1
설계사	보험료	4,127	1,472	834	1,557	820	4,682	1,779
	구성비	45.0	39.3	39.2	46.4	48.0	42.8	44.2
겸업회사	보험료	4,461	2,108	1,445	1,537	674	5,464	2,028
	구성비	48.7	56.2	53.9	45.8	39.5	49.9	50.3
- 은행	보험료	3039	1,500	639	1,063	301	3,503	1,270
	구성비	33.2	40.0	30.1	31.7	17.6	32.0	31.5
- 우체국	보험료	628	325	135	257	179	896	416
	구성비	6.9	8.7	6.3	7.7	10.5	8.2	10.3
- 자동차 판매점	보험료	328	127	82	165	51	425	150
	구성비	3.6	3.4	3.9	4.9	3.0	3.9	3.7
- 기타 겸업 회사	보험료	466	156	289	52	143	640	192
	구성비	5.1	4.2	13.6	1.5	8.4	5.8	4.8
합 계	보험료	9,161	3,750	2,125	3,358	1,708	10,941	4,027
	구성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1) 겸업회사는 은행, 우체국, 자동차 판매점, 항공사, 철도운행사 등을 포함함.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3)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조사 개요 및 출처

■ 중국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產保險)으로 구분되는데, 중국 보험산업을 감독하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http://www.circ.gov.cn>)에서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월별 누적 통계(raw data)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및 주요 경영실적 등 경영지표 분석을 위해 보험산업경영 현황표(保險業經營情況表)를 사용함.
- 보험중개시장 판매채널별 수입보험료 구성 분석은 ‘보험중개시장보고(保險仲介市場報告)’의 통계를 활용함.
- 또한, 인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人身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와 손해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財產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를 활용해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분석을 시도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중국보험연감〉 분류 기준에 근거해 인보험을 상해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으로 분류해 기술함.

- 생명보험은 신중보험인 투자연동형보험, 만능형보험(변액, 유니버설), 배당형보험과 저축성 위주의 전통생명보험으로 분류함.

■ 중국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 용어로 의역함.

변경 전	변경 후
재산보험(財產保險)	손해보험
인신보험(人身保險)	인보험
인수보험(人壽保險)	생명보험
의외상해보험(人身意外傷害保險)	상해보험

■ 실적치는 보험회사들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속보 자료로 연말에 최종 집계되는 데이터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V. 국내외 보험·금융 주요 뉴스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25호 (4. 4)	국민소득 증가 및 경제의 불안요인 ·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와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는 가계부채 부담 증가, 물가상승 압력 상승, 성장 잠재력 약화, 소득재분배 문제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민소득 2만 불 시대, 연합뉴스, 3/30)
제125호 (4. 4)	조기노령연금의 기능과 사적연금시장 성장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201년 조기노령연금의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으로 국민연금 이외의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10년도 퇴직연금시장 분석, 금감원, 3/23)
제126호 (4. 11)	원화강세의 원인과 향후 전망 · 원/달러 환율의 강세 현상으로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이 상반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며,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됨. (원화강세, 중앙일보, 4/5)
제126호 (4. 11)	저축은행 특별계정과 구조조정 · 저축은행 부실처리와 관련하여 예금보험기금 내 특별계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4월 1일부터 시행됨. (저축은행 특별계정 가동, 한국경제, 4/6)
제127호 (4. 18)	기준금리 동결 배경과 전망 · 4월 12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0%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함. · 일부 전문가들은 선제적이고 과감한 기준금리 대응 및 유동성 억제 방안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통화정책방향, 한은, 4/12)
제127호 (4. 18)	3월 고용동향 현황 및 분석 ·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취업자가 전년동기대비 46만 9천명 증가하면서 개선세가 지속됨. (2011년 3월 고용동향, 통계청, 4/13)

■ 국내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28호 (4. 25)	금융분야 IT 보안사고 및 시사점 · 금융당국은 연이은 금융분야 IT 보안관련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회사 IT 보안 강화 TF’를 구성하여 금융회사 IT 보안 분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함. (금융회사 IT 보안 강화 TF, 금감원, 4/15)
제128호 (4. 25)	부실 PF대출과 대응방안 · 금융권에서는 부실 PF대출 규모의 증가에 따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의 대안으로 배드뱅크(Bad Bank) 설립 방안이 제시됨. (배드뱅크 설립 추진, 연합뉴스, 4/18)
제129호 (5. 2)	카드론 부실 논란 및 시사점 · 일부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대출인 카드론 증가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제2의 카드대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 감독당국은 카드대란 위기론과 관계없이 카드론에 대한 감시 및 규제를 강화할 계획임. (카드대란 우려, 연합뉴스, 4/15)
제129호 (5. 2)	실질 국내총소득(GDI)과 국내경제 · 2011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수출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을 나타낸 반면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성장이 크게 둔화됨. · 실질 국내총소득(GDI) 감소는 국내 수출제품 가격하락과 수입제품 가격상승이 초래한 교역조건 악화가 그 원인으로 지적됨. (2011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한은, 4/27)
제130호 (5. 9)	4월 수출 사상 최고 수준 기록 · 유가불안, 원화강세 등의 대외적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4월 수출이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냄. · 세계경제 회복, 수출 지역 다변화, 현지 생산 확대, 고부가 가치 제품 증가, 일본 대지진의 반사이익 등이 수출 호조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2011년 4월 수출입 동향, 지경부, 5/1)
제130호 (5. 9)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활과 가계부채 ·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활에도 불구하고 4월 중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집단대출 확대와 계절적 요인이 4월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지속시킨 주요 요인으로 지적됨. (DTI 부활에도 주택대출은 늘어, 한국경제, 5/1)

■ 국내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31호 (5. 16)	고령화로 인한 국민의료비, 복지지출 부담 증가 ·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국민의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현재 6.9%에서 2020년에 최대 11.2%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복지지출이 현재와 유사한 속도로 증가할 경우 2050년 국내총생산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5.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미래 의료비 시나리오, 보건복지부, 5/10)
제131호 (5. 16)	방카슈랑스 실적 증가와 경쟁 심화 · 상대적인 금리 매력도를 가진 저축성보험의 실적 증가가 저축성보험 비중이 큰 생명보험 방카슈랑스 실적을 크게 증가시킴. ·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의 방카슈랑스 비중 확대 속에 농협 생명보험의 합류가 예정되어 있어 방카슈랑스 영업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방카슈랑스 인기 급상승, 연합뉴스, 5/11)
제132호 (5. 23)	소득계층에 따른 조세격차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격차(Tax Wedge) 증가폭이 OECD 회원국 평균 증가폭을 상회함. ·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의 조세격차가 더 많이 늘어나 소득세와 사회보험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됨. (세금 · 사회보험 부담, 저소득층이 더 늘어, 연합뉴스, 5/18)
제132호 (5. 23)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과 영향 · 금감원은 2011년 IFRS 적용기업을 대상으로 IFRS 도입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 · 이슈별로 분석함. · 금감원은 IFRS 도입으로 수혜업종과 불리업종이 존재하지만, 이는 기업의 펀더멘탈 변동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투자분석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IFRS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 분석, 금감원, 5/16)
제133호 (5. 30)	소득 대비 비소비지출 비중 증가 · 2011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73만 7천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1% 증가했으며, 이는 가계대출 증가로 이자비용이 늘어나고 각종 연금 및 사회보험 가입과 부담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2011년 1/4분기 가계동향, 통계청, 5/21)
제133호 (5. 30)	상장 저축은행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유예 · 금융당국은 상장 저축은행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을 5년간 유예할 예정임. · 금융당국은 최근 저축은행이 처한 경영환경과 감독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오는 7월 IFRS 적용이 저축은행에 대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함. (저축은행 IFRS 적용 5년 유예, 한국경제, 5/24)

■ 국내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34호 (6. 7)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제도 및 관행 개선 · 금감원은 서민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금융서비스 이용 시 발생 가능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중점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소비자에 대한 공시 및 고지 의무도 강화함. · 금융회사와의 정보 비대칭성이 심하고 교섭력이 약한 영세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권도 강화함. (1/4분기 금융제도 · 관행 개선실적, 금감원, 5/31)
제134호 (6. 7)	4월 경기동행 및 선행지수 동반 하락세 · 현재의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미래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가 4월 들어 모두 하락세를 나타냄. · 소비심리 위축과 투자부진이 경기동행 및 선행지수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된 가운데 5월 산업활동지표의 개선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임. (4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5/31)
제135호 (6. 13)	신용카드회사의 외형 확대경쟁 차단 대책 · 금융감독당국은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남발, 카드대출 급증 등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우려가 커짐에 따라 특별대책을 마련함. · 외형 확대경쟁에 대한 적절한 감시를 위하여 신용카드 3개 부문에 대한 적정 증가액(율)을 설정하고 회사별로 제시된 목표치를 주(週) 단위로 점검할 계획임. (신용카드사의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 금감원, 6/7)
제135호 (6. 13)	자영업 가구의 부채상환 능력 열위 ·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이 일반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자영업 가구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중도 일반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금융위기 이후에는 소위 생계형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자영업 가구의 가계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취약해질 것이 우려됨. (자영업 부채상환능력 임금근로자 절반, 연합뉴스, 6/7)
제136호 (6. 20)	소비자물가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 · 금융통화위원회는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지속으로 2011년 6월 10일 기준금리를 3.0%에서 3.25%로 인상하기로 결정함. · 일부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우려하여 빠른 속도의 기준금리 인상은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한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소비자물가 상승을 잠재우기 위해 연내 2~3차례 기준금리 추가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함. (통화정책방향, 한은, 6/10)
제136호 (6. 20)	총 금융자산 및 개인 순금융자산 증가 · 한은에 따르면 2011년 1/4분기 국내 경제주체의 총 금융자산이 2010년 말 대비 3.2% 증가한 1경 630조 7천억 원인 것으로 조사됨. · 개인부문의 경우 순금융자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무건전성 지표인 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도 개선됨. (2011년 1/4분기 중 자금순환, 한은, 6/16)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37호 (6. 27)	OECD의 ‘한국을 위한 사회정책 보고서’ 주요 내용 · OECD는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발표함. · 우리나라 고용시장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을 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고용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정책 과제로 정년제와 여성 및 청년 고용률 문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함. (OECD ‘한국을 위한 사회정책 보고서’ 발표, 동아일보, 6/22)
제137호 (6. 27)	가계부채 상환능력 악화 · 한은에 따르면 2011년 1/4분기 가계신용이 증가하여 처음으로 800조 원을 돌파하였으나,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가계신용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면서 가계부채 상환능력은 악화됨. (가계부채 상환능력 사상 최악 수준, 연합뉴스, 6/22)

■ 미국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25호 (4. 4)	미국 출구전략 논의 확대와 시사점 · 재무부가 주택저당증권(MBS)의 단계적 매각 계획을 발표하고 연준 또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리버스 레포(Reverse Repo) 발행을 개시한다고 발표하면서 출구전략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짐. (Bloomberg 등, 3/31)
제126호 (4. 11)	미 연준 내부의 출구전략 논의 확대와 의미 · 최근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잇달아 출구전략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나라야나 코치라코타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함. (Wall Street Journal 등, 4/1)
제127호 (4. 18)	미국 재정적자 감축 논란 확대 · 미 백악관과 의회는 385억 달러의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하는 2011년도 예산안에 합의하였으나, 재정적자 문제로 인한 백악관과 의회의 대립은 정부부채 한도 상향조정 문제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LA Times 등, 4/13)
제128호 (4. 25)	미국 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과 시사점 · S&P는 미국의 부채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함. (CNN 등, 4/18)
제129호 (5. 2)	미 연준,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 지난 27일 버냉키 연준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둔화되었기 때문에 201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다고 밝힘. (CNN 등, 4/28)
제130호 (5. 9)	미국 지방소형은행들의 어려움 지속 · 지난 4월 29일 미 예금보험공사(FDIC)는 플로리다, 조지아, 미시건 주 등에서 5개의 소형은행이 파산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로써 올해 미국에서 파산한 은행 수는 총 39개로 증가함. (Wall Street Journal, 4/29 등)
제131호 (5. 16)	미국 주택가격 하락세 심화 · 미국 부동산 중개회사 질로우(Zillow)에 따르면 1/4분기 미국 주택가격이 전분기대비 2.9% 하락하면서 2008년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고, 월별 주택가격도 5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남. (Wall Street Journal, 5/9)

■ 미국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32호 (5. 23)	재보험료 인상으로 보험업계 타격 불가피 · 대재해 빈발로 인한 글로벌 재보험사의 실적 악화, 허리케인 피해 증가 전망 등으로 미국 내 재보험료 인상 압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플로리다 지역 보험사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Financial Times 등, 5/15)
제133호 (5. 30)	2차 양적완화정책, 부정적 평가 확산 · 경제전문 웹사이트 마켓워치의 아렌즈는 2차 양적완화정책 이후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경제성장률은 둔화되었으며 고용확대 효과도 미미했다고 지적하면서 2차 양적완화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함. (Marketwatch 등, 5/23)
제134호 (6. 7)	미 국채 CDS 거래량 증가와 의미 · 미 의회가 연방정부 부채 법정한도의 상향조정 문제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미 국채의 디폴트를 보증하는 CDS 거래가 전년대비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Financial Times 등, 5/26)
제134호 (6. 7)	빈발하는 자연재해로 보험사 손실 확대 우려 · 재난위험 평가 전문업체 EQECAT은 빈발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2011년 미국 보험사들의 날씨 관련 손실액이 예년 평균 20억~40억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한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Reuters, 5/24)
제135호 (6. 13)	경제지표 악화에 따른 추가 양적완화정책 관심 확대 · 실업률이 두 달 연속 상승하고 제조업지수도 1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세 둔화 조짐이 확대되면서 연준의 추가 양적완화 정책 시행에 대한 기대가 증가함. (Financial Times 등, 6/7)
제136호 (6. 20)	1/4분기 미국 가계 순자산, 소폭 증가 · 1/4분기 미국 가계 순자산은 부동산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 금융자산이 증가하고 가계 부채가 감소하면서 전분기대비 1.7% 증가한 58조 달러로 나타남. (Bloomberg 등, 6/9)
제137호 (6. 27)	가계 및 정부부채 증가, 경기회복 어려움 가중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가계와 정부의 부채 증가가 경기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부채문제는 고르지 못한 경제 성장, 정부의 추가 시장개입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함. (Wall Street Journal 등, 6/27)

■ 유럽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25호 (4. 4)	바젤Ⅲ와 솔벤시Ⅱ의 상충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유럽의 은행감독방안은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유동자산 보유를 권장하고 있으나 보험감독방안은 장기 채권 보유에 대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채권발행을 통한 은행의 자금조달이 어려울 전망이다. (Bloomberg, 3/28)
제126호 (4. 11)	포르투갈 구제금융 신청 이후에 대한 전망 · IMF와 EU는 포르투갈 금융시장의 문제를 유동성보다는 정부의 지급불능에 있다고 보고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구제금융이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유동성 부족 문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Financial Times 등, 4/5)
제127호 (4. 18)	유럽 은행 · 정부 재정상태, 글로벌 금융시스템 위협 · IMF는 신흥개도국의 경기회복, 각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선진국 은행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 것은 아니라고 밝힘. (Bloomberg 4/13)
제128호 (4. 25)	경기회복 조짐, 물가 급등으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상승 · 유럽중앙은행은 경기회복 조짐으로 기준금리 정상화에 대한 부담이 약화되었으며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커짐에 따라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설득력을 얻게 됨. (Financial Times 등, 4/19)
제129호 (5. 2)	그리스 채무 구조조정 논쟁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46명(전체에서 84%)은 그리스의 채무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하며 채무 구조조정 방식으로 상환기한 연장, 금리 인하, 채무원금 일부 탕감 등을 전망함. (Wall Street Journal 등, 4/26)
제130호 (5. 9)	영국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증대 · 영란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우려되나 아직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 못하고 정부지출 삭감 및 가계부채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로 판단함. (Wall Street Journal 등, 5/4)

■ 유럽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31호 (5. 16)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배경 · ECB는 기준금리 동결 배경으로 유럽 주변부 국가의 경제성장 둔화, 금융시장 유동성 악화, 유로화 강세 등을 거론함. (Wall Street Journal 등, 5/7)
제132호 (5. 23)	1/4분기 유로지역 경기회복세 예상 박 호조 · 유로지역의 2011년 1/4분기 실질 GDP가 전망치를 웃돌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 · 독일은 수출 외에도 내수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유로지역 경기회복을 견인함. (EC 등, 5/16)
제133호 (5. 30)	유럽 재정위기 악화 원인: 회원국 간 경제력 격차 확대 · 그리스 등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재정불안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금융위기 동안 국가 간 경제력 격차가 확대된 것이 주요 원인임. (Financial Times 등 5/24)
제134호 (6. 7)	그리스 위기 확대 저지 공감대 형성 · 그리스 구제금융 5차분 지원유보 발표와 그리스 국가신용등급 3단계 하락으로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이 크게 치솟았으나 그리스 위기 확대를 조기에 막아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리스 추가지원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될 전망이다. (Financial Times 등, 6/1)
제135호 (6. 13)	중국기업의 유럽기업 M&A 급증 · 중국기업의 유럽기업 인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대내적으로는 풍부한 자금, 정부의 지원, 중국기업의 유럽 선호, 대외적으로는 해외자본 유입에 대한 유럽의 우호적 분위기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됨. (Wall Street Journal, 6/6)
제136호 (6. 20)	그리스 위기, 은행 유동성 문제로 전이될 전망 · 그리스가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받아 디폴트 상태를 면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 은행의 유동성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구제금융 이후에도 그리스 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Wall Street Journal, 6/14)
제137호 (6. 27)	IMF,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책 요구 · IMF는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주변부 국가의 자발적인 경제 구조조정과 재정지출 삭감, 유럽 각국의 응집력 있고 단합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Wall Street Journal, 6/22)

■ 일본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25호 (4. 4)	정부발생 부흥국채에 대한 일본은행의 반대 · 일본은행은 일본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부흥채권에 대한 일본은행의 직매입 법률개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함. (로이타 3/25, 요미우리 3/18 종합)
제126호 (4. 11)	금융당국, 지진피해 조기복구를 위한 적극적 금융지원 · 일본은행은 동일본 대지진의 조기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진피해지역의 금융회사에 대해 기준금리수준의 정책성 대출자금 1조 엔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함. (아사히신문 4/1, 요미우리신문, 일본경제신문 4/7)
제127호 (4. 18)	일본은행과 정치권, 지진복구비 조달을 놓고 갈등 · 동일본지진의 사태수습이 장기화되면서 엄청난 복구비 조달을 위해 조만간 발행될 국채를 일본은행이 직접 매입해 달라는 정치권의 압력이 커짐. (로이타 4/11, 4/12, 마이니치신문 4/12)
제128호 (4. 25)	지진피해지역 지방은행들 공적자금 신청 확산 ·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사고의 피해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진발생 지역에 영업기반을 둔 지방은행들이 연이어 공적자금을 신청함. (후지산케이비즈니스 4/19, 니혼게이지아신문 4/20)
제129호 (5. 2)	일본정부, 지진보험 부담비를 확대 방침 ·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보상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지진보험금 지급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정부는 정부와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운영하는 지진보험의 정부 부담비율을 확대하기로 함. (요미우리신문, 4/23)
제129호 (5. 2)	S&P, 일본 신용등급 하향 조정, 보험사도 부정적 강등 ·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S&P는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함. (산케이Biz, 4/28)
제130호 (5. 9)	일본은행,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1%p 하향 조정 · 일본은행은 2011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의 1.6%에서 0.6%로 1%p 하향 조정함. (마이니치신문, 4/29)
제130호 (5. 9)	미즈이스미토모해상, 지분참여를 통한 인도네시아 생보업 진출 · 미즈이스미토모해상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대기업 계열회사인 Sinarmas Life 생명과 전략적 자본제휴를 통한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진출에 합의함. (동경신문, 5/2)

■ 일본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31호 (5. 16)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진보험 가입 급증 · 일본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지진보험 가입이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최근 크게 증가함. (요미우리신문, 5/10)
제132호 (5. 23)	후생노동성, 건강보험제도 안정화를 위해 1.1조엔 투입 예정 · 일본 후생노동성은 건강보험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약 1.1조 엔의 정부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사회보장과 세제 개혁(안)’에 이를 반영하기로 함. (니혼게이자이신문 5/17)
제133호 (5. 30)	사회보장 재정 안정화를 위해 소비세 10%로 인상 추진 · 일본 내각부는 금년 6월 하순에 확정될 ‘사회보장과 세제 개혁(안)’에서 사회보장 재정 안정화를 위해 소비세율(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을 2015년까지 점진적으로 1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아사히신문, 5/24)
제134호 (6. 7)	2010년도 주요 생명보험회사 결산 결과, 영업이익 감소 · 2010년도 일본 주요 생명보험회사의 결산 결과,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지급보험금 및 급부금 증가의 영향으로 대부분 회사에서 영업이익이 감소함. (후지산케이 5/27, 보험매일신문 5/30)
제135호 (6. 13)	일본경제 2011년 제로 성장 후 ‘V자’성장 전망 · 일본의 주요 민간연구기관들은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2011년 일본 경제성장률이 0.1% 수준에 머무를것으나 ‘V자’회복을 이루면서 경기침체는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일본경제신문, 6/8)
제136호 (6. 20)	토쿄해상, 일본에서 처음으로 인도 생·손보업 동시 진출 ·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의 아시아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토쿄해상이 인도의 유력 금융회사인 Edelweiss Capital(이하 ‘ECL’사라함)과 생명보험회사 공동설립을 통해 인도시장에 진출함. (토쿄해상, 6/14)
제137호 (6. 27)	일본금융청, 국제회계기준 2017년 이후로 도입 연기 · 일본금융청이 IFRS 도입의 준비기간을 5~7년 정도로 연장함으로써 IFRS 도입은 2017년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마이니치신문, 6/21)

■ 중국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25호 (4. 4)	중국 경제의 성장과 불안요인 · 2008년 중국증시 시가총액 규모가 세계 2위에 올라섰고 2010년 국내 총생산이 세계경제의 10%를 차지하는 고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통화당국은 인플레이션과 세계적 불경기에 대비하여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 고심함. (신화망, 3/25)
제126호 (4. 11)	금리 인상 효과 및 전망 · 4월 6일 중국인민은행이 금융기관의 예금 및 대출 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결정하며, 통화긴축정책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예상임. (Financial Times, 4/5)
제127호 (4. 18)	1/4분기 무역수지 적자 원인 분석 · 중국 1/4분기 무역수지는 10억 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7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나타내며, 이는 내수 위주의 경제체제 재편 등으로 인한 수입 확대와 대외적 영향에 따른 수출 둔화에 기인함. (중국증권보 등, 4/11)
제128호 (4. 25)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지속 · 물가안정이 목표인 긴축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식료품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32개월 만에 가장 높은 5.4%대를 기록함. (중재망 등, 4/13)
제128호 (4. 25)	방카슈랑스 추이 및 향후 전망 · 중국 보험당국은 은행 이외의 타 금융회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카슈랑스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공개하며, 동 개정안이 통화되면 중소보험사를 중심으로 판매채널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계 등, 4/18)

■ 중국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29호 (5. 2)	4월 보험감독 규정 개정 · 4월 중국보험당국은 인터넷 보험판매, 보험업 종사자 자격, 보험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자격 등에 대한 규정안과 규정을 발표함. (매일 재경, 4/25)
제129호 (5. 2)	방카슈랑스 매출 감소 · 중국의 방카슈랑스 수입보험료는 2010년 10월부터 시행된 ‘방카슈랑스 관련 보험 분쟁 방지’ 규정의 여파로 2011년 1/4분기 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신식신보 등, 4/28)
제130호 (5. 9)	중국 신규분양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와 배경 · 2010년 4월 이후 3차에 걸쳐 시행된 부동산통제정책에 따라 4월 중국 100개 도시 신규분양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대비 0.19%p 하락함. (신랑 재경망 등, 5/3)
제131호 (5.16)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하락과 배경 · 임금 수준 급등 등 원인으로 중국 연금 소득대체율이 50% 이하로 하락하여 공사연금의 소득대체율 목표치인 8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공무원과 일반기업 근로자의 연금 소득대체율 차이가 심각함. (남풍창, 5/3)
제131호 (5.16)	보험감독위원회, 변액연금 도입을 위한 시범 실시 결정 · 중국 보험감독위원회는 베이징, 상해, 광저우, 선전, 샤먼 등 5개 도시를 우선대상으로 변액연금을 시범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대형보험회사보다 중소형 보험회사와 외자계 회사가 더 적극적 태도를 보임. (중국증권보, 5/11)
제132호 (5.23)	지준율 5개월 연속 인상과 전망 · 은행대출 축소와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5월 12일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 11월 이래 여덟 번째인 지준율 인상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지준율이 21%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제일 경제일보, Wall Street Journal, 5/13)

■ 중국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33호 (5.30)	상하이 증시 국제판 개설 논의 진전 · 5월 20일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해외 우수기업의 중국증시 상장을 위한 국제판(International Borad) 개설계획이 막바지 작업 중에 있다고 발표했으며, 국제판 설립이 중국금융시장의 국제화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됨. (중국증권보, 재경망 5/24)
제134호 (6. 7)	외자계 보험회사 점유율 하락과 원인 · 외자계 보험회사의 지분소유 제한, 책임보험 판매 불허 등 시장 진입장벽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중국보험회사들의 경쟁력도 향상되었음에 따라 외자계 보험회사가 중국시장에 진입한 지 10년 후인 2011년 1/4분기 현재의 시장점유율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해방일보, 5/31)
제135호 (6.13)	도시주민 사회양로보험 제도 도입과 시사점 · 중국은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2011년 7월 1일부터 ‘도시주민 사회양로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연금을 해당하는 ‘사회양로보험’의 대상을 도시거주 무직자로 확대할 계획임. (중국경제시보, 6/3)
제136호 (6.20)	중국산 생산물 책임보장 요구 확대로 ‘제조상소홀책임보험’ 등장 · Zurich 보험회사는 생산제품의 품질문제로 인한 제3자(제품구입자, 제품사용자 등)의 경제적 손실(신체적 손해 제외)을 보장하는 ‘제조상소홀책임보험(制造商疏忽責任險)’을 6월 13일부터 중국에서 최초로 판매함. (경제참고보 등, 6/10)
제137호 (6.27)	변액연금의 출시와 외자 및 합작 보험회사의 적극적 진출 · 중국 대형보험회사는 변액연금시장 진입에 대해 아직까지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리스크 헤지에 우위가 있는 외자계 보험회사와 합작보험회사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6월 20일 합자회사인 금홍보험(AXA-Minmetals)이 최초로 변액연금상품을 출시함. (시나 재경 등, 6/21)

VI. 통계표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9			2010				2011
	2/4	3/4	4/4	1/4	2/4	3/4	4/4	1/4
국내총생산 성장률	-2.1	1.0	6.3	8.5	7.5	4.4	4.7	4.2
경상수지	11,557	8,613	8,077	263	8,858	9,931	9,161	2,610
수 출	87,038	95,485	102,332	101,355	117,585	118,257	127,090	127,691
수 입	73,485	84,571	91,753	96,569	105,345	105,715	114,754	121,849
실업률	3.8	3.6	3.3	4.7	3.5	3.5	3.3	4.2
금리	국고채(3년)	3.89	4.30	4.34	4.14	3.74	3.70	3.30
	회사채(3년)	5.35	5.59	5.46	5.25	4.61	4.63	4.16
소비자물가지수	112.7	113.3	113.5	114.6	115.6	116.6	117.6	119.7
환율	원/달러	1,284.70	1,188.70	1,167.60	1,130.80	1,210.30	1,142.00	1,138.90
	원/엔화	1,336.28	1,318.80	1,262.82	1,217.68	1,364.56	1,363.34	1,397.08
KOSPI	1,390.1	1,673.1	1,682.8	1,692.9	1,698.3	1,872.8	2,051.0	2,106.70
외환보유고	231,735	254,247	269,995	272,331	274,219	289,775	291,571	298,618

주: 1) 환율, 추가지수는 월말, 마감기준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 기준임.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증감 추이

(단위: 억 원)

구 분	2009				2010			
	1/4	2/4	3/4	4/4	1/4	2/4	3/4	4/4
보 험	72,569	101,850	100,434	112,581	90,965	113,206	106,839	97,513
- 생 보	52,047	73,533	71,883	84,809	65,558	79,340	80,183	68,578
- 손 보	20,522	28,317	28,551	27,772	25,407	33,866	26,655	28,935
은 행	141,250	218,527	282,694	121,671	217,133	265,044	33,397	274,211
- 일 반	187,727	245,899	282,430	102,900	176,891	247,333	44,878	150,020
- 신 탁	-46,477	-27,372	264	18,771	40,242	17,711	-11,481	124,191
증 권	81,168	37,013	33,892	-44,842	45,027	15,820	-7,803	17,429
투 신	261,799	-115,228	-282,355	-140,750	107,354	-83,616	-78,660	-111,569
총 금	34,826	-64,396	-76,105	-7,191	38,000	-22,687	-13,827	9,480

주: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성장률 및 구성비 추이

(단위: 억 원, %)

구 분		FY2009			FY2010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보험	보험료	40,807	40,908	153,119	40,313	41,775	44,312	44,496	170,897
	성장률	16.2	14.1	8.8	17.2	12.9	8.6	8.8	11.6
	구성비	18.2	21.4	19.9	21.0	21.7	19.0	21.0	20.6
사망보험	보험료	72,632	72,330	289,498	71,767	71,868	71,895	71,632	287,162
	성장률	-0.7	-0.1	-1.7	-0.2	-1.1	-1.0	-1.0	-0.8
	구성비	32.5	37.8	37.6	37.3	37.4	30.8	33.8	34.6
생사혼합보험	보험료	21,248	23,387	82,052	24,183	24,875	27,370	28,786	105,215
	성장률	33.9	20.1	23.6	33.6	28.7	28.8	23.1	28.2
	구성비	9.5	12.2	10.7	12.6	12.9	11.7	13.6	12.7
변액보험	보험료	44,375	44,522	171,882	44,983	45,598	50,600	52,949	194,130
	성장률	5.1	10.4	-2.3	10.0	8.3	14.0	18.9	12.9
	구성비	19.8	23.3	22.3	23.4	23.7	21.7	25.0	23.4
개인보험계	보험료	179,061	181,145	696,551	181,247	184,116	194,177	197,863	757,403
	성장률	7.6	7.8	2.8	9.7	7.6	8.4	9.2	8.7
	구성비	80.1	94.6	90.5	94.2	95.8	83.2	93.3	91.2
단체보험계	보험료	44,544	10,277	73,017	11,156	8,033	39,241	14,242	72,672
	성장률	48.0	23.8	25.7	12.6	-3.1	-11.9	38.6	-0.5
	구성비	19.9	5.4	9.5	5.8	4.2	16.8	6.7	8.8
전체	보험료	223,606	191,423	769,568	192,402	192,149	233,418	212,105	830,074
	성장률	13.8	8.6	4.6	9.8	7.1	4.4	10.8	7.9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 · 지급보험금 증가율 및 보험금 지급률 추이

(단위: 억 원, %)

구 분		FY2009			FY2010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보험	지급보험금	21,283	22,101	85,090	20,570	21,441	27,107	26,149	95,267
	증가율	-43.3	-21.8	-29.0	-1.3	2.7	27.4	18.3	12.0
	지급률	52.2	54.0	55.6	51.0	51.3	61.2	58.8	55.7
사망보험	지급보험금	35,853	37,182	149,298	36,009	36,698	36,739	37,843	147,289
	증가율	-8.1	-10.0	1.6	-3.1	-6.1	2.5	1.8	-1.3
	지급률	49.4	51.4	51.6	50.2	51.1	51.1	52.8	51.3
생사혼합보험	지급보험금	23,144	19,768	70,557	12,028	12,509	18,789	14,872	58,198
	증가율	19.9	28.8	-1.5	-6.0	-15.7	-18.8	-24.8	-17.5
	지급률	108.9	84.5	86.0	49.7	50.3	68.6	51.7	55.3
변액보험	지급보험금	21,928	23,385	81,281	25,859	28,701	39,263	35,562	129,385
	증가율	30.8	66.6	36.4	73.3	36.4	79.1	52.1	59.2
	지급률	49.4	52.5	47.3	57.5	62.9	77.6	67.2	66.6
개인보험계	지급보험금	102,208	102,435	386,227	94,466	99,349	121,899	114,425	430,139
	증가율	-9.2	3.5	-3.0	10.2	3.6	19.3	11.7	11.4
	지급률	57.1	56.5	55.4	52.1	54.0	62.8	57.8	56.8
단체보험계	지급보험금	36,589	23,430	87,562	18,597	12,617	42,941	32,797	106,952
	증가율	70.3	-7.5	13.2	16.8	8.5	17.4	40.0	22.1
	지급률	82.1	228.0	119.9	166.7	157.1	109.4	230.3	147.2
전체	지급보험금	138,797	125,865	473,789	113,063	111,966	164,841	147,222	537,091
	증가율	3.5	1.3	-0.3	11.2	4.2	18.8	17.0	13.4
	지급률	62.1	65.8	61.6	58.8	58.3	70.6	69.4	64.7

주: 1) 보험금 지급률=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사업비증가율 및 사업비율 추이

(단위: 억 원, %)

구 분		FY2009			FY2010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보험	사업비	8,288	7,620	30,460	7,837	7,797	8,336	8,972	32,942
	증가율	-4.9	25.8	-6.6	13.9	1.6	0.6	17.7	8.1
	사업비율	20.3	18.6	19.9	19.4	18.7	18.8	20.2	19.3
사망보험	사업비	19,533	18,283	73,791	18,672	18,329	18,185	20,460	75,645
	증가율	9.9	11.6	3.9	5.7	0.1	-6.9	11.9	2.5
	사업비율	26.9	25.3	25.5	26.0	25.5	25.3	28.6	26.3
생사혼합보험	사업비	5,237	5,025	20,005	4,779	5,089	5,745	6,232	21,844
	증가율	-18.0	6.5	-22.9	-1.9	4.5	9.7	24.0	9.2
	사업비율	24.6	21.5	24.4	19.8	20.5	21.0	21.6	20.8
개인보험계	사업비	33,058	30,929	124,256	31,288	31,215	32,265	35,663	130,431
	증가율	0.6	13.9	-4.1	6.4	1.2	-2.4	15.3	5.0
	사업비율	18.5	17.1	17.8	17.3	17.0	16.6	18.0	17.2
단체보험계	사업비	1,008	985	3,729	1,097	955	953	1,212	4,216
	증가율	9.0	25.9	6.0	25.5	10.8	-5.5	23.0	13.1
	사업비율	2.3	9.6	5.1	9.8	11.9	2.4	8.5	5.8
전체	사업비	34,066	31,914	127,985	32,385	32,170	33,218	36,875	134,647
	증가율	0.8	14.2	-3.8	6.9	1.4	-2.5	15.5	5.2
	사업비율	15.2	16.7	16.6	16.8	16.7	14.2	17.4	16.2

주: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사업비/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임.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5)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억 원, %)

구 분		FY2009			FY2010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화 재	보험료	798	679	2,763	622	602	779	657	2,660
	성장률	0.7	4.3	-2.5	-5.0	-4.7	-2.4	-3.2	-3.7
	구성비	0.7	0.6	0.6	0.5	0.5	0.5	0.5	0.5
해 상	보험료	1,858	1,967	8,049	2,084	1,970	1,939	1,728	7,721
	성장률	-27.5	5.5	-5.4	-5.9	-2.0	4.4	-12.1	-4.1
	구성비	1.5	1.7	1.8	1.7	1.6	1.3	1.3	1.5
자동차	보험료	28,482	28,252	112,224	29,307	30,581	32,103	32,143	124,133
	성장률	3.3	6.4	2.6	7.6	8.3	12.7	13.8	10.6
	구성비	23.7	25.0	25.6	24.3	25.0	21.9	24.2	23.8
보 증	보험료	3,106	3,126	12,287	3,194	2,978	3,417	3,483	13,074
	성장률	10.1	5.4	6.6	0.9	3.1	10.0	11.4	6.4
	구성비	2.6	2.8	2.8	2.6	2.4	2.3	2.6	2.5
특 종	보험료	8,919	7,606	33,293	9,665	9,030	9,955	8,469	37,120
	성장률	16.3	12.6	14.3	15.8	7.2	11.6	11.4	11.5
	구성비	7.4	6.7	7.6	8.0	7.4	6.8	6.4	7.1
해 외 원보험	보험료	661	534	2,078	433	568	702	623	2,326
	성장률	3.8	-7.9	16.7	13.1	13.6	6.2	16.6	11.9
	구성비	0.6	0.5	0.5	0.4	0.5	0.5	0.5	0.4
장 기 손 해	보험료	59,443	63,158	232,988	66,651	69,459	72,151	73,551	281,813
	성장률	24.5	27.0	23.4	25.5	21.2	21.4	16.5	21.0
	구성비	49.5	55.9	53.2	55.2	56.7	49.3	55.3	53.9
개 인 연 금	보험료	4,971	5,169	17,841	5,527	5,818	6,444	6,908	24,697
	성장률	46.5	49.9	38.8	51.3	43.7	29.6	33.6	38.4
	구성비	4.1	4.6	4.1	4.6	4.8	4.4	5.2	4.7
퇴 직 보 험	보험료	6,828	573	8,680	960	273	3,940	111	5,284
	성장률	43.1	-48.4	27.5	26.7	-47.5	-42.3	-80.7	-39.1
	구성비	5.7	0.5	2.0	0.8	0.2	2.7	0.1	1.0
퇴 직 연 금	보험료	5,049	1,994	8,119	2,385	1,123	14,890	5,218	23,616
	성장률	307.9	112.4	144.4	346.4	107.4	194.9	161.7	190.9
	구성비	4.2	1.8	1.9	2.0	0.9	10.2	3.9	4.5
계	보험료	120,115	113,058	438,323	120,829	122,403	146,321	132,891	522,444
	성장률	21.1	19.4	16.9	20.8	16.5	21.8	17.5	19.2

주: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 퇴직보험은 퇴직연금을 포함함.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구 분		FY2009		FY2010			
		3/4	4/4	1/4	2/4	3/4	4/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54.3	39.9	21.2	50.1	-7.2	300.2
	사업비율	43.5	36.3	60.0	51.3	49.6	55.1
	합산비율	97.7	76.3	81.2	101.4	42.4	355.3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85.4	81.9	36.1	55.2	143.6	109.6
	사업비율	44.2	36.2	28.7	31.5	37.1	30.8
	합산비율	129.6	118.1	64.8	101.4	180.7	140.4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31.5	88.0	-98.2	70.9	27.8	33.8
	사업비율	21.6	15.5	17.7	20.8	20.7	19.4
	합산비율	53.0	103.4	-80.6	91.8	48.5	53.2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63.0	57.4	52.8	66.4	62.2	66.4
	사업비율	24.4	32.6	24.9	23.1	21.9	27.5
	합산비율	87.4	90.0	77.8	89.5	84.1	93.9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29.0	35.2	42.6	36.1	43.8	41.9
	사업비율	60.0	77.3	59.3	56.9	60.7	70.0
	합산비율	89.0	112.6	102.0	93.0	104.5	111.9
해외수재	경과손해율	60.2	59.3	71.8	51.1	82.3	69.9
	사업비율	30.1	26.8	25.2	26.5	25.1	26.8
	합산비율	90.3	86.1	97.0	77.6	107.5	96.7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79.0	78.6	75.7	82.5	85.9	77.1
	사업비율	31.7	31.7	30.3	31.1	30.2	30.0
	합산비율	110.7	110.3	106.0	113.6	116.1	107.1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80.1	81.5	81.3	81.3	81.6	80.5
	사업비율	17.0	17.5	17.6	17.8	17.4	17.8
	합산비율	97.1	99.0	99.0	99.2	99.0	98.4
전 체	경과손해율	76.7	78.2	72.8	79.3	80.2	77.8
	사업비율	22.5	22.8	21.9	22.3	21.7	22.3
	합산비율	99.1	100.9	94.6	101.6	101.9	100.1

주: 1) 기간별 수치는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치임.

2)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사업비율=순사업비/보유보험료,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임.

3) *는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3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1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1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 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 6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4
- 2010-4(2) 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4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방안 / 김해식, 장동식, 최영목, 김소연,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 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 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 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 8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2009-1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최형선, 최원 2010.3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2010-7 보험종류별 진류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 6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 5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 7

■ 영문발간물

- 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8.9
 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9.9
 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0.9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김동겸 2011.3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 7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 8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5, 9080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 지로번호 : 6360647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보험동향』 2011년 여름호 (통권 58호)

발행일	2011년 8월
발행인	김 대 식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연락처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775-9057, 3775-9059)로 연락하여 주십시오.